

SGRA REPORT

SGRA 보고서 No. 96 한국어판

NO. 96

ISSN 1346-0382

第66회 SGRA 포럼

제6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사람의 이동과 경계·권력·민족



제6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사람의 이동과 경계·권력·민족

■ 개최 취지

금번 ‘국사들의 대화’ 기획은, 자국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각국 연구자들의 대화·교류를 목적으로 2016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총 5회 개최됐다. 국경을 넘어 수많은 참가자가 모여, 각국 국사(國史)의 현상황과 과제, 개별적인 실증연구를 둘러싼 논의와 교류를 이어왔다. 제5회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첫 온라인 개최를 시도함으로써 많은 참가자들의 흥미로운 발언이 있었으나, 토론 시간이 짧아 모든 쟁점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이번에는 다소 실험적으로, 자유로운 토론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과감하게 커다란 주제를 제시했다. 문제제기와 약간의 코멘트를 시작으로 나라, 지역, 시대를 넘어 논의를 풍부하게 전개해 지금까지 확대되어온 참가자의 연대를 한층 깊게 하고자 했다. 또한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국어⇄일본어, 일본어⇄중국어, 한국어⇄중국어 동시통역을 마련했다.

■ 문제제기

「사람의 이동으로부터 본 근대 일본: 국경·국적·민족」

나라와 지역 사이를 이동하는 사람들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역사가 국가를 단위로 함과 동시에 국민의 역사로서 서술될 때, 그들의 경험은 역사로부터 누락된다. 반대로 역사를 둘러싼 대화에서, 사람의 이동은 가장 적합한 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이동과 경계·권력·민족’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 문제제기에서는 근대 일본의 경험을 소재로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도입으로서 미합중국의 오키나와계 커뮤니티에 관한 보고자의 필드워크를 기초로 현대세계의 민족집단(ethnic group)에 대해 개관했다.

첫번째 문제제기로서 근현대의 사람의 이동을 좌우해온 국경과 국적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 사례로서 20세기 전반 일본통치 하의 오키나와와 조선, 그리고 전후 미국 통치하 오키나와의 이민에 대해 소개한다. 국경과 국적이 근현대 주권국가체제나 국제정치구조(제국주의와 냉전)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두번째 문제제기는, 사람의 이동이 정치·사회 질서에 끼친 임팩트로서 국가와 지역을 오가는 민족집단의 형성, 그리고 국가간 관계와 다른 민족간 관계의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20세기 전반 하와이의 일본계 주민과 중국계 주민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다룬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현대 사람의 이동은 전근대와 어떻게 같고 다르며, 또한 국가를 단위로 비교하는 경우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시오데 히로유키 (교토대)

SGRA는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SGRA)는 선량한 지구시민 실현에 대한 공헌을 목표로 하여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소재지인 도쿄도 분쿄구 ‘세키구치’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SGRA는 일본 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연구하고 아쓰미 장학생으로 함께 시간을 보낸 외국인 및 일본인 연구자가 중심이 돼, 현대 사회의 과제에 대처하는 연구와 제언을 포럼 및 보고서 등을 통해 사회에 발신하고 있습니다. 폭 넓은 연구영역을 포괄한 국제적, 학제적 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다국적 연구자가 광범위한 지혜와 네트워크를 결집해 다면적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 고찰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SGRA 소식

SGRA 포럼 등의 공지와 세계각지의 SGRA 회원이 에세이를 매주 목요일에 전자메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SGRA 소식은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entry/registration_form/)에서 자동등록 하시면 됩니다.

제 6 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사람의 이동과 경계 · 권력 · 민족

일 시 | 2021년 9월 11일 (토) 오전 10시~오후 4시 20분 (한국시간)
방 법 | 온라인
언 어 | 한중일 3개국어 동시통역
주 최 | 아쓰미 국제교류재단 /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SGRA)

제 1 세션	[종합사회 : 리 언민 (李 恩民, 오비린대)]	
【개회취지】	시작하며	5
	무라 가즈아키 (村和明, 도쿄대)	
【문제제기】	사람의 이동으로부터 본 근대 일본: 국경 · 국적 · 민족	9
	시오데 히로유키 (塩出浩之, 교토대)	
【지정토론 1】	13~14 세기 몽골제국기 사람의 이동	21
	한국 : 조 원 (趙 阮, 부산대)	
【지정토론 2】	중국 역사의 대규모 사람의 이동	23
	중국 : 장 지아 (張 佳, 푸단대)	
【지정토론 3】	고대 및 중세 일본의 출입국 관리	27
	일본 : 에노모토 와타루 (榎本渉,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제 2 세션	지정토론 [사회 : 남 기정 (南 基正, 서울대)]	
【지정토론 4】	근대에 이뤄진 한국인의 이동	30
	한국 : 한 성민 (韓 成敏, 세종대)	
【지정토론 5】	중심에서 변경으로: '조미아' 라는 개념	34
	중국 : 친 광 (秦 方, 수도사범대)	
【지정토론 6】	제국 · 인권 · 남양: 정치사상사의 관점에서	37
	일본 : 오쿠보 다케하루 (大久保健晴, 게이오대)	

	코멘트	40
	시오데 히로유키 (塩出浩之, 교토대)	
	자유토론 1	42
	강연자와 지정토론자	
제 3 세션	자유토론 2 [사회 : 평 하오 (彭浩, 오사카시립대)]	51
	논점정리 : 류지에 (劉傑, 와세다대)	
	패널리스트 (국사대화프로젝트 참가자) :	
	이치카와 토모오 (市川智生, 오키나와국제대), 오카와 마코토 (大川真, 주오대), 사토 유키 (佐藤雄基, 릿쿄대), 히라야마 노보루 (平山昇, 가나가와대), 아사노 도요미 (淺野豊美, 와세다대), 심 철기 (沈哲基, 연세대), 남 기현 (南基玄, 독립기념관), 김 경태 (金罔泰, 전남대), 왕 야오쩐 (王耀振, 텐진외국어대), 순 찰치양 (孫繼強, 쑤저우대)	
제 4 세션	자유토론 3 [사회 : 정 순일 (鄭淳一, 고려대)]	69
	패널리스트 (국사대화프로젝트 참가자) :	
	이치카와 토모오 (市川智生, 오키나와국제대), 오카와 마코토 (大川真, 주오대), 사토 유키 (佐藤雄基, 릿쿄대), 히라야마 노보루 (平山昇, 가나가와대), 아사노 도요미 (淺野豊美, 와세다대), 심 철기 (沈哲基, 연세대), 남 기현 (南基玄, 독립기념관), 김 경태 (金罔泰, 전남대), 왕 야오쩐 (王耀振, 텐진외국어대), 순 찰치양 (孫繼強, 쑤저우대)	
총괄	송 쯔용 (宋志勇, 난카이대),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도쿄대 명예교수)	81
폐회인사	조 광 (趙珰, 고려대 명예교수)	85

강연자 약력 87

후기를 대신하여

김 경태 (金罔泰) 89,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92

참석자 목록 94

※동시통역
 한국어⇄일본어 : 이 혜리 (李惠利, 한국외대), 안 영희 (安映姬, 한국외대)
 일본어⇄중국어 : 정 리 (丁莉, 북경대), 송 강 (宋剛, 북경외대)
 한국어⇄중국어 : 김 단실 (金丹實, 프리렌서), 박 현 (朴賢, 교토대)

시작하며

무라 가즈아키

도쿄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언]



오늘 세계 각국에서 참가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야 시간인 미국이나 케임브리지에서 참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오늘 기획의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국사들의 대화’ 기획은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종래 자기 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국경을 넘어 모이고 교류하는 장으로 기획하고, 세계와 아시아의 특정 도시에 모여 개최하는 형태로 진행해 왔습니다(7쪽 ‘국사들의 대화’ 프로젝트 경위 참조).

과거에는 기타큐슈, 서울, 필리핀 마닐라 남부에 며칠간 다 함께 같은 장소에 묵으며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해 온 기획입니다. 특히 2020년 1월에는 화산 분화로 필리핀에서 출국을 못하게 되었던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도 다 함께 겪고, 연대를 강화한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세계적으로 확산돼, 과거와 같은 형태로 어딘가에 모두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대화를 계속하고자 하는 취지로 온라인 개최를 시도하였습니다.

올해 1월 온라인으로 말 그대로 전염병을 주제로 한 대화를 약 반나절 동안 개최했습니다. 당일에는 상당히 많은 참가자들이 오셔서 대단히 중요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소 짧았습니다. 토론 시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없어 흥미로운 의견이 많이 나왔음에도 논의가 폭넓게 진행되거나 이어지지 않았고, 누군가 말을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경험을 살려 연이어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지만, 종래와 같이 상세한 보고를 다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다소 실험적인 시도라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만연 하에서는 여러분이 계신 나라, 거주하시는 나라나 도시에서, 역사학 연구에 커다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생이 있으리

라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약간이나마 장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한 가지는 이와 같이 간단히 온라인 개최가 가능해지고, 참가 역시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소 실험적인 시도가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딘가의 도시에서 3일간 모여 실험적인 시도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로는 다소 두렵지만, 온라인이라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해 제시된 기획입니다.

여러분의 논의를 위해 커다란 주제를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국사들의 대화’ 기획 전체의 주제,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사람의 이동과 경계·권력·민족’이라는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사람의 이동이 말 그대로 이처럼 제한돼 있는 것은 근대 이후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고, 이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대와 지역을 넘어 논의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지금까지 국사들의 대화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의 연대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새롭게 참가해주신 분과의 연대도 강화하는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 바로 뒤에는 문제제기로서 교토대 시오데 히로유키 선생님께서 일본 근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선 논의를 시작하실 예정입니다. 시오데 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온 분이기도 합니다.

그 뒤 3개국 각각 두 분씩, 시간 관계상 성함 소개는 생략합니다만, 지정토론, 코멘트 각 10분씩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한 발언자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는 자유롭게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3세션, 제4세션은 누가 어떤 순서로 발언할지 전혀 정해지지 않았습니니다. 자유롭게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실험적 시도가 어디까지 성공할지는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디 지정토론자 여러분, 패널리스트 여러분, 적극적으로 발언하셔서 논의를 전개해 주십시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장으로서, 혹은 자신에게 있어 생각이 흥미로운 사람, 자신에게 중요한 논의를 제공해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나라를 넘어 서로 찾아가는 장, 이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밖에 일반 참가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대단히 죄송하으나 시스템 성격상 직접 발언을 하며 참가하실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의견이 있는 경우 채팅창에 의견을 주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얼마나 채택될지는 사회자의 재량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종합사회이신 리언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역에 대한 부탁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획의 성격상 동시통역이 어디까지 순조롭게 진행될지가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국사들의 대화’ 강점은 다수의 대단히 우수한 동시통역사분들이 항상 협력해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기획은 동시통역사분들에게 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 순서와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온라인 형식일 경우 동시통역사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동시에 2개 국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항상 의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떤 언어로 얘기할 것인지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도 상당히 천천히 얘기하려고 하지만, 동시통역하시는 분들의 존재를 꼭 머릿속에 새기실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소 장시간에 걸쳐 화면을 보시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부디 적극적인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 「국사들의 대화」 프로젝트의 경위

아쓰미 국제교류재단은 2015년 7월, 제 49회 SGRA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포럼을 개최하면서 ‘동아시아의 공공재’ 및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우선 동아시아에 ‘知的 공유공간’ 혹은 ‘知的 플랫폼’을 만들고, 이로부터 화해로 이어지는 지혜를 만들어 동아시아에 공급하는 것의 의의를 확인했다.

이 플랫폼에 「국사들의 대화」 코너를 설치한 것은 2016년 9월의 아시아미래회의를 기회로 개최된 제1회 “국사들의 대화”였다. 지금까지 3개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각국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국사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대화는 심화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우선 동아시아의 역사대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을 찾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타니 히로시 교수 (도쿄대 명예교수), 거자오광 교수 (푸단대 교수), 조광 교수 (고려대 명예교수)의 강연을 통해, 세 나라의 여러 ‘국사’ 연구에서 동아시아의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했다.

제 2회 대화에서는 자국의 역사와 국제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몽골침략과 13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라는 테마를 설정했다. 2017년 8월, 한국·일본·중국·몽골 등에서 11명의 국사 연구자가 기타큐슈에 모여, 각국 국사의 시점에서 연구발표를 행한 후, 동아시아 역사라는 시점에서 조공책봉의 문제, 몽골사와 중국사의 문제, 사료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연구는, 동아시아 전체의 움직임에 주목한다면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개개의 나라와 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었다.

제 3회 대화에서는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주제로 설정했다. 2018년 8월, 한국·일본·중국에서 9명의 국사 연구자가 서울에서 모여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만주의 흥타이지에 의한 조선침공 및 그 배경에 있는 은 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긴밀한 경제관계, 전란 후의 안정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세 차례의 국사 대화를 되돌아보면서 다음 단계로 이어가기 위해, 와세다대학이 주관하는 “화해를 향한 역사가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검증”이라는 패널 토론이 개최되었다.

제 4회 대화에서는 “‘동아시아’의 탄생: 19세기 국제질서의 전환”이라는 테마로 2020년 1월에 필리핀 마닐라시 근교에서 한국·일본·중국의 국사 연구자들이 모여 각국의 ‘서양에 대한 인식’, ‘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서 발표하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5회 대화는 「19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을

테마로 하여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인 2021년 1월에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19세기에 감염병 문제를 각국이 어떻게 인식했고, 또 어떻게 대응책을 준비했는지를 검토하고 각국의 상호협력과 그 한계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각국 발표자의 논문 발표와 함께 지난 4회에 걸친 회의 참여자가 패널리스트로 다수 참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전개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되었다.



사람의 이동에서 본 근대일본 : 국경 · 국적 · 민족

시오데 히로유키

교토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정도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사람의 이동에서 본 근대일본: 국경 · 국적 · 민족’입니다. 근대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이를 일본, 중국, 한국 간 대화의 실마리로 삼고자 합니다.

방금 전 개최 인사에서 무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국경을 넘는 이동이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만이라도 국경을 넘어선 여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우선 제 현장조사 사진과 함께 ‘사람의 이동은 민족과 관련된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진1은 2014년 12월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을 때 찍은 차이나타운 입구 모습입니다.



사진 1

왜 이 차이나타운 얘기로 시작하는가 하면, 로스앤젤레스라는 곳은 일본, 중국, 한국의 에스닉 타운이 각각 존재하는 대단히 흥미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차이나타운은 대단히 넓은 데다가 그 안에는 수많은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가게와 음식점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사진2는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한 음식점입니다. 한국요리가 놓여 있고 한국어도 아무렇지 않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다지 좋은 사진이 없어서 사진을 보시고 작은 마을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넓은 곳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은 현재 차이나타운보다 활기 있는 대단히 큰 지역입니다.

사진3은 ‘리틀 도쿄’라 불리는 일본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있는 곳입니다. 리틀 도쿄는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아타운에 비하면 상당히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동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한 가지 커다란 요인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벌일 때, 리틀 도쿄에 있던 사람들이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은 것이 있겠습니다. 마을이 한번 없어졌던 것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로스앤젤레스에는 동아시아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각각의 나라를 모체로 해서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리틀 도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민족의 존재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진4는 ‘북미오키나와현인회’라는 단체의 건물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오키나와의 이민 커뮤니티로,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제가 실제 오키나와현인회 사람들의 신년회에 참가했을 때 찍은 사진이 있어서, 당시 모습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큰 식당을 빌려 점심을 먹으며 여러가지 행사가 개최됐습니다(사진5). 음식 자체는 완전히 미국풍입니다. 행사는 오키나와 전통 복장을 한 참석자들이 오키

사진 2



사진 3



사진 4



나와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진행됩니다. 참석자들의 친목을 두텁게 하고 자 하는 파티입니다(사진 6). 클라이맥스가 되면 음악에 맞춰 모두 ‘가차시’ 라는 오키나와 전통춤을 추며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이때 우연히 저와 같은 테이블에 동석한 분들은 오키나와 출신 2세 남성과 그 부인, 남성의 누님이었습니다. 부인의 혈통은 오키나와가 아니었고, 조부모가 시가현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시가현인회에도 참가하고 있다는데, 오키나와현인회가 더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부와는 그 뒤 2017년쯤 오키나와에서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 오키나와계 이민이 모이는 5년에 1번 있는 행사

사진 5



사진 6



(‘세계의 우치난추 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는 일본 안에서도 특수한 역사를 지닌 지역입니다. 일본에 지배당하기 전에는 류큐왕국이었습니다. 다른 일본 지역에 비해 특별히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러한 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현재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민족, 즉 에스닉 그룹이라는 것에 대해 실제 사례로부터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 발표에 들어가하고자 합니다.

1 사람의 이동과 국경

1-1 '이동의 자유' 와 국적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사람의 이동' 이라는 것과 바로 오늘 주제의 하 나인 '국경' 에 대한 것입니다. 국경에 대해 생각할 때, 제가 특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동의 자유' 입니다. 현재 이동의 자유가 대단히 제약돼 있는 상황이지만, 애초 이동의 자유란 무엇인지에 대해 우선 생각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국적' 에 대한 것입니다. 이동의 자유, 국경을 넘을 자유라는 것은, 실은 국적과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슬라이드1 은 여권과 비자 사진입니다. 찍혀 있는 인물은 보시는 대로 조선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왼쪽 글자 를 보시면 일본어로 쓰여 있습니다. 위쪽에 '일본제국 해외여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일본 여권입니다. 조선인 여성이 일본 여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1918년이란 날짜가 쓰여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반도가 일본에 지배된 시대입니다.

이 '김' 이라고 하는 여성의 여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남편의 초청으 로 미국령 하와이로 가는 것을 일본 외무대신이 인정한다' 라는 취지가 적혀 있 습니다. '여성의 남편이 하와이에 있고, 하와이로 불렀기 때문에 도항하는 것을 인정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적혀 있는가 하면, 이 시대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 대단히 제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이전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이 대단히 늘어났 던 시기가 있었고, 그 뒤 미국에서 일본배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인은 이 민으로 들어오지 말라' 는 운동이죠. 이 때문에 미일관계가 악화되고 이를 해결

슬라이드 1



하기 위해 미일간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을 제한하기로 서로 합의합니다. ‘미일신사협약(日米紳士協約)’ 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미일신사협약’에 의해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족이 부를 때만 도항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일반 노동자가 자유롭게 도항할 수 없게 됐지만 가족이 이미 미국에 있는 경우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선인 여성도 가족이 하와이에 있고, 그 초청에 의해 하와이에 건너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의 여권도 남아 있지만, 이쪽을 보면 일본 여권이 아니고 대한제국 여권입니다. 1904년, 즉 한국이 독립국이었던 시대에 하와이로 이민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 한국이 일본에 합병됐기 때문에, 아내는 일본 패스포트를 갖고 하와이에 초청 형태로 이민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점을 설명해드리면 이쪽 비자는 요코하마에 있는 미국총영사관에서 발행됐습니다. 이 여성은 한반도에서 일단 요코하마, 즉 일본 본토로 가서, 하와이에 건너갔습니다. 이 자료로부터 근대에 사람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 위해 국적이 없으면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인 여성은 식민지 지배 하 한반도에서 하와이로 가기 위해 일본 국적이 필요했습니다.

1-2 제국주의와 ‘이동의 자유’

다음으로 또 다른 각도에서 사람의 이동, 즉 이동의 자유와 국경이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2는 오키나와 출신 남성 2명이 이민간 경험에 대해 회상하는 담화입니다.

두 사람 모두 1930년대에 오키나와에서 사이판섬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사이판은 당시 남양군도라 불린 미크로네시아의 일부였습니다. 일본 영토는 아니었지만 위임통치령으로 일본 지배 하에 있었습니다. 왜 이 사이판에 두 사람이 이민 갔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이 자료입니다.

우선 위쪽의 토구치(渡口麗宗)라는 사람은 형들이 모두 아버지와 함께 브라질로 갔지만 스스로는 사이판으로 향합니다. 시기가 다가왔던 징병검사를 피하기 위해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브라질에는 수속 시간을 맞추지 못해, 남양에 간 셈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브라질은 분명히 외국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비해 남양, 즉 사이판은 일본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도항 수속이 필요 없었습니다. 여권이나 비자를 갖추 필요가 없어서 남양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느 쪽이라도 좋지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 테루야(照屋寬志)라는 남성도 오키나와에서 사이판으로 갔습니다. 토구치는 1932년이지만, 테루야가 사이판에 간 것은 6년 뒤인 1938년입니다. 오키나와에는 입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만주나 필리핀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모두 오키나와에서 떠났기 때문에 자신도 남양으로 가고자 했고, 남양은 만주보다 오키나와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테루야도 만주에 갈지, 필리핀에 갈지(당시 미국령이었지만), 남양에 갈지, 분명히 말하자면 어디를 가든 큰 차이는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이나 일본이 지배하는 지역이라는

슬라이드 2

1 人の移動と国境

1-2 帝国主義と“移動の自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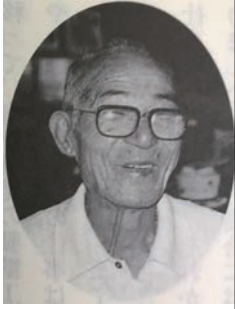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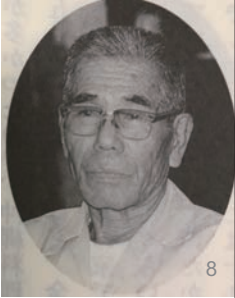
渡口麗宗さん(1915年生まれ。1932年、沖縄からサイパン島へ):

兄さんたちはみんな(父と)ブラジルに行っていますが、私が南洋に行ったのは、徴兵検査が間近にせまっていたので、それを逃れるために急いでいました。ブラジルでは手続きが間に合わなかったの、南洋に行ったわけです。南洋へは手続きにそれほど時間もかからないし、募集人の金城善文が全部やってくれましたから。

照屋寛志さん(1915年生まれ。1938年、沖縄からサイパン島へ):

そのころ、兵隊に行く人もいれば、満洲あたりやフィリピンに行く人もいます。だから、沖縄には若い男はいなかったの、私も南洋に行きたくなったわけですよ。南洋は満洲よりは近いからね。

(『具志川市史』第4巻、具志川市教育委員会、2002年)

것에 큰 차이는 없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서 이민간 사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일이 있는 곳에, 그때 그때 갈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일 뿐이란 식이었고, 갈 수 있는 곳에는 일본 지배지역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당시 일본 제국주의와 이동의 자유가 깊이 연관돼 있었습니다. 즉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곳에는 일본 영토가 많았습니다. 여권과 비자가 필요 없으니까요.

이 또한 그들이 일본국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지배지역 내부에서는 이동이 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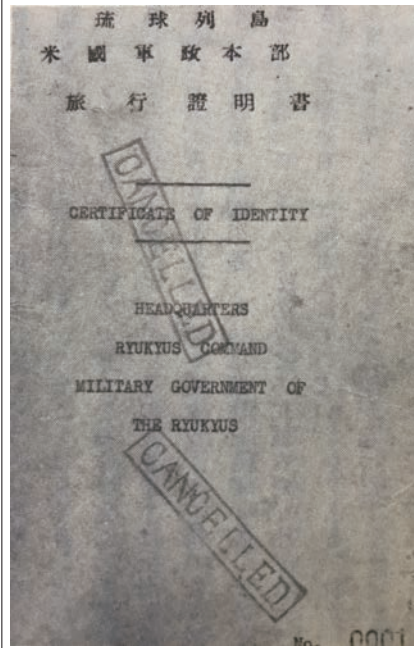
1-3 전후국제정치와 ‘이동의 부자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동과 국적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 얘기입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동의 부자유에 대해 생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슬라이드3은 오키나와에서 상하이로 경유해 유럽에 가려고 한 히가(比嘉善雄)라는 사람의 회상록입니다.

1948년 히가는 상하이에서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 여권을 내밀자, 출입국 관리관이 “이건 뭐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권” 이라고 하자 “이건 여권이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진은 히가가 가지고 있던 여권 복사본인데, 이것을 보면 ‘류큐열도 미국군정본부 여행증명서’ 라 쓰여 있습니다. 영어는 ‘CERTIFICATE OF IDENTITY’ 라 돼 있고 여권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후 오키나와가 미국 지배 하에 있던 시기, 즉 오키나와인들의 국적이 대

슬라이드 3



1 人の移動と国境
1-3 戦後国際政治と“移動の不自由”

(1948年、上海で)入国査証を受けるために例の「パスポート」を差し出したとたんに、出入管理官の態度が変わった。... 「これは何か」と聞くのであった。

「パスポートである」

「こんなパスポートがあるか」...

「これは一応預かっておく。明日の朝警察本部に取りに来い」...

(アメリカ総領事館憲兵)大尉は...「この人のパスポートは沖縄に駐留しているアメリカ軍の発行したものである。...取り上げて返さないとすると、事はおだやかでないがどうか」と畳みかけた。これには流石の(警察)署長も応答に困って、しぶしぶと机の引き出しを開けて、わたしのパスポートを取り出した。

(比嘉善雄『わたしの戦後秘話』琉球文教図書、1978年)

9

단히 애매했던 시대에 발행된 것입니다. 미국령인지, 일본령인지, 양쪽 다 아닌 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여권을 발행 받을 수 없게 됐고, 이와 같은 애매한 신분증명서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유효하게 쓸 수 있었지만, 미국 이외 지역에 가면 이처럼 “이건 여권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상하이 출입국관리관은 일단 히가의 증명서를 몰수하지만 다음날 미국 총영사관으로부터 “이건 미군이 발행한 것이다. 돌려주지 않으면 큰 일 날 것” 이라는 압력을 받아 결국 무사히 입국하게 됩니다.

이 예에서도 알 수 있듯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구조가 형성되는 가운데, 오키나와처럼 귀속이 애매한 지역이 생겼습니다. 이동이 대단히 부자유스러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전후 국제정치, 특히 냉전구조가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동의 자유 · 부자유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2 월경하는 민족

2-1 국가와 민족을 넘나드는 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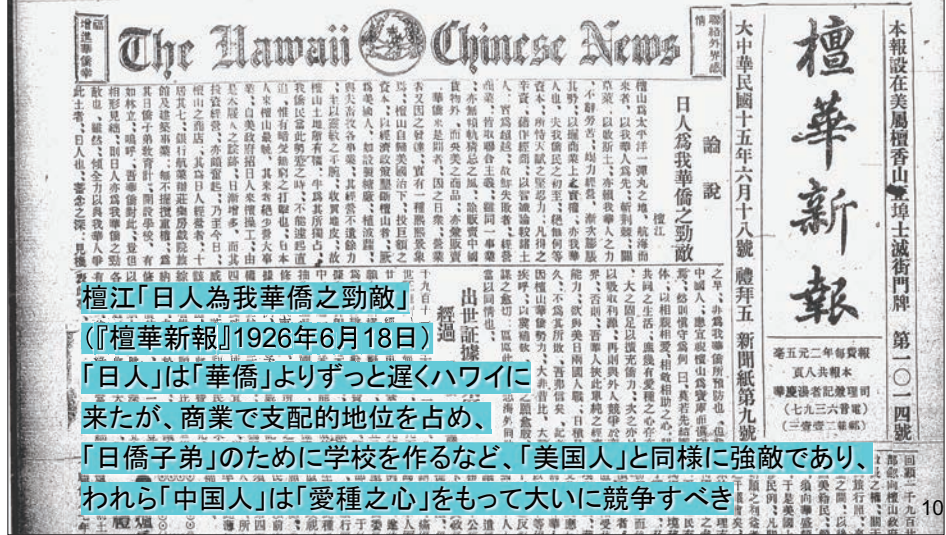
다음으로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보셨으면 하는 것이 1926년 하와이에서 나온 신문기사입니다(슬라이드 4).

위쪽에 ‘The Hawaii Chinese News’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와이의 중국계 이민이 발행한 신문입니다. 중국어 기사와 영어기사 양쪽 다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4

2 越境する民族 2-1 国家や地域をまたぐ民族



보시는 사실에는 ‘일본인은 우리들 화교의 큰 적(大敵)’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얼핏 보면 중국인이 일본인에 대해 내셔널리즘을 강하게 불태우고 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요약하면 ‘일본인은 화교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하와이에 왔지만 하와이 상업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게 됐다. 게다가 일교(日僑)의 자제들을 위해 학교를 만들고 있다. 이 같은 하와이 일본인 세력은 미국인과 같이 강적이니 우리들 중국인은 ‘애종지심(愛種之心)’ 을 갖고 적극적으로 경쟁해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애종지심이란 말을 쓰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민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라로서 일본과의 경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서의 중국인과 일본인, 혹은 화교와 일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관계없었던 것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중국 사이 중일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하와이에서 일본계 민족과 중국계 민족 사이 대단히 심각한 긴장관계를 만들어냅니다.

2-2 출신국의 충돌과 민족간 대립

슬라이드 5는 1938년 하와이의 중국계 주민이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호소하는 자료입니다.

‘일본을 위해 무기를 사지 말아 달라’ 는 것은 당신, 즉 하와이에 살고 있는 중국계 사람이 일본 비단으로 만든 양말을 신으면, 일본 수입이 되니 중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일본이 무기를 사기 위한 돈에 이용된다는 호소였습니다.

슬라이드 5

2 越境する民族
2-2 出身国の衝突と民族間の対立

「日本のために武器を買わないで(あなたが日本の絹でできた靴下をはくと、あなたは中国人民を殺すことになります)」

1938年、ハワイの中国系住民が日中戦争下で呼びかけたが、「ハワイの日本人に向けたボイコットではない」(国立歴史民俗博物館『ハワイ 日本人移民の150年と憧れの島のなりたち』2019年)

日系住民も中国系住民も、それぞれの出身国への献金活動を展開

SGRA 98 REPORT

이처럼 하와이에 있는 중국계 사람들은 조국 중국이 일본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하와이 내에서 일본계 주민들이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양말을 취급하는 건 당연히 일본계 상점일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니 일부러 하와이의 일본인을 향한 불매운동이 아니라고 미리 말해두고 일본어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와, 하와이 현지에서의 일본계와 중국계 주민이라는 민족 간 관계, 두 가지 관계가 존재했고, 이것이 연동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3 사회적·경제적 관계 속의 민족

하와이에서의 일본계와 중국계 주민 사이에는 사회적이자 경제적인 관계가 있었고, 나라와 나라의 긴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6도 신문기사로 ‘마우이(馬哇)신문’이라는 일본어 신문에 중국계 상점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윈신우 상점’, ‘아후쿠 상점’ 이 그것입니다. 이는 일본계 사람들이 중국계 상점 고객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금 불매운동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본계 주민들은 불매운동이 일어나면 자신들도 보복할 것이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계 쪽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하와이에선 일본계 인구가 중국계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불매운동을 벌일 때 피해를 입는 건 자신들이라고 중국계 사람들은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큰 불매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 6

2 越境する民族
2-3 社会的・経済的関係のなかの民族

中国系商店の広告(『馬哇新聞』1931年10月9日)

日系住民は、自分たちがボイコットに報復した場合に中国系住民が受ける損害の大きさを指摘(1938年)
 中国系住民も「彼らは数で勝っているので、(ボイコットをやれば)我々が負けるだろう」と認識(1939年)
 他方で日系住民は、ハワイを支配する白人の排日運動を懸念 → まもなく現実に

이상으로 보신 것처럼 민족 사이에는 대단히 복잡한 관계가 생겨납니다. 국가 관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제제기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급하게 진행했습니다만 마지막 문제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7).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할 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사람의 이동을 규정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예에서는 우선 국경과 국적을 가진 주권국가 문제가 중요했고, 동시에 국제정치 상황이 그것을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본 것은 ‘사람의 이동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와 구별되는 민족 간 관계가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오늘은 사람의 이동을 주제로 국사들의 대화를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제가 문제제기의 사전설명으로 적었던 것은, ‘애초 국사에서 사람의 이동 문제는 무시된다’ 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으로 일본의 역사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출판된 일본사 교과서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즉 국사에서는 사람의 이동이라는, 전혀 드물지 않은 경험을 간단하게 잊어버리는 일이 많은 듯 싶습니다. 중국, 한국 연구자 여러분들께는 각각의 국사, 즉 내셔널 히스토리가 사람의 이동을 어떻게 다뤄왔는지에 대해 여쭙보고 싶고, 이를 문제제기에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슬라이드 7

問題提起

1: 何が人の移動を規定するのか？

近代日本の経験:

主権国家(国境・国籍)と国際政治

2: 人の移動は何をもたらすか？

近代日本の経験:

国家間の関係と区別される民族間の関係

• 主な参考文献

塩出浩之『越境者の政治史: アジア太平洋における日本人の移民と植民』名古屋大学出版会、2015年

13



13~14 세기 몽골제국기 사람의 이동

조원

부산대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사학과에서 동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원입니다. 저는 한국어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연구분야는 13~14세기 몽골제국 시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오데 히로유키 선생님이 연구하는 시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토론의 소임을 맡겨 주셔서 제가 연구하는 ‘13~14세기 몽골제국 시기 사람의 이동’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에 해당하는 근대 일본의 사람의 이동이 갖는 현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통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전근대시기는 사람의 이동이, 여러가지 교통의 문제와 정치적 문제로 인해 비교적 제약이 있는 편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몽골제국 시기는 이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몽골은 13~14세기 세계제국을 건설하고 초원에서 이동생활을 영위해 왔던 유목집단이었습니다. 이동을 삶의 보편적인 양상으로 영위하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복활동을 통해서 정치체와 정치체들 간의 경계를 허물고 유라시아 단일 패권을 형성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신뿐만 아니라 상인, 여행자, 종교인,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개인과 집단의 이동과 이주가 대규모로, 유라시아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몽골제국시기 사람의 이동과 관련해 정부 정책은 자발적인 양상과 비자발적인 양상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비자발적인 이동을 말씀드리면 몽골은 정복전쟁 과정에서 확보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의 군인, 포로, 기술자 등을 몽골제국 중심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몽골초원이나 중국지역으로 강제 이주되면서 몽골제국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됐습니다. 군사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몽골 서부 원정시기에 투항하거나 포로가 됐던 킵차크 초원 출신의 킵차크인 혹은 중앙아시아 캅글리인, 아스인 등이 중국에 주둔하면서 정착하게 되고 남송 원정에 투입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장인들, 수공업자들과 의료인 같은 전문기술을 구비한 자들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해서 몽골 초원과 중원 등지에 분포하면서 이들이 ‘색목인’으로 파악되

는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외에 정복 전쟁 과정에서도 포로가 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지역에서 몽골인들을 따라 중국으로 들어온 이주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자발적인 이주를 통해서 원적지를 떠나 현지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제국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흥미로운 현상으로, 이들 노예화된 포로들이 노예주로부터 도망해 유랑민이 되는 인구의 유동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자발적인 이동과 이주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발적 이주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외에도 정치적인 요인, 출세 기회를 얻기 위한 그런 요인으로 제국 중심부에 몰려드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몽골제국 건설 이면에 몽골 통치집단과 무슬림 상업세력의 결합이 포착됩니다. 이 무슬림 상인들은 몽골제국 시기 이주와 이동에서 특혜를 누리면서 유라시아 전역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제국이 안정되면서 몽골 제국의 관원으로 발탁되거나, ‘오르톡’이라는 상업집단, 즉 어용 상인들로서 육상, 수로, 해상을 오가며 영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후 중국 지역에 정착하면서 원 시기 몽골인들의 중국 통치 시기에 호적상에서 ‘회회(回回)’, 혹은 넓은 범주의 ‘색목인’ 으로 불리게 됩니다.

앞서 토론문에는 적지 않았지만 시오데 히로유키 선생님께서 민족들 간의 경쟁, 이주하는 민족들 간의 경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양상이 몽골제국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아랍계 이민자들과 중앙아시아계 이민자들 간의 경쟁, 제한된 지위를 두고, 관직을 두고 경쟁하는 현상, 그리고 한인(漢人)들과 색목인들 간의 충돌과 갈등, 경쟁의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 시대 사람의 이동이 정치사회질서에 끼친 영향을 보면, 기동성에 기반해 삶을 영위하던 몽골 유목민들이 세계 제국을 건설한 후에, 13~14세기 유라시아에서는 사회적 유동성이 하나의 시대적 특징이 됐고, 이동성은 삶의 한 형태가 됐습니다. 이런 유동성은 14세기 이후 동아시아 민족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고, 각지에 혼성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쿠빌라이 이후 대칸의 직할령이었던 동아시아의 원, ‘카안 울루스’ 라고도 불린 원에서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에서 이주해온 다양한 종족 집단들이 정착했고, 몽골인, 한인 이외에 30여종 이상으로 파악되는 색목인 집단이 거주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오늘날 중국 내 ‘회족’이라는 종교에 기반한 민족 형성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외에도 몽골 초원에서 활동하던 몽골인들이 이후에 몽골 제국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 남쪽, 서남쪽 운남성에 정착해 거주하면서 민족적 지형에 변화를 가져오는 양상도 나타납니다. 문화제도적인 혼합 양상들도 포착됩니다. 유목 문화와 농경, 중원지역, 중국 전통의 제도들이 융합되는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또 종족들의 이주로 인해서 서아시아의 제도와 문화가 동아시아의 제도, 문화와 결합되면서 ‘지식의 융합’이라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랍의 천문학 지식이 몽골제국 시기에 중국지역에 들어와서 중국의 역법과 융합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후 명과 조선의 역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몽골제국 시기 다양한 종족들 간의 문화적 결합을 통해 혼혈과 혼성적인 문화가 나타난 것이 이주, 이동을 통한 변화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역사의 대규모 사람의 이동

장 지아

푸단대

[원문은 중국어. 번역: 홍용일(도쿄대)]

안녕하세요, 푸단대학 장지아입니다. 국사들의 대화 회의에 두 번째로 참석하게 되는데,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연구 분야는 중국 고대사, 특히 중국 원나라 이후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주로 제 연구의 관점에서 시오데 선생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을 가로막은 요인,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구가 대규모로 이동한 배후 요인이 무엇인지가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의 원인이 된 것은 무엇보다 전쟁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과 비슷한 현상이었습니다. 전쟁 폭력이 여러 에스닉 집단과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인구의 이동을 초래한 것은 세계 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사 전문가가 아닌 선생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사진은 금계호(金界壕)입니다(사진 1). 여진은 금나라를 세우고, 중국 동북쪽의 몽골 기병을 방어하기 위해 참호와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에스닉 집단’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경계였습니다. 단, 전쟁 앞에서는 비교적 취약한 존재였죠. 중국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인구 이동은 북쪽 왕조(北族王朝)들에서 나타났습니다. 북쪽 왕조라 함은,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세운 국가를 말하는데, 주로 몽골 고원에 살거나 동북지방에 살았던 북방민족들이 세운 왕조들입니다. 여기에는 북조, 요, 금, 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곳의 북방 민족이 남하하기 시작하면서 중원지방 한족 인구도 대륙 남쪽으로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인구 이동의 발생으로 중국 강남지구, 즉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상해지역, 그리고 영남지구(현재의 광둥지역), 서남지구(현재의 운남, 귀주 등 지역)가 개발되면서 한족화(漢化)하기 시작합니다.

전한의 사마천이 쓴 사기를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상해지역은 사기 시대에 매우 황폐한 지역이었습니다. 동진시대부터 북방의 혼란으로 중원에서 대규모 인구가 강남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강남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이면의 동력은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 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진 1: 금계호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유동성은 중국 내부의 인구 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국가와 국가 사이, 그리고 에스닉 집단 사이의 인구 이동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구 이동은 동아시아 한 · 중 · 일 삼국 사이에도 나타났습니다. 가령 명 · 청이 바뀔 때, 상당히 많은 인구가 조선으로, 일본으로 이민을 갔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유명한 만리장성입니다(사진 2). 만리장성은 농민 계층과 유목민 사이의 인위적인 경계였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만리장성이 뻗어 있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400밀리미터 강수량 분포선과 대략 일치합니다. 유목민의 남하를 방어하기 위해 농경사회가 이런 전략적인 방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대규모 전쟁 발생 시 이러한 공사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아까 조원 선생님도 몽골제국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몽골이 금나라를 토벌할 때 만리장성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두 번째로 흔히 볼 수 있는 대규모 인구 이동은, 정부 주도의 이민입니다. 주로 명 · 청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정치적 이민이나 정부 주도의 이민은 일찍부터 존재했습니다. 전한 시대에는 각지의 부민, 일부 돈 많은 계층을 수도로 이동시켰는데, 이는 '실경사(實京師)' 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인근 지역을 충실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는데, 그 규모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명 · 청 시대에는 비교적 대규모 이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명초에는 북방의 전쟁으로 인구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정부는 산서 남부 지방에서 강제로 중원, 하북, 산둥으로 이민을 시켰습니다. 오늘날 중국 북부 지역 일부 주민에게 고향을 묻는다면 “제 고향은 산서성입니다” 라고 하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산서 홍동현 대괴수(山西洪洞縣大槐樹)” 라고 말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대괴수 이민 전설’ 은 중국 북방에서 흔합니다. 그 배경에는 명나라 초기 정부 주도의 강제 이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동 흐름이 있었습니다. 명나라 초기부터 시작된 강절(江浙) 지구, 즉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장쑤, 저장지방에서 회하(淮河)유역

사진 2: 만리장성



으로의 이민입니다. 회하 유역은 원나라 말기의 전란, 자연재해 다발로 인구가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의 이민 규모는 꽤 큰 편이었습니다. 청나라 초창기에도 비교적 큰 규모의 이민이 있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사천의 빈자리를 호광으로 메웠다’, 즉 ‘호광전사천(湖廣填四川)’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천은 명나라에서 비교적 인구가 많았던 지역인데 농민전쟁으로 인해, 특히 장헌충이 사천을 점거하면서 현지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청나라 초기 사천의 인구가 많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호광지구에서 많은 이민자를 끌어들이어 사천의 인구증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오늘날 사천 지방 사람들의 입맛은 호남, 강서 지역과 비슷한데, 이 지역 사람들이 모두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지역 이민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시기는 정부 주도의 강제 이민이었고, 이는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두 번째(혹은 세 번째?) 종류의 대규모 인구 이동은 경제적 요인에 기반한 자발적인 이동이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이동은 정부가 싫어했고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조의 ‘호첩’ 즉 호적부입니다(사진 3). 아마 한국과 일본 선생님들은 비교적 생소할지도 모르겠네요. 한국과 일본에는 중국처럼 엄격한 호적 제도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엄격한 호적 제도는 한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거주해야 하는지, 함부로 이동을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나라 초기부터 격변이 일어난 제도라 생각됩니다. 이 호첩을 통해 사람들은 정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떤 정보였을까요? 여기에는 본관이 어디인지를 포함해서 현재 어디에 살고 있고, 가족은 몇 명이며,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런 정보를 장악하려고 했을까요? 조세와 부역의 동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즉, 정부는 백성들이 보유한 자원을 통제함으로써 인구 이동을 제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백성들이 이동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명나라 법률에 따르면, 한 백성이 집에서 100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일을 해

사진 3: 명대 호첩



야 한다면, 이를테면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지, 반드시 정부가 발행한 통행증(路引)이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증명서류를 통해 100리 떨어진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증명해야 했지요. 백성들은 이렇게 본적을 벗어나면 이른바 '유민'이 됩니다. '유민(流民)'은 중국 정부가 매우 경계했던 대상이었습니다.

정부가 백성의 자발적인 이동을 막으려고 했지만, 인구 대비 경작지 감소 압력이 날로 심해지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인 이동을 불사하려던 이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령 명조시기, 장성 연선의 주민들은 북방의 몽골인을 막기 위해 쌓았던 만리장성을 넘어 몽골 초원 남연(南緣)에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개간이 허락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조시기에는 몽골 지방에 '판승농업'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만리장성 연선의 많은 한족 주민들과 농경 민족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두드러진 이동은 청나라 후기에 시작된 중국 동북지방 개발이었습니다. '황관동(闖關東)'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동북에 가서 삶을 모색한다는 뜻이죠. 이런 '황관동'의 주체는 화북 지역의 한족 주민들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자발적인 이동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의 자발적인 이동은 그 기원도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명청 시기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 해봤습니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으면 밖에 나가서 모색해보라고 말한 사람은 공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논어에서는 '도불행, 승부부우해(道不行, 乘桴浮于海. 역주: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에 뜨려 하니)'라고 합니다. "제 이상을 이루지 못한다면 차라리 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자"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우스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이동을 장려한 최초의 사람은 아마 공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 역사에서 나타난 인구 이동 저해 요소 및 대규모 인구 이동의 배후 요인에 관한 저의 생각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및 중세 일본의 출입국 관리

에노모토 와타루

국제일본문화연구원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언]

시오데 선생님 발표를 대단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저는 중세일본 국제관계를 연구 주제로 하기 때문에, 시오데 선생님의 문제제기에 대한 코멘트로 이번엔 출입국관리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중세 일본에서 국외로 나가는 사람의 움직임은 그런대로 있었지만, 분권적인 사회이기도 해서, 막부 조정 등 중앙정권은 물론, 장원영주나 고쿠슈(國主)·다이묘(大名) 등도 이를 제어하는 능력이 부족해, 근대 주권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이질적인 느낌도 듭니다. 한편 고대는 근대와 같은 원리가 아니었음에도, 국가에 의한 출입국관리가 일정 정도 기능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비교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번엔 중세 얘기 앞에 고대를 연결 지어 이 문제에 대해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고대 일본 율령제 하 국경 출입은 천황의 관리가 원칙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본에서 밖으로 나가는 견당사 등의 국가사절이 있었지만, 이는 천황이 임명해 국외로 가는 것이 허용된 것, 즉 천황의 사자로서 행선국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38년 쇼와도(承和度) 견당사 이후 일본에서 해외로 향하는 사절은 14세기까지 오랜 기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대신해 국외로 나간 것이 무역선을 타고 개인적으로 유학한 승려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출국 시 천황의 칙허를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출국자를 제한하는 것이었지만, 승려 본인에게는 국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슬라이드 1은 도쿄국립박물관 소장으로 853년 천태종 엔친(円珍)이라는 사람이 당의 무역선으로 유학했던 때 발급된 문서입니다. 오른쪽이 일본 다자이후(大宰府, 규슈에 설치된 관청) 문서, 왼쪽이 당나라 복주도독부(福州都督府) 문서로 양쪽 문서 사이에 복주도독부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알 수 있는 절차는 밑의 네모칸에 정리했습니다. 즉 1. 엔친이 다자이후에 입당(入唐) 신청서를 제출, 2. 다자이후가 1에 날인하고 다자이쇼칸(大宰少監)이 뒷면에 ‘닌이쿠겐(任為公驗)’을 추가로 적고 허가증을 엔친에게 반환.

슬라이드 1



唐·福州都督府公驗(853.9) (福州都督府印) 日本·大宰府公驗 (853.7.1.)

1. 円珍が大宰府に入唐の申請書を提出
2. 大宰府が1に捺印、大宰少監が「任為公驗～」を追筆し許可証として円珍に返却
3. 福州に上陸した円珍、唐国内の移動許可を求める申請書を2に張り継ぎ福州に提出
4. 福州が2と3に割印、3に捺印+「印」の押書、福州録事が「任為公驗～」の追筆

一種のパスポートとしての大宰府公驗 唐風の人名・地名表記

3. 복주에 상륙한 엔친이 당 국내 이동허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2에 붙여서 복주에 제출. 4. 복주 관청이 2와 3을 겹쳐 할인(割印)을 찍고, 3의 몇 군데에 날인한 뒤 ‘인(印)’을 찍은 뒤, 복주록사(福州録事)가 다자이쇼칸과 동일하게 뒷면에 닌이쿠젠을 추가로 적고, 허가증으로 엔친에게 반환하는 순서입니다. 즉 엔친은 다자이후에서 받은 쿠젠을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출국한 증서로서 당의 상륙지 관청에 제출하고 입국 뒤 이동허가를 요청한 것입니다.

다자이후 측도 당에 제출될 것을 전제로 쿠젠을 내준 듯합니다. 문체가 복주도독부의 쿠젠과 닮아 있습니다. 게다가 인명과 지명 등도 일본에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풍으로 응용해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에서 확인될 것이 전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엔친에게는 일종의 신분증명서이자 여권에 가까운 것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고대국가가 사람의 출입국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다자이후가 무역선 왕래를 관리했기 때문으로, 배에 타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단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세기가 끝나고 가마쿠라 시대가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배와 사람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중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승려의 규모가 커져, 12세기말부터 두 세기 동안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만으로 600명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는 전근대 중일 유학의 피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가적 관리가 없어진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이 공적으로 나오지 않게 됐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시대에 나타난 특징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도초(度牒)’라는 문서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승려의 출가득도를 허가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도초 자체는 율령시대부터 만들어졌고, 현존하는 전근대 도초는 수십통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4통 정도 특이한 도초가 있습니다. 가마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통의 도초가 아닌 이질적인 도초입니다. 이것은 ‘와세다대학 소장문서’의 유산시소(友山士僊)라는 승려가 출가했을 때 받은 문서입니다 (게재 생략). 통상의 도초와는 완전히 서식이 다르고 서식 이외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크기가 보통의 2배가 되고 황마지(黃麻紙)라는 일본에서는 보통 사용되지 않는 양질의 종이를 썼습니다. 지면에

는 ‘다이조칸인(太政官印)’이라는 인감이 찍혀 있고, 이는 본래 조정이 발급할 때 찍는 것이지만, 찍힌 도장을 보면 명확히 가짜입니다. 또한 문서 중에 쓰여 있는 관직명과 지명은 중국풍으로 일본에서는 쓰지 않는 표기로 적혀 있습니다. 서명 부분에도 인명과 화압(花押, 역주: 서명 대신 쓰인 기호)이 있지만 이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명이고 화압도 당연히 가짜입니다.

이 특이한 문서는 무엇일까요? 실은 이 문서에 대해선 이미 에도시대에 이토 토가이(伊藤東涯)가 “이것은 입송을 위해 고안해낸 것일 터”(『제도통(制度通)』)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 가기 위해 위조한 것임을 갈파한 셈입니다. 이 유잔의 도초를 포함해 현존하는 4통의 위조 도초는 모두 송나라와 원나라에 건너간 승려의 것으로, 중국에서 쓰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 생각하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나라 때 중국 자료를 보면 일본 승려가 입국했을 때 이것들과 같은 내용의 도초를 확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조 도초는 중국인에게 보여주는 걸 의식해 고안됐고, 서식과 지명표기도 중국인에게 받아들이기 쉽게 궁리해 적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시대 중국에 건너간 승려는 국가적 신분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로 거론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신분증명서인 도초를 대용품으로 삼았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인의 신용을 현지에서 얻는 것이 목적이었고, 초라한 실물보다는 훌륭한 가짜가 더 좋았던 셈입니다. 다만 왜 도초를 위조했을까요? 어차피 위조한다고 하면 방금 전 보여드린 다자 이후 기원의 여권을 위조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선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이상으로 과거 일본에서 출입국을 국가가 관리한 시대와 하지 않은 시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의 시대에는 나오던 여권이, 후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으로 건너간 승려는 자력으로 그 대용품을 준비했고, 이 점에서 중세 일본 사회의 ‘뭐든지 있을 수 있는’, 다소 엉망이었던 측면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도항목적지 중국에선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관료기구가 기능하고 있었기에, 일본이 엉망진창인 속에서도 도항자는 무언가 여권 같은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입국과 입국 후 행동에 불편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항자가 상대방 상황에 맞추는 노력이라는 것도 일종의 문화교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되어, 주제 제시를 겸한 제 코멘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정토론 4



근대에 이뤄진 한국인의 이동

한 성민

세종대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한성민입니다. 시오데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보여주신 사진 중에 가운데에서 춤을 추고 계신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춤 사위가 범상치 않아서 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통역해주시는 선생님들 실력을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간간이 원고에 없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필리핀에 이어서 통역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따로 PPT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된 사진을 몇 장 첨부해서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국사들의 대화 주제, 그리고 시오데 선생님 발표와 관련해서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대 한국인의 이동입니다. 근대 한국인의 이동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생계 목적이든 아니면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한 목적이든, 반은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이주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이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이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강제 동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 사회에서 대규모 해외 이주의 효시가 되었던 것은 19세기 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한국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 계속되는 대기근으로 고통을 받던, 주로 한반도 북부의 조선인들은 현재 중국의 동북 3성 지역, 압록강과 두만강의 대안, 당시 이 지역을 한국에서는 간도라고 일컬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지역을 당시 한국에선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압록강의 대안, 지금의 랴오닝성 일부가 되겠죠. 여기를 서간도라고 보통 얘기했습니다. 두만강의 대안, 지금의 지린성 일부입니다. 이 지역은 북간도로 보통 지칭했습니다.

이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가 강화되면서, 독립운동 전개를 위한 사람들, 그리고 토지에서 밀려난 농민들 등 많은 한국인들이 만주, 러시아 연해주 등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여러 독립운동 단체가 조직돼 활동했고, 지금도 많은 수의 조선족들이 거주하면서 ‘엔벤

조선족 자치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러시아 연해주로 이동한 사람들은 스탈린 정권기에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한인 사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약 한달전에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가 한국으로 송환돼 다시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인 사회의 존재를 한국사회가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 주도로 진행된 해외 이주입니다. 1902년에서 5년경까지 진행된 하와이 이주인데,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들의 노동자 파견제외에 대해 한국 정부가 호응해서 국가정책으로 추진됐습니다. 이 시기 미국 내지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한국인들의 이민을 제안했던 건, 아까 시오데 선생님 발표에서 나오듯, 당시 하와이에 1차적으로는 중국인 노동이민 수가 증가하면서, 그 대안으로 일본인 이민을 추진했고, 이제 일본인 이민이 증가하자 그 대안으로 한국인 이민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한국 정부에서는 담당기관을 설립하고, 근대적인 여권을 발급하는 등 근대 여행·이민 행정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에서 발급했던 여권이 이(계재 생략)와 같습니다.

아까 식민지 조선인에게 발급됐던 여권을 시오데 선생님 발표에서 보셨습니다. 당시 농장에서 이들의 생활은, 모집광고와 달리 매우 비참했습니다. 하와이를 시작으로 한 아메리카 대륙 한인 이주는 미국 본토, 멕시코, 쿠바 등으로 확장됐습니다. 이(계재 생략) 당시 ‘황성신문’에 게재됐던 모집 광고입니다. 데술러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운영이 됐던 동서개발회사가 이민 모집을 대행했습니다. 그들이 냈던 모집 광고입니다. 식구 동반이 가능하고, 추위도 더위도 없고, 구직이 용이하고, 월급은 미화로 15달러, 당시 일본 엔화로는 30엔 정도 됩니다. 한국 화폐로는 57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모집 광고와 달리 상당히 힘든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아래 사진(계재 생략)이 당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해외 이주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제국정부에 의한 1940년대 식민지 조선인의 강제 동원입니다.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다양한 식민지 조선인들이 해외로 강제 동원되어 희생되었고, 생존한 사람들 중에는 동원된 현지에 그대로 정착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국가가 아직까지는 일본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한일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문서(계재 생략)는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징용되었던 조선인을 대상으로 보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쟁터의 군인과 같은 후방의 전사이므로 도망가는 일 없이 고향의 가족을 위해 산업전사로 일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1939년에 이미 동원돼서 2년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들에게는 재계약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담긴 문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 내셔널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오데 선생님의 발표 내용처럼 국가, 민족의 기준에서 사람의 이동을 파악하면 실제 이동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동의 동기와 양상은 사라지고, 대표, 상징으로서의 국가와 집단으로서의 민족이 남습니다. ‘이주자들의 성격은 각각 다양하고 또한 다른데, 거기에

대해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가간, 민족간 대립이 부각되고, 소수자, 약자의 희생이 당연시될 뿐만 아니라, 시야에서 사라진다’ 고 보기 때문에 근대 이래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서 트랜스 내셔널의 관점에서 파악해봤으면 합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기준을 빼고 보면, 대체로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능동적인 동기이든, 권력의 힘에 의해 강제로 이주하게 된 피동적인 동기이든, 당시 이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래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밀려난 사회적인 약자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공통점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유학을 간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성격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더라도 돌아올 것이 예정돼 있는 사람과 완전히 떠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국가와 민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안에서의 이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내 안에서의 이주 문제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문제에서 보면, 항상 약자들이 터전을 일궈 놓으면 밀려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동은 때때로 연쇄적인 이동을 촉발합니다. 일본의 잉여 농업인구의 한국 이주는 한인들의 만주로의 이동을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검토해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아스포라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이주자들은 대체로 그 사회에서 소수이고 언어와 문화가 다릅니다. 이는 이주한 사회에서 차별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동화를 강요하는 사회적 압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겠지만 이주자 입장에서는 언어, 문화가 같고 이주자라고 하는 같은 처지에서 동족, 동국인끼리 모여 사는 것은 스스로의 신변보호와 안전한 정착을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한 사회에서의 지위가 식민자 집단이든, 아니면 생계를 위해 무작정 이주한 힘 없는 집단이든 공통적으로 모여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이주자들이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고국의 언어와 문화, 사회규범을 존속하면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기본 배경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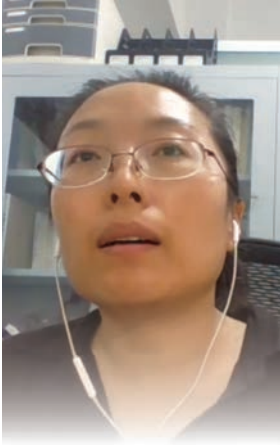
그런데 이것은 그 사회에서 차별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민족간의 문제, 다수와 소수의 문제에서 이와 같은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문제 인식입니다. 특히 현대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사람의 이주와 이동은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더욱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주자들에 대해서 국가라고 하는 국경의 요소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근대 시대에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민에 대한 통제’ 가 기본적인 바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에서의 이동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국경이라는 문제인데, 솔직히 말하면 국경도 점점 허물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남는 건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집단 간의 문제입니다.

아까 시오데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하와이에서 일본인 사회와 중국인 사회 간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한 사례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리티로 있는 사회에서는 이민족 간의 집단 간의 경쟁이 크게 부각되지 않

습니다. 하와이는 특수한 사례로 동양계 이주자 집단이 원래 거주했던 원주민이나 미국 백인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머저리티(majority)의 주도권 경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 발표하실 때 오키나와현인회를 소개하셨고 리틀 도쿄를 소개 하셨습니다. 두 조직이 다른 조직인지, 오키나와현인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LA에 있는 일본인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2년 전에 일본의 시민단체 ‘피스 보트’ 행사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피스 보트와 한국 환경재단이 연합으로 ‘피스 앤 그린 보트’ 라는 행사를 거의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게스트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유 발표 때 오키나와 청년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발표했던 건 오키나와 미군 범죄문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랐던 건, 일본인들의 대체적인 질문 내용이 그들에게 국적의 순수성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인이나” 는 것을 계속적으로 질문했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는 질문이 나와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LA의 일본인회와 오키나와현인회가 서로 간 협조관계인지, 아니면 관계없이 따로따로 활동하는 조직인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제 코멘트는 마치겠습니다.

지정토론 5



중심에서 변경으로 : '조미아' 라는 개념

친 광

수도사범대

[원문은 중국어. 번역: 홍용일(도쿄대)]

시오데 선생님의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에 초청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민이나 국가에 관한 실증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읽고 있는 제임스 C. 스콧의 『지배받지 않는 기술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 (역주: 한국어 버전은 『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삼천리, 2015) 과, 제가 2년 동안 중국의 서남지역에서 실시했던 현지조사에 입각해서 저의 소회를 간단히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과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채팅창 안에 입력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콧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조미아(zomia)' 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 동남아 정치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미아는 국가의 지배를 스스로 벗어난 사람들이 장악한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이 개념 배후에는 인구 이동과 국가 통치의 관계가 반영돼 있습니다. 조미아는 근대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시기에 발생했는데, 특정 인구 집단이 전쟁, 기근, 역병, 혹은 더 이상 국가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점점 중심부에서 변두리로, 심지어 변두리 지역에서 더 외진 곳으로 빠져나가면서 형성된 지역입니다.

저자는 초기의 국가 통제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국가의 인구 이동에 대한 통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심과 변두리, 변두리와 그 외부는 흔히 일종의 '평형-파괴-평형 회복' 이라는 주기를 거치며 일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틈바구니에서 왕래하며 국가의 지배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간지방에서 일종의 무정부(stateless) 상태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스콧이 궁극적으로 규명하고 싶었던 점은 변방의 집단을 끊임없이 중심으로 흡수하고자 했던 문명 서사였습니다. 즉 농업(나중에는 공업), 문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발전 모델을 우리는 흔히 문명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변두리에 있는

야만적이고 낙후된 집단이 끊임없이 문명을 지향하고 추구했던 과정입니다. 그 중에는 전근대의 농업을 위주로 했던 제국 국가나, 공업 중심이었던 근대국가 모두 문명, 진보, 발전의 역사 속에서 핵심, 중심역할을 하며, 인구를 흡수하고 인구 이동을 촉진시키는 분석 카테고리(the analytical category)이자 연구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경·세관·국적·여권 등 근대적인 국가관리 방식을 통해 인구의 출입국을 통제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시오데 선생님의 예전 글 ‘국적은 어떻게 사람의 국제적 이동을 좌우하는가?’ 를 읽어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한 시대에 국적을 통한 인구 이동 관리 방식이 얼마나 복잡한 의제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관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대 국가들은 점점 더 정밀한 인구 이동 관리 방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자부심의 이면에는 통제 불능에 대한 불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은, 국가가 인구 관리를 할 때 어떻게 ‘사람’, ‘인구’라는 키워드를 규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국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거주 실태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인종, 민족, 또는 종교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렇다면 또 ‘이동’은 무엇이며, 왜 어떤 ‘이동’에는 더 많은 신뢰와 자유가 부여되고, 또 어떤 ‘이동’에는 의심과 엄격한 통제가 동반될까요?

심지어 이동수단 방식에 따라 특정 인구의 이동에 대한 고정관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에 대한 현대국가의 관리 메커니즘은 확실히 치밀하고, 점점 더 치밀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방대한 국제적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이어서 제 현지 조사에 입각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지 조사는, 처음에는 인구 이동이라는 이슈, 특히 초국경 이동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 그런데 현지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즉 주민들은 늘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이 주제를 담고 있는데, 어쩌면 역으로 저와 같은 외부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속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동이란 적어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매우 일상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외부인에게 이러한 이동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말할 가치가 있는, 심지어 자랑할 만한 것으로 판단했던 셈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늘 궁금했습니다만, 조금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아직 최종적인 답안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일상적인 행위라고 한 것은 그들 자신의 시각에서 항상 국경 너머의 사람들과 왕래가 밀접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한 작용을 했고, 쌍방 왕래의 방향성을 결정했습니다. 즉 한쪽의 경제 발전이 좋으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하고, 친척과 친구를 방문하고, 명절을 쇠러 갑니다. 이동 과정을 보면, 어떤 때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동 비용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았고 단지 통행증만 필요했습니다.

물론 저도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때는 국가가 청장년 노동 인구와 여성의 이탈을 막기 위해 통행증 발급을 매우 번거롭고 비싼 업무로 규정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시간적, 행정적 비용을 높여 특정 사람들의 이동을 막으려 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들이 국가의 존재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양쪽 사람들 모두 국가의 발전이 국경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발전을 물 속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로 인해 출렁이는 물결처럼, 중심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국가의 틀 안에서, 자신의 생활 변화와 주변 국가의 교류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최근의 상황, 즉 예전에는 자신이 그쪽으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그 쪽에서 반대로 자신의 지역으로 오고 있는 상황을 흥미진진하게 얘기하는 걸 즐겼습니다.

아직 현지 조사 기간이 짧아서 이러한 인구 이동이 현지의 인구, 가족, 직업 구성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현재 관찰 가능한 것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중심과 변두리 사이의 권력관계를 인정 혹은 수용하고 있고, 권력관계에 대해 도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국가라는 중심을 자신에게 유리한 도구로 삼아, 또 현지에서 새로운 지역내 중심과 주변 관계를 구축해가면서 본인들을 그 수혜자로 탈바꿈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민, 국가, 권력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국가는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고, 동시에 주민들의 권력에 대한 인지 및 상상도 확실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심에서 이탈되어 있는 주변성 때문에, 오히려 현지인들은 우회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언급했던 스콧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흔히 중심에 서서 중심과 변두리를 생각했던 그 자명함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변두리에서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조미아의 도망자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수혜자는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국 · 인권 · 남양 : 정치사상사의 관점에서

오쿠보 다케하루

게이오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언]

오늘 귀중한 지정토론 기회를 얻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이동’ 과 ‘국경’, ‘민족’ 에 주목한 ‘제6회 국가들의 대화’ 는 종래의 일국중심적 역사서술을 되짚어보면서 주권국가개념의 재검토를 도모하는 굉장히 뜻깊은 회의라 생각합니다. 최근 사람과 물건의 이동에 주목하는 글로벌 히스토리 연구의 부흥을 통해, 종래 서양 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와 문명사, 그에 대항하는 형태로 발전해온 다양한 국민국가 각각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는 국사연구 재검토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오데 선생님의 문제제기는 이와 같은 연구동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는 정치사상 입장에서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이전과 제국의 역사’ 입니다. 19세기 후반 이후 일본을 비롯해 동아시아 각국은 자국의 근대화를 위해 문명국, 특히 서양에서 ‘외국인 고문(お雇い外国人)’ 이라 불린 학자와 기술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이동’ 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고용 외국인과 이른바 이민자들을 간단히 비교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9세기 후반 메이지 국가 성립과 함께 네덜란드에서 에셔(George Arnold Escher)와 데 라이크(Johannis de Rijke) 등 많은 토목기술자를 불러들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 가운데는 네덜란드에서 전문기술을 배웠으면서도 본국에서 충분한 일거리가 없는 기술자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생활비를 위해 자바와 상하이, 일본 등 본국 네덜란드와 관계가 깊은 식민지와 거류지를 떠도는 ‘제국의 기술자’ 였습니다.

이번 시오데 선생님의 문제제기에서는 일본에서 남양제도나 만주로 이주한 일본계 이민이 다뤄졌습니다. ‘외국인 고문’ 이 정부 측, 즉 통치하는 측에서 있던데 대해, 이들 이민은 피통치자측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서 얼핏 보면 양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본국 식민지 정책 하에서 해외에 파견돼 그 땅에서 기술을 이전하고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로부터 알게 되는 것이 다음의 주요한 문제점입니다. 즉 ‘사람의 이동’에 초점을 맞추는 글로벌 히스토리 연구가 기술 이전이나 노동시장에 주목할 때, 결국 제국 중심의 패권과 수탈을 둘러싼 역사연구에 접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양 제국주의에 의한 세계사 연구를 비판하는 형태로, 다양한 국민국가의 존재양식을 탐구하는 국사연구가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로서 이민 등 ‘사람의 이동’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종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제국중심 역사연구로 회귀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혹여 그것이 단순한 제국사 연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역사연구로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것일지 시오데 선생님께 여쭙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 제2의 논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주권’과 ‘인권’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이동과 주권국가에서 탈락한 존재인 ‘난민’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1951년부터 발표한 『전체주의의 기원(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에서 난민이 된 유대인 박해를 다루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그 주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권리로 보편적인 인권이 존재한다고 주창한다. 인권이란 정부, 주권국가에서 독립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독재 정치나 내전 등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상실하고 시민권을 박탈당해 난민이나 무국적자가 된 경우, 사람들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인권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누가 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인가? 현대사회에선 어떠한 국가나 국제기관도 이러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물론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정해지고 그 뒤 1967년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인 현대조차 무국적자나 난민의 인권을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세계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금일 시오데 선생님이 제시하신 논의와도 깊게 관련됩니다. 저희들은 ‘인권이란 주권국가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주권국가 없이 인권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 주권국가에 박해당한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는 사람의 이동에 대해 분석하는 역사 연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비판적이자 정치적, 철학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시오데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남양’을 중심으로 한 선주민에 대한 시선입니다. 시오데 선생님의 보고에선 국가와 지역을 넘나드는 ‘월경하는 민족’으로서, 특히 하와이에 사는 백인과의 대항관계를 배경으로 한 중국계와 일본계 주민의 미묘한 관계가 검토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중국계와 일본계 주민은 하와이 선주민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1860년 칸린마루(咸臨丸, 선박명)로 태평양을 횡단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건너간 후쿠자와 유키치는 도중에 찾은 하와이 선주민에 대해 ‘만민(蠻民)’이자 ‘그 토인의 풍습은 더러운 모습’이라고 적고 있

습니다.

이 문제는 근대 일본의 ‘남양’ 인식과도 깊게 관련돼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세기 후반 메이지 국가 성립과 함께 미크로네시아와 멜라네시아,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케코시 요사부로(竹越与三郎)와 시가 시게타카(志賀重昂),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 등 많은 이들이 남양론을 전개했습니다. 더욱이 제1차 세계대전 후 대일본제국은 국제연맹에 남양제도 통치를 위탁 받습니다. 도쿄 제국대학 교수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 등 많은 학자가 남양의 식민지 통치에 대해 논했습니다. 이들의 남양론과 남진론은 다양하게 전개되지만, 남양제도 선주민을 동물적이고 후퇴한 존재로 파악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20세기 대일본제국은 한쪽에서 북진론을 제창하고, 조선, 만주, 북방으로 진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진론도 주장됐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남방으로 영토확대를 시도했습니다. 그 귀결이 아시아태평양전쟁입니다.

부인할 수 없이 일본은 중국과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국경을 넘어 수많은 민족적 대립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문동종(同文同種)’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것처럼 북동아시아는 같은 문화권에 있다는 인식도 존재했습니다. 오늘 시오데 선생님 보고에도 ‘애종지심’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양’은 그러한 문화권 밖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관념은 근대의 산물 그 이상으로, 이전 아시아의 역사에도 깊이 뿌리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0년 1월 ‘제4회 국사들의 대화’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저희들은 ‘아시아’의 범위를 중국, 한국, 일본이라는 북동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넓은 영역 속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중국, 한국, 일본 각자에게 남양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월경하는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이 ‘남양’과 아시아 인식을 둘러싼 역사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시오데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논의했으면 합니다. 제 지정토론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토론자에 대한 답변

시오데 히로유키

교토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언]

우선 한국의 조 선생님, 중국의 장 선생님 발표는 모두 몽골제국 소재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몽골제국에서의 이동을 중시하신 점은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두 분 발표 중에서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저 자신의 문제제기에서 ‘자유’와 ‘부자유’라는 말을 중시했는데, 두 분 선생님은 오히려 ‘자발’과 ‘강제’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당시에 자유가 없거나 국가가 자유로운 이동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자발적인 이동은 했다는 것이겠죠. 즉 국가의 관리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그 점에서 자발과 강제 이동에 있어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점은 향후 논의의 주된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에노모토 선생님이 전근대 이동을 두고 중세 일본에서는 오히려 관리가 없어졌다는 점을 중시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능한 한 방금 전 몽골과 관련해, 자발과 강제라는 점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 비교의 시점에서 조금 더 논의를 확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 관계상 서둘러 말씀드리면, 한 선생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면 “국가와 민족이라는 시점에서 사람의 이동을 보면 개개인이 상당히 다양한 동기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고 저도 공감합니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라는 틀로 사람의 이동을 보면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왜 민족이라는 말을 특히 중시했는가 하면, 저는 민족을 네이션(nation)이 아니라 에스닉(ethnic) 그룹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닉 그룹은 바로 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트랜스내셔널한 존재이고,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한 바입니다.

덧붙이면 개개인은 분명히 다양한 동기와 사정으로 이동합니다. 이동을 좌우하는 국가권력이 존재한다는 것도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민족, 에스닉 그룹 얘기로 돌아가면 민족은 다양한 사정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앞서 북미 오키나와현인회처럼 정체성 재확인 기회도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 오키나와현인회와 지금의 오키나와 독립론이나 미군 문제 등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전 오키나와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과 전후에 간 사람 사이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전후에 이주한 사람은 미군에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이 이상의 얘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친 선생님의 발표도 대단히 흥미로웠고, 이는 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과도 상당



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중국의 서남지역 사람들이 아마 동남아시아 각국에 오고 갔다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서 파악한다는 점이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즉 국경을 넘어서는 이동은, 국가를 이용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다양한 이유로 이주한다는 얘기인데, 애당초 여권을 손에 넣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를 이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형태로 국가가 사람의 이동을 관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에 좌우되지만, 반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상호작용이 있는 점을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쿠보 선생님의 지적 역시 이와 굉장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이 결국 그 제국의 역사가 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지 않은가 하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러한 제국의 역사에 회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 말씀드리지만 국가와 사회가 긴장관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사람들의 이주에는 사회경제적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국가가 이를 관리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국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같은 상호작용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종래의 제국사가 국가와 사회의 긴장 관계를 놓쳐 온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와이 선주민 멸시에 대한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방금한 선생님 지적과도 관계되는 것으로, “다수가 된 이민은 예외적이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사적으로 파악할 때 거의 모든 사람은 이동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라는 것은 나중에 이동했기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미국의 백인은 명확하게 나중에 와서 다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와이 아시아계 이민이 실제로는 나중에 들어왔음에도 지금 다수가 된 것과 같은 일이 드물다고는 해도 완전히 기이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선주민을 멸시했다는 것도 사실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국가의 지배와는 별개 형태로 사람들 사이에 민족 간 상하관계가 생겨나는 것은 제가 이번 발표에서 과제로 삼은 것에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2 세션

자유토론 1

사 회 : 남 기정 (서울대)

패널리스트 : 강연자와 지정토론자

[발언은 모국어]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정토론자와 문제제기자의 7명의 발언을 전부 들었습니다. 1 세션에서 지정토론을 해 주셨던 분도 전부 영상을 켜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 세션에서 발언하셨던 세 분 지정토론자와 2 세션에서 발언해주신 세 분의 지정토론자, 그리고 시오데 선생님, 이 일곱분 사이에서 우선 이야기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세션에서 자유토론해주실 분들은 기회가 없습니다만, 꼭 한 마디 덧붙여야 할 것이 있다면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분이었습니다. 종횡무진하는 이야기 속에서 흥미진진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중세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중일 동북아시아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로, 때로는 태평양을 건너기도 하고, 몽골 제국을 염두에 두고 유라시아를 무대로 한 이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치사상적인 문제로서의 이동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자유토론에 들어가면서 이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던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4회 대회 때 마닐라에서 동아시아를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5회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고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감염병의 유행’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이동의 문제’를 한 번 해 봐야 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자유로워야 할 인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인간의 이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동아시아에는 이동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는 지역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제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관계로, 자기 주장보다는 대화를 이어간다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30분 정도의 시간입니다만, 한두 번 정도 말씀해주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한번 발언 시에 2분 이내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모국어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곱 분은 소속이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질문하는가 하는 건 처음에 명백히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채팅창에 남겨 주시거나 이렇게 화면에 종이를 표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역자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두시고, 제가 지정한 뒤에 발언을 시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발언해 주실까요? 그러면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맨 마지막에 지정토론해주신 오쿠보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오데 선생님께서 간략히 본인의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어서 오쿠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였다고 생각되기에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이어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넘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쿠보 다케하루

감사합니다. 시오데 선생님의 답변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사회를 보시는 남 선생님의 지적이 있었듯이,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고는 해도 행동이 제한돼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이 제한됨으로써 본래라면 직접 만나서 토론하는 것으로 나타날 화학반응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시오데 선생님의 연구는 이러한 사람의 이동이 국가를 넘어서 무엇을 일으키는지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는 종래의 제국사 연구를 넘어설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저는 특히 제1세션에서 발언하신 조 선생님, 장 선생님, 에노모토 선생님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논의에서는 근세부터 근대에 이르는 과정에 주권국가 성립을 통해 여권 제도가 확립됨으로써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이 관리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근세 사회에서 근대로의 이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즉 이것이 연속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커다란 단절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를 생각할 때 이른바 ‘쇄국’, ‘해금(海禁)’에서 ‘개국’, ‘개항’으로 이어진 19세기 중엽의 변화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분명히 이는 ‘메이지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일 논의된 것처럼, 행정과 통치의 관점에서 근세부터 ‘해금’이라는 형태로 사람의 이동을 규제해왔기 때문에, 개항 후에도 서양의 여권 제도를 도입해 국경을 넘는 사람의 이동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는 연속성도 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전문적인 견지에서 견해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지정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아사노 선생님께서 문제제기해주신 게 있는데요, 지금 채팅창을 통해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몽골 제국과 일본제국의 비교를 근세와 근대를 구획하는 아시아의 제국으로서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하게 되면 고대, 중세, 근대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문제제기, 코멘트였습니다¹. 이에 대해 채팅창에서 주고받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화면 안에서 오늘 나왔던 여섯 개의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아사노 선생님의 문제제기를 포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문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잠깐 사토 선생님도 손을 들어주셨는데 혹시 관련된 질문이시거나 코멘트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 선생님 손 드셨나요? 예, 장지아 선생님 부탁합니다.

장 지아 오쿠보 선생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초국경적인 이동에 대한 중국 고대와 근대의 이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². 고대에는 이런 초국경적인 이동이 불법적인 것으로 인식됐고 정부가 장려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와 관련한 관리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령 중국 연해의 상인들은 고려와 일본에 가서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고대에는 일종의 ‘천하관’ 이 있었는데, ‘중국’ 이라 함은 자신들의 문화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반드시 그 역내에 거주하며 바깥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요. 누군가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황제는 진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중국의 오래된 말 중에 ‘자외우왕화(自外于王化)’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자기 스스로 문명사회를 이탈하여 야만 사회로 뛰쳐나간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재미있는 역사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초기, 중국 동남연해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필리핀에 가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이 오면서 그들과 충돌이 벌어집니다. 마닐라 화교 집단 학살사건은 매우 유

1 아사노 도요미(와세다대)의 채팅 코멘트(가필 수정한 내용): 부디 괜찮으시다면, 몽골 제국과 일본 제국의 비교에 관해, 동서교통이 활발해지는 근세나 산업혁명이 세계에 확산된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와 함께 (그 선구로서) 등장한 ‘아시아의 제국’ 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주시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볼 때 고대·중세·근대라는 시대 구분을 아시아에서, 또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가 명확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융합과 신문화의 생성’ 대 ‘내셔널리즘의 발흥’ 이라는 축이 만들어질 것이고, 시오데 선생님이 코멘트하신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전체로서 파악하는 시점에서 역사 전체를 재검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즉, 근대 특유의 주권과 인권에 대해 양쪽 모두 불가결한 것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반도를 둘러싼 섬과 대륙의 지정학적 비교도 초점이 될 것입니다. 과거 몽골 시대에 고려 왕조를 몽골이 흡수한 연장선상에서, 바다로 대륙이 뻗어 나가려고 했고, 동남아시아 스리위자야와 일본 원정에서 차질을 빚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대에는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병합했고, 대륙에서 러시아 제국, 해양을 건너온 미국과도 중국 문제로 충돌해 그 결말에는 동남아시아를 점령하고 자멸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비교도 하나의 축이 될 것입니다. 몽골과 우크라이나의 융합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제국이나 서양의 발흥, 이것이 낳은 주권국가도 긴 역사 속에서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중국 학계에서는 근대 이전, 아편 전쟁 이전 시대를 ‘고대’ 라 부른다.

명하죠. 당시 스페인 사람들이 수많은 중국 화교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당지 중국 교민들이 당시 명나라 정부에 보고를 하면서 명나라도 정부차원에서 스페인과 교섭을 진행합니다.

그 뒤, 명나라 정부는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즉 “마닐라로 간 사람들은 모두 ‘자외우왕화(自外于王化)’ 된 자들이니, 어디 나가서 차별을 당해도 스스로 자처한 것으로 명정부는 보호할 의무가 없다” 라고 합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고대 국가의 해외 이민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인의 세계관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존의 ‘천하관’ 에서 ‘만국관’ 으로 바뀌어 갑니다. 중국인들은, 이 세계에는 단 하나의 문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이는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 구조하에서 초국경적인 이동은 합리적,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점진적인 것이 아닌, 일종의 격변 혹은 돌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쿠보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조원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문제인데요, 조 선생님은 몽원시대 역사를 연구하시는데, 저의 일부 연구도 시대적으로 이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조 선생님께서는 중국의 회족이 하나의 무슬림 집단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원나라 제국과의 관련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선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만, 몽원시대에는 한반도, 당시의 고려도 몽원제국의 일부 혹은 반독립 상태에 처해 있었지요. 그리고 당시 한반도에도 중동, 아랍에서 온 많은 색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색목인들이 원나라를 떠난 후 조선반도에서 자신의 무슬림 집단을 형성했던 역사는 있었는지요? 물론 그 당시에는 색목인뿐만 아니라 원나라의 몽골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시오데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시오데 선생님의 발표 PPT에서 『단화신보』(檀華新報)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1926년 어느 한 보도 기사를 언급하셨는데 제목이 ‘경적(勁敵)’ 였습니다. 여기서 ‘적’ 은 ‘enemy’ 로 이해하면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926년 그 시대의 언어환경을 보면, 경적이라고 함은, 일종의 강력한 경쟁 대상, 라이벌이라는 의미가 더 강했죠. 시오데 선생님은 그 후의 1938년 사료도 인용하셨는데, 그 때는 중일 전쟁이 이미 매우 격화된 시기였고, 사료에서 나오는 단어의 함의 또한 매우 달랐습니다. 저의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 네, 감사합니다. 이동의 경계로서의 천하의 영역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천하관에서 만국관으로의 이행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조원 선생님과 시오데 선생님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조원 선생님께서 답변을 주시고요, 질문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원 조원입니다. 장지아 선생님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제국 관련해서 여러 질문과 코멘트들이 있으셔서, 아사노 선생님과 오쿠보 다케하루 선생님의 문제제기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지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색목인, 회족 관련해서 고려, 한반도에서 발견된 부분이 있는

가” 하는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색목인, 무슬림 공동체가 조선 이후로 사료상 발견된 기록은 없습니다. 고려사에는 고려문집이나 사료에 ‘회회’ 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상업 활동을 하고 교류했다는 흔적은 있지만, 민족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사료적 증거나 연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몽골제국시기 이전, 당송시기부터 무슬림의 이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한반도로의 이주는 소규모였고, 몇몇 개인들의 이주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룰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후 혹시 관련 사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쿠보 다케하루 선생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성, 불연속성, 즉 같은 제국으로서, 근대 제국의 호적, 관리, 규제, 여권과 같은 것들이 전근대 몽골제국에도 있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지정토론때는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몽골은 통치 하에서 호적제도, 호구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했고 관리했습니다. 또한 유라시아 역참제도에서 역참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패자’ 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주, 이동에 대한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리 시스템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교류나 사람들의 이동이 훨씬 더 자유로웠던 것은 상대적으로 국가 권력 통제가 약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몽골이 지향했던 건 상업 제국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로운 교류를 장려했던 분위기에서 다른 시대와 비교해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몽골제국시기가 갖는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아사노 선생님께서 몽골제국과 일본제국 시대의 비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일본제국 시기 전문가가 아니라 명확히 비교를 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몽골이 제국으로서 이후의 제국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몽골제국 이후의 정치질서를 보면, 두 가지 양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셔널, 즉 민족주의의 양상입니다. 각 지역 정권이 탄생하게 되죠. 중국의 명나라, 중화주의 질서라는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항해시대가 열립니다. 그것 역시도 몽골제국의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대항해시대에서 시작하여 제국의 시대로 연결되고, 그 산물의 하나가 일본제국이 아닌가 합니다.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군사 체제에 기반한 군사 경제적 팽창의 시대라는 점에서 몽골제국이 지니는 제국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이민에 있어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지아 선생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오데 선생님한테 질문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오데 히로유키** 아주 간단히 답변드리면 ‘경적(勁敵)’이라는 말이 라이벌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말씀 그대로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장 지아** 시오데 선생님의 답변을 잘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은 ‘경적’이라는 단어 중의 ‘적’자의 함의가 중일 전쟁 폭발 이후의 그것과 달랐을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 **남 기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나왔던 주제를 이어서 얘기해 나가면 좋겠는데요, 여섯 분 선생님께서, 예 한성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 **한 성민** 한성민입니다. 오늘 논의를 하면서 이동과 이주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돌아올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동, 바꿔 말하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의 출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대 이후로 여행은 상당히 레저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간다고 해도 돌아올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믿을 곳이 있다는 얘기죠. 완전히 이주한다는 것, 이주와 이동을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를 해서 정착한다고 했을 때, 아까 시오데 선생님은 ‘네이션’이 아니라 ‘에스닉’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국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 되는 것이라는 걸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에선 이런 말을 합니다. ‘집 나가면 고생을 한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힘이 된다고 한들 그러한 국가가 과연 모든 이주 집단에 대해서 그렇게 시혜를 베푸는 것일까?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이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와의 관계, 중요성에 따라서 상당히 이주민 집단에 대한 처우도 다르다는 겁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겠지만 덜 아프고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국가 권력이 이주와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의 이주나 이동이라는 걸 자유롭게 하는 건 근대 국가 이후로의 통치력의 자신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대역한 지역에 대한 권력 작동에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 것이고,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 통제불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겠지만 그 선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에 대해 과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건가, 저는 이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차적으로는 시오데 선생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근대에 대해 같이 코멘트했던 오쿠보 선생님이나 친팡 선생님께도 다같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 **남 기정** 이동과 이주라는 걸 구분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지금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시오데 선생님부터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시오데 히로유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동과 이주의 차이라는 것은 커다란 논점이지만, 제 생각

은 한 선생님과 조금 다릅니다. 실은 이동과 이주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돌아갈 곳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하와이나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돌아갈 곳이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처음에 일본에 돌아갈 생각이었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실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와서 지금은 일본에 후손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남은 사람이 일본계라고 불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돌아갈 생각이 있었고, 혹은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하다는 것이 대부분 이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즉 처음부터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이주한 것은 난민과 같은 극히 드문 경우이고,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편도였다고 해도 언젠가는 돌아올 생각인 편이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연히 남은 사람이 이민이라 불리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밀히 선을 긋는 것은 어렵습니다. 혹은 결과로 밖에 알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오쿠보 선생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오쿠보 다케하루 지금 한 선생님의 질문에 관련된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금일 시오데 선생님은 “네이션을 넘어서는 형태로 에스닉 그룹이 움직인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네이션 스테이트’ 가 하나의 픽션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에스닉 그룹’ 이라는 개념도 또 하나의 픽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부에서 검토됐던 중세부터 근세 시대에는 아마 ‘에스닉 그룹’ 이라는 개념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시오데 선생님은 이민을 생각할 때 ‘에스닉 그룹’ 을 최소 범위로 생각하시는지, 이는 언제쯤 성립한 것인지, 고대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남 기정 네,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이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오데 선생님?

시오데 히로유키 아주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에스닉 그룹이라는 것이 고대부터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것은 있지만 현재 존재하는 것과 같은 에스닉 그룹이나 이러한 에스닉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19세기 이후, 즉 근대 국가 속 이동의 결과로 나타난 귀속 의식의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픽션 아니냐고 한다면 그렇기는 합니다만, 다만 민족의식이나 정체성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의식이지만, 저는 이것도 ‘리얼한 것’ 이라고 봅니다. 픽션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이나, 인간의 허위의식은 어느 정도 리얼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의 지정토론자 중에서 전혀 발언하지 않으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에게 간단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스스로의 연구 영역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황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한 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친 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네이션(nation), 민족, 내셔널리티(nationality)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몇 선생님들의 논의가 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자신의 실증연구에서 출발하여 얻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좀 더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면, 우선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서 있는지, 혹은 어떤 공통인식 하의 지식체계 속에서 그런 개념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에노모토 선생님께 간단하게 정리말씀 부탁드립니다.

에노모토 와타루 이주, 이민에 관해 생각할 때 근대에는 국가가 반드시 배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근대의 경우, 국가가 엮히는 형태로 이민이 이뤄지는 일은 있을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반드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간 국교가 있는 경우가 적고,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외교와 무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람의 이동이 있고, 그 경우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문서 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때에 “우리 국민을 그쪽 나라에 살게 해달라”고 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너희들 쪽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고 하는 경우, 이는 몽골이 고려에 대해 했던 일입니다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전근대 사람의 이동은 국가가 개입하면 오히려 어려워지는 성격의 일이었고, 상인이나 난민과 같은 사람들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비로소 사람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전근대 일본인 마을 등이 가장 좋은 예일 것입니다.

나라 간 합의 하에 사람의 이동을 인정하는 세계가 태어난 게 근대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전근대가 아닐까 하는 식으로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없다는 게 2세션까지의 결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평면적이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이나 지역을 떠나서 이해해선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동이라고 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경계를 가시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존재만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고, 경계가 있기 때문에 타자가 있고, 자아가 있어서, 그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이 지금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히스토리, 트랜스 내셔널 히스토리, 글로벌 히스토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듣기에 ‘인터내셔널 히스토리’ 라는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이동의 문제와 인터내셔널 히스토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질문을 안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근세와 근대 민족 국가와 제국, 이런 여러 가지 이른바 글로벌 히스토리에서의 행위자 문제도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문제를 많이 들추어내고서, 2세션을 끝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3세션에서는 류지에 선생님이 조금 더 명확하게 문제제기를 정리해서 그 다음 논의를 이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제3세션은 1시반에 시작하는 걸로 아나운스먼트를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짧아졌습니 다만 점심식사 드시고, 13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오후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3 세션

자유토론 2

사 회 : 평 하오 (오사카시립대)

논점정리 : 류 지에 (와세다대)

패널리스트 (국사대화프로젝트참가자):

이치카와 토모오 (오키나와국제대), 오카와 마코토 (주오대),

사토 유키 (릿쿄대), 히라야마 노보루 (가나가와대), 아사노

도요미 (와세다대), 심 철기 (연세대), 남 기현 (독립기념관),

김 경태 (전남대), 왕 야오쩐 (톈진외국어대), 순 찌치앙 (쑤저우대)

[발언은 모국어]



평 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 시간 오후 1시 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3 세션 사회를 맡은 오사카시립대 교수 평하오입니다. 지금부터 진행될 오후 자유토론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제가 주로 사회를 맡고, 뒷부분은 고려대 정 교수님이 사회를 맡아 주실 예정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괜찮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류지에 선생님께 논점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오전 연구회에 참가하지 않은 선생님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설명했지만 동시통역에 관한 주의사항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유토론 세션에서는 발언하기 전에 먼저 손을 들고, 사회자의 확인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때는 비디오를 켜시고 모국어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먼저 발언자의 이름 및 소속을 알려주시고, 통역을 위해 사용 언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속도를 최대한 늦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토론이 힘들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고유 명사나 사람 이름, 지명 같은 것들은 오전에 그랬듯이 종이에 적어서 비디오 화면에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코멘트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 참여자는 채팅창을 통해 코멘트할 수밖에 없지만,

후반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여러분이 쓰신 질문을 정리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류 선생님께 논점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논점정리

류 지에 사회를 보시는 평하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주제 발표를 해주신 시오데 선생님,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멋진 발언과 토론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언급하신 문제는 다양한 주제와 시각을 내포하고 있는데, 제 능력으로는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거나 귀납할 수 없습니다. 논점 정리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발표와 코멘트 내용에 대해 제 개인적인 소감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의 역사도 결국 국가 사이에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교류하는 역사였습니다. 사람의 이동이라는 역사적 시각에서 벗어나면, 중국과 일본, 한국이라는 이 세 나라의 역사, 특히 근대사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근대 중국의 혁명과 근대 중국 문화의 형성 과정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이동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과 일본의 전쟁사는 중국 동북, 즉 '만주'와 중국 대륙으로 일본인들이 대거 이동한 데서 기인합니다. 지금의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봐도, 식민지 시대 일본의 한국 지배와 사람의 이동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각국의 역사 교과서는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국사들의 대화' 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오데 선생님께서 제기한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정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 제가 작성한 간단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시오데 선생님께서 '무엇이 사람의 이동을 결정짓는가', '사람의 이동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동하는 사람, 즉 이동하는 사람의 생각과 동기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금 조원 선생님이 언급하신 자발적인 이동도 있고, 비자발적인 이동도 있습니다. 이주자의 이동에는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도 있고, 반대로 전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동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은 단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외부 조건과 사람의 의지가 결합되어 사람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부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몇 가지 각도에서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정책이고, 또 하나는 정책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있는, 즉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가령 전란, 재해, 빈곤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전란과 재해는 어느 정도 시간적 제한이 있는 영역일 수도 있지만, 빈곤은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또 전염병과 같은 경우도 사람들

을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나게 하는 이동의 외부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한 후, 사람들은 어떤 활동에 종사하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학하는 것입니다. 근대 이후 많은 비증을 차지했던 것은 유학이었는데, 유학은 많은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유학 외에 당연히 다양한 교류 활동도 있었지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가족, 결혼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로 난민입니다. 특수한 목적 때문에, 특정 국가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난민이라는 신분으로 그 나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동에 어떠한 제한적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이와 같이 여러 요인들을 고르게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시오데 선생님이 두 번째로 제기하신 문제는 ‘사람의 이동은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우 방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가와 사회관계의 변화에 대한 주목입니다. 방금 전 친광 선생님께서 주변화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동을 통해 모국과 ‘이민’ 사이의 관계에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동 이후, 이주지 현지 주민과 이민자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서 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문제는 이민자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어떤 지역에 이동하면 그 곳에는 인종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각자의 신분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이주자 사이에는 일종의 연대나 대립, 혹은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중국 이민자들이 외국으로 가면 지역마다 향우회 같은 조직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향우회 조직이 이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과 본국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한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으로 이동한 사람 중에 혁명파로 변한 사람들이 많다거나, 혹은 그 지역 사회에 적극 융합된 사람들이 많다거나 하는 사례들입니다. 지금도 미국으로 이동하는 중국인들이 많은데, 미국 정부의 고문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이동은, 이민자와 본국, 그리고 특정 나라로 이주한 이민들의 출신국 사이 매우 복잡한 관계를 초래해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시오데 선생님의 세 번째 질문은 ‘각 나라의 교과서가 사람의 이동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의 교과서는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 사람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쓰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외국으로 이동한 중국인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을 언급할 때, 애국적인 시각이나 혁명적인 시각, 그리고 민간 우호적인 시각, 혹은 그 지역에 대한 공헌적인 시각 등으로 많이 기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외부로 이동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활동범위가 결코 그러한 측면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 교과서에서도 건당사(遣唐使), 견수사(遣隋使)와 같은 역사 속의 이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근대에는 미국에서 일본사람을 배척하는 이민법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기별로 역사서에서 간혹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이동한 사람들의 집단적인 생활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즉 네 번째 문제로, 사람의 이동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논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근대 이후 사람들의 이동의 원인과 상황, 이동이 초래한 영향이 국가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또 한가지는 국가와 국민(근대 이후의 표현으로 국민), 또는 이동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국가’ 라는 개념, ‘국경’ 이라는 개념, 그리고 ‘민족’ 이라는 개념에 대해 인식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시오데 선생님도 일본어 체계의 ‘민족’ 이라는 개념이 중국어 체계의 ‘민족’ 이라는 개념과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오데 선생님은 ‘에스닉 그룹’ 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저는 중국어 체계에서 ‘민족’ 이 아닌, ‘족예(族裔)’ 라는 개념으로 부를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근대 이후 중국은 종종 대외적으로 국내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민족’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대외관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근대 이후 중국이 직면했던 대외위기 상황을 묘사할 때, 흔히 ‘민족의 위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민족의 개념적 함의는 이런 맥락 속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물론 국가의 개념과도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오데 선생님이 언급하신 민족이라는 개념은, 중국어 체계에서 오히려 족예에 가깝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오쿠보 선생님이 제시한 인권과 주권의 관계, 바로 인간의 이동이 초래한 인권문제입니다. 이는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다양화를 구축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민을 오거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다양한 배경을 지닌 에스닉 집단(族裔)이 서로 조화로운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아마 역사 속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이민, 이동 그리고 유동의 개념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세계화의 진전, 특히 근대화와 민주화가 추진됨에 따라 이동도 어찌면 유동이라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동은 한 곳에 도착한 후, 일정한 시간 속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인 데 비해, 유동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인 유동이 미래 변화의 주류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문제들은 모두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령 국가와 국민의 관계, 인권 문제, 그리고 사회 다양화 문제 등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특히 근대사에서 다 접해본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잘 처리했고, 또 어떤 때는 잘 처리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과거 역사에 대한 더욱 명확한 이해를 통해서 사람의 이동 문제를 사유하는 데 참고할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후 토론 가운데 여전히 이와 같은 시점으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면, 이번 대화는 매우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토론

평 하오 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 ‘대화’ 의 의의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오데 선생님이 제기하신 문제들을 보완하여 추가 설명도 해 주셨고, 앞으로 논의할 이슈들도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유 토론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순서대로 발언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형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라야마 선생님, 오카와 선생님이 준비한 원고를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매우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주제별로 몇 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발언할 때는 주제에 따라 논점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와 세션에 관해서는 시오데 선생님이 제출해 주신 문제와 아까 류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논점을 토대로 설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람의 이동을 규정하는 요인에 대한 논의입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는가’, ‘왜 이동하는가’ 등의 문제입니다. 이동 요인에 대해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정치나 경제, 종교 등 다방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디로 이동해, 이주지에서 어떤 활동을 했으며, 이것들은 자유 선택인지, 아니면 강제인지, 자발적인 것인지’ 에 관한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트렌드나 흐름을 공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특징 혹은 서로 제약하는 요인이 있는지’ 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했는데, 일본의 경우 근대화 과정이 빨랐고, 제국을 형성하면서 이동에 있어 중국과 일본에 모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와 세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입각해, 앞서 류지에 선생님의 발언 첫 부분에서 언급했던 몇 가지 구체적인 주제를 포함하여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하고 싶은 선생님은 거수 기능을 사용해서 직접 손을 들어주세요. 네, 거수자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한 순서대로 우선 히라야마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히라야마 노보루 가나가와대학 히라야마 노보루입니다. 제가 사전에 준비한 코멘트는 두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신 포인트라 생각돼,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사회자 선생님 요청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이동을 생각할 때, 이는 근현대, 국가, 지역에 관계없이,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로서 종교에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지아 선생님께서는 중국 근세사 대규모 이동의 커다란 요인을 ‘정치’ 와 ‘경제’ 로 나눠서 설명하셨지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노모토 선생님은 중세 일본에서 대륙으로의 이동의 동기로 불교가 가장 중요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한성민 선생님은 트랜스내셔널리즘, 디아스포라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만, 모두 ‘종교’ 가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국가’, ‘민족’ 과는 다른 ‘교류와 분단’ 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사례로서 같은 일본인이라도 에도시대 ‘숨은 크리스천’ 에 대해 가혹한 탄압이 가해졌는데, 이들에 대한 차별은 최근인 1990년대까지 이어

졌습니다. 이민배척 문제에서도 진주만 공격 이후 강제수용된 미국의 일본계 이민을 계속 지원한 것은 불교도 유대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또한 오쿠보 선생님이 언급하신 난민에 대해서도 비정부조직으로 항상 최전선에 서 왔던 것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연구자들은 나라를 넘어선 연구교류를 상당히 활발하게 실행했다는 점입니다. 아쉽게도 종교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연구자는 종교를 중시하지 않거나, 혹은 마치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경향이 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교를 전문으로 하지 않고서도 종교를 시야에 넣는 것이 이동·이주의 역사를 생각할 때 필수불가결하다고 봅니다. 제가 준비한 코멘트는 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평 하오 히라야마 선생님, 감사합니다. 히라야마 선생님은 종교와 난민에 관한 중요한 요인에 대해 보충해 주셨습니다. 오카와 선생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오카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오카와 마코토 일본 추오대학 오카와입니다. 사전에 준비한 제 코멘트 페이퍼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을 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 우선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패널리스트 중 철학과 교원은 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学)’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평하오 선생님이 첫 번째 관점으로 거론하신 ‘자발적이나, 비자발적이나’라는 구분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간단하게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라는 것은 실제로 그다지 의미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치철학에서 ‘중동태(中動態)’라는 개념이 종종 논의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약물중독자의 경우 타인에게는 스스로 좋아해서 복용하는 것으로 비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얼핏 자발적인 것처럼 보여도 주변에서의 타동적인, 다른 요인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상태, 이를 ‘중동태’라고 합니다. ‘이동’에 관해 말하면, 국가 명령으로 움직이는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좀처럼 생활하기 어려우니 다른 동남아시아나 중국, 한반도로 건너가 생활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간단히 나눌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경제정책이나 복리후생을 충분히 실행할 수 없던 환경이라면 자발적이라 하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 이동하는 것을 간단히 자발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평 하오 오카와 선생님, 이상입니까? 더 보충하실 내용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카와 선생님의 말씀에서 매우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오늘 토론자 중에 정치사 전문가가 많아서 논의가 편중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침 오카와 선생님 같은 철학 전문가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오카와 선생님이 언급하신, 많은 일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 남양 혹은 만주와 몽골 지역으로 건너갔고, 그래서 그 경제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

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사도 가르치고 있고, 경제적 요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8세기 중엽 이후,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취업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합니다. 그래서 청조 중기 이후, 대량의 인구가 남양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남양으로의 이민 현상은 그전에도 이미 있었지만, 청조 중기 이후 특히 두드러집니다. 근대 이후에도 중국과 일본, 한국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이민을 논의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대체적으로 마이그레이션(migration), 즉 해외로 이동하는 움직임인데, 우리 모두의 공통된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아사노 선생님과 류 선생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선 아사노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아사노 도요미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보스턴 케임브리지로 지금 새벽 1시입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2세션 토론 때 채팅창에도 썼습니다만, 제국이라는 존재가 사람의 이동을 어떻게 이용해 온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근대 이전과 이후 다른 성격을 갖는 제국에 대해 공통점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몽골 제국은 색목인을 상업 활성화와 교통 루트 개발에 활용했지만, 일본 제국의 경우는 외국인 고문을 고용해 서양의 기술을 배우고, 유학생을 파견합니다. 또한 근대화에서 처음 대상이 되는 농촌의 합리화로 남은 노동력을 이민 보내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총력전 시대에는 조선의 엘리트들을 협력자로 파악해, 조선 사회 내 한층 소외되었던 촌락에까지 국가권력이 영향력을 넓혀 이른바 강제연행이라는 형태로 사람의 이동을 인공적으로 일으킨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시오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강제된 사람의 이동’이라는 측면입니다만, 국가에 정책이 있다고 하면, 민중에게는 (그 정책에 대응하는) 자발적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 下有對策)’)이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국가 정책에 호응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것을 행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중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있고, 그 중간 지대에 오카와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동태(中動態)라는, 어디까지 의식적으로 움직인 것인지 알 수 없는, 즉 자발인지, 강제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이동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1930년대 만주국 성립 이후, 다소 노동력이 부족해진 일본 사회에, 관의 앞선이라는 형태로 조선에서 노동자가 유입해온 현상 등과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근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국민이나 민족이라는 것이 고대부터 있었다는 전제로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혹은 미성립을 전제로 사람의 이동이라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이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기에, 물론 ‘중동태’라는 개념으로 상징되듯 인간의 의식까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어떤 계층의 인간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글로벌 히스토리에 ‘국민 형성 다이내믹스의 추출’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늘 역병이나 콜레라와 같은 알기 쉬운 것을 대상으로 글로벌 히스

토리가 그려져 왔지만, 사람의 이동을 축으로 글로벌 히스토리를 그리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시도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저희들의 눈에 근대라는 필터가 씌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실마리로서 사람의 이동이라는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몽골 제국이 어떻게 동서 교류의 활발화라는 관점에서 근세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한 것인지’, 혹은 ‘일본 제국이 어떻게 서양의 문명·산업력을 유학생과 외국인 고문을 활용해 동아시아의 내발적 근대의 선구 역할을 했던 것인지’라는 관점에서 ‘국가 대 사회’라는 시오데 선생님이 제시한 프레임워크에서 근대 국가와 사회가 아닌 것에 대해 저희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일종의 근대적으로 오염되어 버린 듯한 저희들의 시각에서 조금 더 탈피해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덧붙이자면 히라야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종교의 기능이라는 것도 크게 봐서 근세 이전과, 중세 시대, 근대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중간에 근세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되고, 종교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도 근대를 거시적 역사 속에서 상대화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번 주제인 ‘사람의 이동’을 어떻게 국가가 관리했는지, 혹은 국가의 관리에서 빠져나가 사람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라는 실증적인 문제를 사실로서 검증해, 저희들이 역사가로서 그 사실을 향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대·중세·근세·근대의 국가와 사회라는 것을 일반 사회에도 전해지기 쉬운 형태로 보다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대가 얼마나 특수한 시대인지, 안이하게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을 현대적 이데올로기나 근대의 특수성을 의식하지 않는 잘못을 경계하는 재료로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존이든, 자학이든, 심리적 토대가 되는 것에 구체적 숫자를 통해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친팡 선생님이 “분명한 개념을 토대로 논의하지 않으면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저도 깊게 동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같은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글로벌 히스토리에서 반드시 문제가 될 사안으로 류큐 왕조나 오키나와 사람들을 어떻게 볼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야마토’ 사람들과 민족적으로 근대를 통해 융합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고자 하면, “머리가 이상하다”, “이상한 학자다”라 비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저희들의 감정 속에 ‘이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이상한 선생’이라는 가치판단이나 상식·도덕이 새겨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연구상 어떤 종류의 터부를 만들어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어렵게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중국 쪽의 대만 문제 논의가 쉽지 않은 것처럼, 다양한 터부에 의해 국민이라는 사회가 성립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연구자 자신의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터부와 감정 자체를 역사의 산물로서 극복하면서, 논의와 대화를 위한 공통의 토대에 대해, 저희들은 사람의 이동과 국

가라는 관계를 생각함으로써 구축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색목인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새로운 커뮤니티가 태어났다는 장 선생님의 말씀이나 몽골 제국 얘기가 저에게는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형성·변용은 근대에도 적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대 일본 제국의 경우에는, 지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일본과 다른 중국이나 조선의 국민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과 독립운동을 하고, 제국을 분열시켜 간 것입니다. 이동에 의해 사람은 어떤 때에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고 국민을 포함한 커다란 새 집단을 만들고 동시에 다른 때에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분열시켜 갑니다. 무엇이 이 다이내미즘을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몽골 제국 연구자 선생님들께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려 왕조 이전 신라 시대에 색목인들과 접촉한 것을 보여주는 중앙아시아인 얼굴을 한 인물의 상(석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신라 옛 수도 경주에 관광하러 갔을 때 그 상이 전시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소재로 현대 한국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7세기 중엽에 있던 여왕이 한국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색목인들을 중앙아시아까지 나가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의외로 이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에 사람의 교류라는 것도 상당히 활발했고, 이것이 고대 왕조의 공방과 확실히 관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대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잘 알 수 없는 고대, 중세의 매력이라는 것도 이번 세미나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대나 중세 전문가 분들의 지혜를 빌리며 저희들이 어떻게 근대적인 것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인지,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인지, 이것을 논의한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감사드립니다.

평 하오 아사노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사노 선생님도 여러가지 화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국 및 근대화 문제와, 방금 전에 언급된 국가의 관리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사노 선생님이 언급하신 일본제국과 몽골제국의 비교 문제는 매우 큰 문제로, 다음 세션에서 다룰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첫 번째 세션 주제인, 즉 ‘어디로 이동하고, 이동 후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에 대해서 몽골제국사 연구자분들 중에 더 보충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까요? 장지아 선생님, 조원 선생님, 더 보충하실 내용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우선 장지아 선생님은 어떠신지요?

장 지아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죠. 저는 원나라 역사를 연구합니다. 중국역사상 몽원(蒙元) 시대는 아마도 한족 지방, 중원 지방에 소수민족이 가장 많이 유입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북방에서 온 초원 민족, 동북지방에서 온 민족, 중앙아시아에서 온 민족, 서아시아에서 온 민족, 심지어 유럽에서도 많은 에스닉 집단들이 유입됐습니다. 중국 사서에 나오는 색목인들은 세분화하면 대략 50개에 가까운 에스닉 집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에 온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영향이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서정(西征)과정에서 많은 외부 중

족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일부는 몽골 군대에 입대했고, 일부는 남송과의 전쟁 시 중국 본토에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상업적 요인입니다.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언급하셨습니다만, 많은 색목인들은 중국에 와서 상인이 됩니다. 조원 선생님도 특별히 언급하셨던 내용이죠. 여기서 가장 유명했던 인물은 마르크 폴로입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마르크 폴로 여행기』는 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신분도 이탈리아에서 온 상인이었습니다. 마르크 폴로의 중국 내 실제 신분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몽골 황실에 고용된, 황제를 위해 상업에 종사한 인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토론할 때도 몇몇 선생님들이 특별히 언급하셨듯이, 몽원시대에는 종교적 요인으로 중국을 왕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령 유럽에서 온 천주교 선교사들은, 천주교 교황의 의사를 받들어 원나라 정부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이슬람 신도들은 중국 밖으로 나가 성지순례를 했는데, 이 또한 종교 교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몽원시대에는 인구 이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그리 엄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원 선생님이 언급하셨듯이, 원나라 때 역참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말, 숙박, 음식을 제공하는 정부의 관공서였습니다. 역참은 주로 특정 신분의 관공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었고 일반 주민들은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들도 스스로 말을 준비하거나 여관을 찾아 숙박하는 등 나름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나라 때에는 인구 이동에 대한 규제가 그리 엄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시대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제도적으로는 인구 이동에 대한 관리가 엄격했습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느슨해지기 시작했지만, 오늘날 중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비교적 엄격한 호적제도의 근원을 더듬어 보면 아마 명나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중국어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적관(籍貫)’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서류를 작성할 때 이 항목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명대에서 온 것입니다. ‘적’은 원래 직업 종류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원나라에서 계승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과도 약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원나라에서는 백성들을 여러 종류의 직업 등급으로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군호(軍戶)에 속하면, 그의 가문에서는 대대로 군인을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장인이자면, 그의 가문은 수공업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죠. 유학자의 가문(儒戶)이라면, 누군가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모두 원나라에서 계승된 것입니다.

그리고 명나라 시대에는 특히 관(貫)을 강조했는데 관(貫)의 뜻은 적(籍)과 다릅니다. ‘관’은 바로 출생지와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또 많은 제도와 연결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과거 제도의 경우, 수험생은 자신의 본관이 아닌 곳에 가서 시험에 참가해서는 안 됩니다. 산동의 독서인이라면 과거에 응시할 때 반드시 산동지역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북으로 가도 안 되고, 북경으로 가도 안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오늘날의 중국 대학입시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국에는

‘대학입시 이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수능생은 반드시 현지에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원 배와도 관련됩니다. 확실히 명·청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인구 이동에 대한 제약이 컸고, 이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엄하게 단속을 실시해도 백성들은 생존 압박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평 선생님이 경제적 압박을 언급하셨는데, 상당수 중국인이 명나라 때부터 외국으로 나가 생계를 모색했죠. 그런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복건(福建) 지역입니다. 복건 지역은 인구가 많은 데 비해 산이 많고 땅이 적은, 즉 평야가 적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말기에 많은 중국인들은 동남아로 떠납니다. 당시 정부 관리들도 조정에 상서를 올려 ‘항해 금지령 해제’를 요구하며 사람들의 이동을 독려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여전히 천하관(天下觀)이라는 세계관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중앙의 관리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중앙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 하오 장지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장지아 선생님이 제기하신 많은 문제들은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호적제도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적은 현대 중국의 인구이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일본과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고대사 연구자가 적습니다. 대부분 근대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호적제도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의 지식 부족을 감안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장 선생님은 호적 제도가 명나라 때부터 시작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나라와 한나라 시기, 특히 상양변법(商鞅變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당시에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적 편성을 통해 이동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연좌제, 그 후의 보갑제도, 그리고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분석하셨던 통행증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진나라 때에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고 명나라 시기에 와서 호적 제도가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제 이런 관점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장 선생님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장 지아 맞습니다. 확실히 진한 시대에는 백성의 이동에 일종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단속이 시작된 것은 주원장 시대부터일 가능성이 큼니다. 주원장은 사회관리에 매우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중국 고대 백성들은 어딘가로 이동을 할 경우 특별한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 100리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가도 통행증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50킬로미터쯤 되는 거리입니다. 사람들은 통행증 외에도 왜 본인이 그 곳으로 가야 하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통행증은 현에 가서 발급받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시기 제도 자

체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지만, 명나라 시대부터 매우 엄격한 관리가 실행되었습니다. 이는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비교적 오랜 관리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추측 가능한 상앙(商鞅) 시대부터 서서히 백성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동을 제한한 것은 정부의 부역 충당과 관련이 있었습니다.췌. 백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국가에 병역과 부역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저의 짧은 답변이었습니다.

평 하오 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따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장 선생님은 아까 여러 번 통행증을 언급하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통행 허가증, 여권에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세션이 끝난 후, 두 번째 세션에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사노 선생님이 손을 드셨는데, 아사노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사노 도요미 장지아 선생님, 평하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근대 일본 제국이 호적을 통해 사람의 이동을 관리해 왔다는 내용으로 박사논문을 썼습니다. 호적 종류를 나눠 법역에 따르고, 내지와 외지를 나눠 외지에 대해 위임입법제도를 총독이라는 행정관 중심으로 만들어 대만·남가라후토(南樺太)·조선이라는 식으로 영역적으로 정의하고, 그 위임입법으로 조선 호적과 내지 제국의회 호적법을 분리해 합법적 차별을 도입했습니다. 사법(私法) 상 차별을 이용하면서 공무원 급여 등 공법에도 파급시키며 경제면과 교육면에서(수단은 다름) 같은 일본인이라 하며 동화시킵니다. 모순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왜 이것이 가능했는지를 제 논문에서 논했습니다(『제국일본과 식민지 법제: 법역 통합과 제국 질서(帝國日本の植民地法制: 法域統合と帝國秩序)』(나고야대학출판회)).

또 하나 더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미타니 선생님 세미나에 나가 에도 시대라는, 어떤 면에서 하타모토(旗本)나 통상의 다이묘 영지교체(国替)에 수반하는 관료화한 사무라이들로 구성된 ‘오이에(お家)’ 단위 사람의 이동을 막 부라는 국가가 명령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도 움직이도록 할 수 없었던 번(藩)이라는 영역이 20곳 정도 있었다고 미타니 선생님께서 코멘트하신 것이 지금도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시마즈나 조슈, 즉 메이지 유신에서 활약한 큰 번을 제외하고 에도 막부에서는 흡사 관리가 자신의 임지, 임관 장소를 바꿔가듯, 사무라이들이 막부 명령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근세였던 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장지아 선생님이나 조원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명나라는 한족의 내셔널리즘적 동기로 만들어졌다고 일컬어집니다. 실제 한족 내셔널리즘의 존재를 나타내는 존재로 명이 생겨났다고 아까 코멘트하셨는데요, 몽골 제국의 대단히 세련된 시스템 속에서 왜 주원장을 중심으로 한 한족이 반란을 일으킨 것일까요? 사람의 이동 제한이나 차별, 주원장이 한 것과 같은 엄격한 제한이 몽골 제국 말기에 존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 교과서에는 몽골 제국에 존재했던 색목인, 한인이라는 구별이나 계층이 나옵니다만, 사람의 이동의 제도적 제한과 명의 등장, 발흥과 관계가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상세한 논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사람의 이동이 인간의 의식에

크게 작동한다는 점은 틀림없으리라고 봅니다. 차별이라며 분노를 느끼고, 이 역시 제도로서의 사람의 이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 각각의 기억 속에서 다른 형태로 역사에 나오는 것을 서로 맞춰 보기 위해서도, 이동 제한과 감정을 엮음으로써 추상적 감정이 아닌 더욱 구체적 소재로, 국민 서로의 역사 인식 차이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평 하오 아사노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사노 선생님은 원나라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가의 이동에 대한 관리와 인구에 대한 파악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미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두 번째 세션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국가의 이동 관리’, 특히 그 중에서도 ‘이민 정책이나 출입국 관리 제도’ 라는 좀 더 구체적인 문제로 설정하고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 전근대를 연구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통행증 연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통행증 문제에 대해 중국 고대에 출현한 인구 이동 제한 정책으로부터 저의 연구 시기인 명청,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흐름 전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구 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역사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진나라 시기에 출토된 죽간에 상앙변법 이후 이동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전(傳)이라는 그 당시의 통행증이 발행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간단한 기록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때에도 이런 통행증 발급이 많았고, 비교적 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당나라 때였습니다. 당나라에는 ‘과서(過書)’ 나 ‘과소(過所)’ 같은 통행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대사 전문가인 정순일 선생님이 더욱 자세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일 선생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정 선생님, 들리십니까?

정 순일 네, 평하오 선생님,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항증명서라고 해야 될까요, 고대에 있어서 출입국 관리제도, 그 속에서 사용된 통행증 문제를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학부생들 수업할 때 사용하는 슬라이드를 몇 개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혹시 화면 공유가 되셨는지요? 한글이 있고 한자가 섞여 있는데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고대의 경우 아까 에노모토 와타루 선생님 지정 토론 때, 일본과 당, 즉 중국과 일본 사이를 오갈 때의 통행증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공험(公驗)’, 즉 ‘구젠’ 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고대 한일관계, 일한관계에 있어서의 통행증은 어떤 식으로 사료에 나오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속일본후기』라고 하는 사료를 보면, 신라인이 일본으로 갔을 때 ‘문부(文符)’ 라고 하는 것을 지참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첩장(牒狀)’ 이라고 불리는 문서를 지참했는지가 확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일본인이 당(唐)으로 갈 때, 즉 중국으로 이동할 때의 사례입니다. 이걸 에노모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다자이후

공험’ 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갔던 것 같고, 아까 채팅창에서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나중에 에노모토 선생님 설명을 더 들으면 좋겠습니다만, 마침 얘기가 나와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이 공험이라고 하는 문서 속에는 신분증명서적인 내용, 현재의 여권과 같은 내용도 있는가 하면, 인원 리스트, 즉 한 사람에 대한 공험이 아니라, 집단, 즉 배에 탄 사람에 대한 공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인원 리스트가 첨부돼 있습니다. 배에 실린 물건에 대한 리스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하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과소(過所)’ 라고 하는 문서가 통행증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3번입니다. 일본인이 신라, 즉 한국으로 갈 때에는 ‘공첩(公牒)’ 이라고 하는 것을 지참하고 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신라집사성첩’ 이라고 하는 문서의 필사본입니다. ‘타카야나기본’, ‘타니모리본’, 에도시대 ‘케이쵸본’ 등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번각하면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이틀에 ‘신라국집사성첩’ 이라고 보이는데요, 신라국의 ‘집사성’ 이라고 하는 건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중요한 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성이 일본 태정관(太政官)에 첩을 보낸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중요시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공첩’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공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때 공첩에 찍힌 도장, 인감을 본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태정관의 도장이 분명한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본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태정관인(太政官印)’ 입니다. 이 그림은 고대 태정관인이 복원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도장에 새겨진 글자가 분명한지 아닌지를 신라, 즉 고대 한국 쪽에서 확인을 했던 것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문서 지참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거꾸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항을 허락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관인, 도장을 만드는 것을 몰래 배워서 공첩을 가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위조 도항문서를 만들어서 해외 도항을 했던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비슷한 사례를 소개해주실 거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평하오 정 선생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벌써 중세에 접어들었네요. 중세 얘기는 앞서 에노모토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더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 혹은 중국 국내 이동에 사용되는 통행증에 대해 에노모토 선생님께서 더 보태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에노모토 선생님, 들립니까? 앞서 에노모토 선생님이 이미 쿠젠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 중세의 일본 통행증, 혹은 중국에 건너간 후 사용한 통행증에 대해 보충 정보가 있으시면 꼭 부탁드립니다.

에노모토 와타루 일본 국내에 관해 ‘카쇼(過所)’ 라는 것은 일본 안에도 있었고, 이를 갖고 있으면 세키쇼(関所)를 지날 때 내는 돈을 면제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타니 선생님으로부터 저에게 코멘트가 와서, 먼저 그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국가 관리의 출입국증명서와 신분증명서를 제공했다는 관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승려와 같은 엘리트가 아닌 사람, 예를 들어 수부(水手)들의 권

리는 어떻게 보장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점은 일본에서의 출국 절차와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가는 사람에 대한 신원 보증은, 견당사나 견명사와 같은 국가 사절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해졌지만, 개별 인원 한 명씩 이름 등을 증명했는가 하면, 솔직히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절의 간부가 상대국에 갔을 때 그러한 서류를 만들 수도 있지만, 보통의 자료는 ‘몇 명 왔다’ 정도 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원수를 파악했다고 해도, 개별 인원까지 파악했을 가능성에 대해 저는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거기까지 관리하는 기능은 전근대 국가에는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면 견당사나 견명사와 같은 국가 사절 외에는 어땠는가 하면, 아까 다뤘던 다자이후쿠젠(大宰府公驗)에는 배에 탄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연령까지 적혀 있지만, 이는 중국에 가는 스님과 그 수행자에만 해당합니다. 승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시대 승선은 모두 ‘저 쪽 사람이 되는 일’ 이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외국을 잇는 배는 모두 외국 배였고, 일본 무역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배가 일본에 와서 돌아가는 것뿐이니, 승선에 관해 일본 정부는 어떤 것도 보증할 일이 없었습니다. 일본인도 선원으로 배를 타는 일이 가마쿠라 시대에 도래하지만, 이때쯤 일본은 외국과 왕래를 관리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 완전히 방치합니다. 요약하자면 승선 관리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승선자들이 외국에서 자력으로 뭇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시대, 송원 시대의 실태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국내에서의 이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무역선 선원들은 항구 주변 밖으로 움직이지 않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견당사나 견명사의 본대는 중국 국내로 이동했으니, 상륙한 뒤 어디까지 가는지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들을 실은 선원은 항구에 머무르면 됐기에 특별히 거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근대 중국 국내를 이동하는 일본인은 원칙적으로 견당사·견명사와 승려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다룬 것처럼 중국 국내를 이동할 필요가 있던 승려들은 중국 국내 이동을 허락받기 위한 신분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중세가 되면 일본의 국가는 그와 같은 것을 만들 의지가 없어서, 승려가 멋대로 위조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시대가 지난 뒤, 17세기가 되면 주인선(朱印船) 무역이 시작되고, 에도 막부가 동남아시아에 가고자 하는 상인에게 발행합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들만이 해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항하는 곳에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막부가 허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본을 나가기 위한 허가증에 지나지 않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기능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일본에 와 있던 중국 상인도 동일합니다. 송대에는 송나라 상인이 중국에서 발행된 출항허가증을 가지고 일본에 오지만, 이는 일본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인이 중국에서 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이동에 있어서 복수의 국가가 서로 사람의 신분을 보증하는 것은, 견당사·견명사 등 국가 사절 이외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조선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세세한 규정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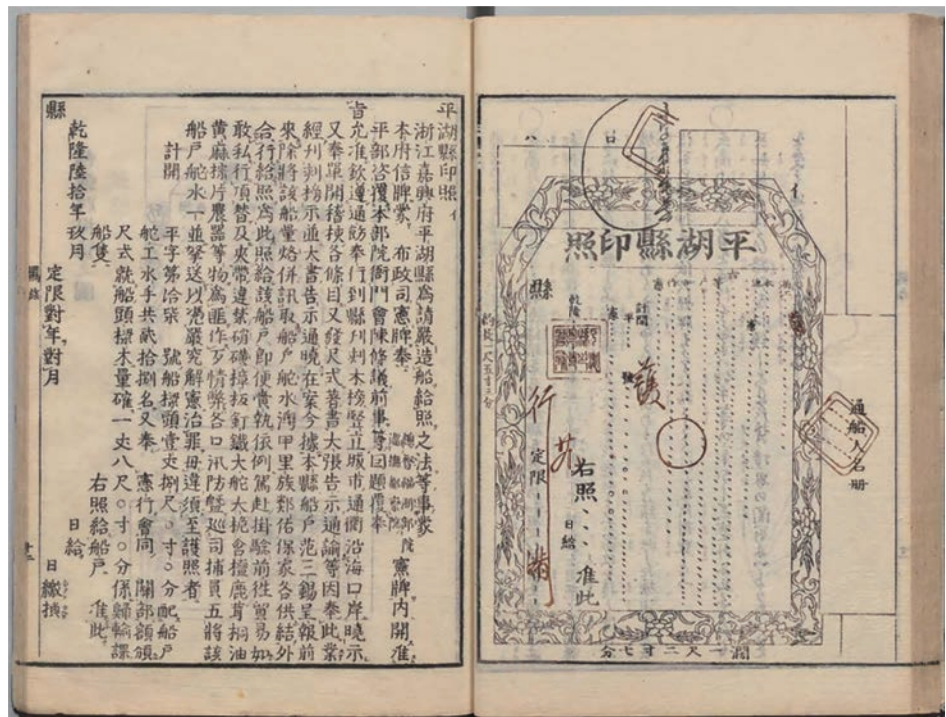
평 하오 에노모토 선생님, 감사합니다. 매우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추가로 더 공유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시간 문제로 죄송합니다. 아직 발언하지 못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요. 이 세션의 논의가 이미 중세에 접어들었지만, 명청 시대에 대해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근세 동아시아 국제무역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통행증이 존재했기 때문에 명청 때에는 더 많은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명나라에는 엄격한 해금(海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후기부터 해금이 완화되면서, 상인들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인들이 복건(福建), 장주(漳州)라는 곳에서 동남아시아로 도항하여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인들에게 ‘문인(文引)’이라는 통행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일종의 도항증명서로서, 문인이 없으면 무역을 위해 해외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문인은 장자 선생이 언급하신 대로, 국내에서 사용된 노인(路引)의 연장선에서 생겨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금이 실시되기 전에는 많은 통행증이 존재했지만, 해금 실행 기간에는 상인들의 해외 출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통행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금이 완화되고 나서, 문인이라는 통행증을 다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명조 후기의 문인 실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에 들어서면서 이 제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제 연구에 의하면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청나라 정부의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에서 오른쪽 상단에 『평호현인조(平湖縣印照)』라고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진 1). 즉 배가 완성되면 우선 배의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선인명책(通船人名冊)’에는 고용 선원의 이름도 등록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증명서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무역할

사진 1: 『평호현인조』 사본 (나카가와 타다히데 편 『청속기문』,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때 특별허가증명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이 증명서도 발급받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중일무역을 지원했는데, 중요한 목적은 동전의 원재료인 구리를 일본에서 수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무역에도 특별허가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증명서가 있으면 해외 도항 금지 품목인 실크 등의 상품을 반출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배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려면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신패(信牌)' 라는 증명서도 필요했습니다. 신패는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본은 중국 선박의 무역, 특히 밀무역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 상인을 대상으로 신패를 발행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도 언급했듯이 당시에도 가짜 문서가 있었지만, 이 공문서에는 할인(割印), 사본 등이 있어 진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중일무역 외에 광주(廣州) 지역 무역도 존재했습니다. 서양 상인들은 마카오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었지만, 광주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통행증을 가지고 있으면, 무역 성수기 동안만 광주로 통행이 허용되었습니다. 왼쪽 사진이 바로 마카오에서 광주로 가는 통행증입니다. 서양 무역선은 중국에서 무역하려면 세금을 내야 했는데, 오른쪽 사진이 바로 그 납세완료 증명서입니다(사진 생략). 배가 중국 다른 지역으로 갈 때, 현지 세관으로부터 이중 납부를 요구받으면 이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미 납세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청나라에는 여러 공문서가 있었지만, 현재 중국에 보존되어 있는 자료는 매우 적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일본 자료는 원문이 아닌 필사본입니다. 난파선이 표류하다 일본에 도착하니 현지 유학자들이 흥미를 느꼈는지 공문서를 필사했던 것입니다. 후에 이 자료들은 일본에서 간행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속기문(淸俗紀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증명서는 현재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두 공문서는 포르투갈의 토레 두툼보(Torre do Tombo)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것으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¹.

두 번째 세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세션과 관련된 주제이면서, 동시에 아직 논의할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젠더사, 여성사의 시각에서 논의가 덜 이루어진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사들의 대화에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닐라 회의에서 여성사 전문가로서 친왕 선생님이 많은 여성문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성문제는 사람의 이동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광주 무역의 경우, 저의 전문 영역인 명청 시대에는 교역을 위해 광주로 가는 상인의 여성 동반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마카오에는 머무를 수 있었지만, 광주에는 동행이 불가능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 나가사키 무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내 통행에 대해 아까 장지아 선생님이 노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본 중세 시기에는 통행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근세 이후부터 '오라이테가타(往来手形)' 라는 유명한 통행증이 출현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1 Auquivo Nacional Torre do Tombo - DigitArq (arquivos.pt) <https://digitarq.arquivos.pt/>.

동이 어려웠습니다. 여자의 경우 오라이테가타 이외 추가로 다른 통행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통행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뒷부분에서 친팡 선생님이 여성사 전문가로서, 여성의 시각에서 더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션에 ‘역병’이라는 주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에 선생님이 논점을 정리할 때도 언급해 주셨죠. 지난번 회의에서도 전염병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전염병은 현재 우리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침 이 분야 전문가인 이치카와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따가 이치카와 선생님의 코멘트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통행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중세 후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만연하면서,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기 시작하여 격리라는 최초의 방역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격리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현재의 백신여권과 같은 발상으로 ‘헬스 패스 (health pass)’ 라는 건강증명서가 출현합니다.

이것은 1630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발행된 헬스 패스로, 이탈리아 플라토 출신의 상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진 2). 안을 들여다보면 출신지나 생김새의 특징, 나이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인이 소지하고 있던 또 한 장의 통행증이 있는데, 이걸 볼로냐 위생국에서 발급받은 통행증입니다 (사진 3). 전염병이 만연할 때 격리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지만, 격리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감염 확대를 차단한다는 것에서 출발해, 어떻게 사람들의 이동을 질서정연하게 유지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반 세션을 통해, 이치카와 선생님께서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반 세션은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2시 45분에 종료 예정이었는데, 이미 2시 46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5분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선생님, 일본 시간으로 2시 50분에 다시 시작해도 괜찮겠지요? 그럼 전반 세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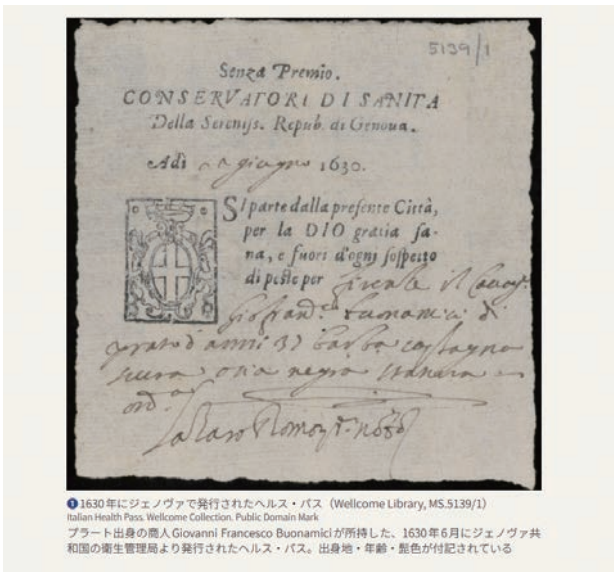


사진 2: 제노바의 헬스 패스



사진 3: 볼로냐의 헬스 패스

제 4 세션

자유토론 3

사회 : 정 순일 (고려대)

패널리스트 (국사대화프로젝트 참가자) :

이치카와 토모오 (오키나와국제대), 오카와 마코토 (주오대), 사토 유키 (릿쿄대), 히라야마 노보루 (가나가와대), 아사노 도요미 (와세다대), 심 철기 (연세대), 남 기현 (독립기념관), 김 경태 (전남대), 왕 야오쩐 (톈진외국어대), 순 찌치앙 (쑤저우대)

총괄 : 송 즈응 (난카이대), 미타니 히로시 (도쿄대 명예교수)

폐회인사 : 조 광 (고려대 명예교수)

[발언은 모국어]



정 순일 약속된 2시 50분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한국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정순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자이신 평하오 선생님께서 미니 렉처라고 해야 할까요, 상세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 번째 세션은 제 얘기보다 오늘 참여하신 패널리스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이끌어 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 평하오 선생님께서 상당히 많은 과제를 네 번째 세션으로 넘겨주셨습니다. 성별, 여성사, 전염병, 헬스 패스포트, 건강 증명서 등등 여러 가지 과제를 넘겨주셨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네 번째 세션에서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때까지 논의되었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패널리스트 선생님 가운데 발언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짧게 하셨던 선생님들에게 우선권을 드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 오카와 선생님과 사토 유키 선생님께서 미리 올려주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히라야마 선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도 100%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어쨌습니까? 순서를 사회자가 지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채팅에 올라온 순서대로 오카와 선생님, 사토 선생님 순서대로 우선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언하시고자 하는 분은 거수 표시를 미리 해두시면 제가 순서를

미리 봐 가면서 시간 배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발언하시는 선생님은 짧게는 2분, 아무리 많아도 5분 이내에 일단 한번 끊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요. 오카와 선생님 첫 번째, 사토 선생님 두 번째 순서로 부탁드립니다.

오카와 마코토 일본 추오대 오카와 마코토입니다. 이번 주제인 ‘사람의 이동과 경계·권력·민족’에 관해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소재 삼아 코멘트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 전문은 일본정치사상사 연구로 영화사 연구자는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화는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 원작으로 1955년 공개된 나루세 미키오(成瀬巳喜男) 감독 작품 ‘부운(浮雲)’입니다. 나루세 미키오 작품은 전부 좋아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다카미네 히데코(高峰秀子)의 연기에 압도됩니다. ‘부운’은 전반에 농림성 타자수였던 주인공 유키코가 새로운 생활을 찾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仏印,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를 합친 지역)’로 1943년 건너가 농림성 기술관 도미오카에게 반해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는 당시 일본인에게 인기가 높은 이주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품에서도 사이공과 프놈펜은 ‘오아시스’로 표현됩니다. 배경에는 일본 본토의 실업문제가 있었고, 저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웠던 일본인은 제국주의적 팽창 의도에 맞춰 더 질 높은 생활을 찾아 해외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진출한 민간 일본인에게 국가주의, 민족주의적인 의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전채와 메인이 세트가 된 요리, 차가운 맥주, 와인, 커피를 마음껏 즐기고자 하는 욕망이 늘 표면화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 나은 의식주를 원하는 소박한 소망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제국주의적 해외 침략을 떠받쳤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오전 중에도 논의된 국가적 목적과 개인의 동기 사이 관계론의 규명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에 논의되지 않은 젠더와 같은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부운’에서 과묵한 도미오카는 본토에서 기다리는 아내, 구니코를 생각하며 유키코, 현지 하녀 니우와도 관계를 가져 니우를 임신시킵니다. 그러나 니우는 원망도 하지 않은 채 시골로 귀향합니다. 여기에 제국주의 문제가 단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국과 식민지·점령지와의 뚜렷한 비대칭성은 처자식을 본토에 남기고 제국에서 이동해온 남성이, 식민지·점령지에서 현지 여성을 정부로 삼아 혼혈아를 남기고 가는 사례는 일본에 한정되지 않고 적지 않게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남성과 여성의 비대칭성은 제국과 식민지·점령지와의 유사적(相似的)이자 기하학적 문제(geometrical problems)로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 순일 네, 오카와 선생님,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뒤 이어서 사토 유키 선생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사토 유키 일본 릿쿄대학 사토 유키라고 합니다. 오늘 대단히 자극적인 논의에 참가할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 코멘트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람의 이동을 생각할 경우, 현대에도 노동력 이전이라는 점이 중요한데, 전근대라면 이것이 노예무역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현대 노동이전에 관해서도 아까 ‘중동태’ 문제에서, 정말로 자발적인가, 혹은 자발인가, 강제인가라는 양자택일의 한계가 논의되었는데, 현대의 노동력 이전도 실질적으로는 인신매매로 문제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현대로 얘기를 돌리면 일본의 경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바테렌 추방령(1587년, 역주: 예수회 선교사 추방)에서 도요토미는 일본에 대해 “신의 나라”라고 하며, 기독교 선교사들이 일본인을 노예로서 해외에 끌고 가는 것을 문제시합니다. 여기에서 노예를 문제시한 것은 인권의식보다 나라의 체면을 의식한 결과라 생각되는데, 누구를 노예로 삼을지, 어떤 사람들이라면 노예로 삼아도 되는지, 혹은 노예적인 신분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방할지, 이 같은 모습에는 그 시대 나름의 민족 의식이나 종교의 문제(이교도인지 등의 구별 포함)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권과 주권국가의 관계가 논점이 됐습니다만, 노예 노동을 둘러싸고 ‘자신들’과 ‘그 외’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전근대(혹은 현재에도) 국가의 식·민족의식을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현재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이 노예 문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논의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일본계 이민이나 중국계 이민 등이 주한 곳에서 정체성을 지키는 사례가 다수 논의되었는데, 인류사에서 사람의 이주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이주한 사회에 동화하거나 이주한 곳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국사’에서 과거의 이주의 ‘망각’이라는 히라야마 선생님의 지적과도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이주한 곳에서 다른 에스닉 사이 혼인이 이뤄진 경우에 대한 말씀은 없었지만, 다양한 이주처에서 다른 에스닉 그룹의 사람과 결혼하고, 혼혈인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동화·융합이 이뤄지지 않고 단일 에스닉 그룹으로 정체성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오히려 적은 것은 아닐까) 느꼈습니다. 이주처의 사회 구조(이주자에 대한 차별 등)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일인지, 혹은 일본계 이민이나 중국계 이민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해 감으로써 뭔가 주체적인 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될지를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전근대에는 노예와 함께 종교적 동기에 의한 이동이 사료상 잘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순례기 등). 사람들의 순례나 이동처에서의 정주를 지탱하는 신앙자 네트워크, 이러한 종교의 역할을 생각할 때,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보편적 메시지를 가진 세계종교가 종종 문제시됩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종교의 움직임에 대해 신도나 지역 종교가, 사람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문화 융합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일본 전근대에는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불교와 신도를 ‘습합(習合, 융합)’시킨 ‘신불습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종교 의식은 중층적이고, 보편적 종교와 토착 종교가 항상 모순,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고, 여기에서 사람들의 이동 양상이나, 어떻게 정체성이 지켜졌는지, 혹은 변용해 갔는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세션에서 논

의된 여권 문제도 궁금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순일 네, 사토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토 유키 선생님께 패스포트, 통행증 문제에 대해 짧게나마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마침 사토 유키 선생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가운데 마지막이 종교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아까 종교 문제에 관해 코멘트가 있긴 했습니다만, 히라야마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조금 더 추가적인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라야마 노보루 방금 종교에 관해 코멘트했습니다만, 다른 코멘트 하나를 더 준비해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코멘트는 “국사(내셔널 히스토리)는 사람의 이동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라는 시오데 선생님의 중대한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국사’에서 잊힌 ‘이주·이동’의 역사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원 선생님과 장지아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몽골 제국과 명나라 강제이동처럼 실은 ‘일본’ 안에서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앙정권이 주변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이동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쿄도 하치오지시에서 약 1200년 전 유적이 발굴됐던 때, 여기서 발견된 토기는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도호쿠(東北) 지방 것과 같은 특징을 가졌습니다. 당시 중앙정부는 도호쿠에 살던 ‘에미시(蝦夷)’들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각지에 강제이주시켰는데, 이 토기는 그들이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역사는 완전히 잊힌 상황이지만, 실은 이 지역에 현재도 도호쿠 지방 방언과 꼭 닮은 말이 남아 있어서 도호쿠 지방 사람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아직 생존자가 있는 근현대사에서도 완전히 잊힌 ‘이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 전 일본에는 만몽개척민(滿蒙開拓民)으로 대륙에 건너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패전으로 내지에 귀환해 정부의 긴급개척사업으로 지급된 가난한 토지에서 다시금 개척에 도전하지만, 많은 경우 잘 되지 않았고, 원전 건설을 진행하는 정부가 토지를 매수해 다시 땅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실제로는 일본 내에 있었음에도 현대 일본사회 안에서 잊혔고, 학교 수업에서도 다루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의 우리들이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도 전근대까지 시야를 넓혀 역사를 거슬러가면 다양한 ‘이주·이동’의 역사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동의 역사의 망각’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동이 있었다”라는 전문가의 역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동이 있었…는데 잊혀 버린 것은 왜인가?”라는 역사의 서술 방식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앞선 2가지에 대해 저희들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도 공유할 것으로 ‘자신의 선조들도 어쩌면?’이라는 당사자로서의 상상력을 갖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에 대해 보충하자면, 한성민 선생님 말씀대로 제국 일본에 의한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한일양국이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자기 혹은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 똑같은 입장이 된다면?’이라는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라’ 역사 속에서도 ‘원치 않는 이동’을 강요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돼, 어쩌면 자신의 조상도 고난을 경험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을 사회에서 넓게 공유할 수 있다면 조금은 갈등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또 하나의 코멘트입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에 대해 제가 최근 깨달은 것인데요, 일본이 대외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외국과 대립이 심화됐을 때 불교가 공격받는 일이 막부말기(에도시대 말기)와 쇼와시대 두 번 일어났습니다. 일본 종교로 완전히 토착화한 것으로 보였지만, 외국과 대립이 깊어져 내셔널한 감정이 달아오르면 갑작스럽게 떠올려진 것처럼 ‘그러고보니 불교라는 것은 인도와 중국에서 온 외국 종교 아닌가’라는 논의가 분출합니다. 불교는 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는 종교인데, 특별한 일이 생길 때 내셔널한 대립에 휘말리게 되는 것에 대해 향후 좀 더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 코멘트는 이상입니다.

정 순일 네, 히라야마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종교문제는 그 앞에 발언해 주셨던 사토 유키 선생님의 세 번째 문제의식과 연결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코멘트 해주셨던 강제동원 문제랄까요,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강제 동원 문제는 아까 사토 유키 선생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문제, 노예무역,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동 문제와 연결이 되고, 아까 지정 토론자이신 한성민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이른바 ‘강제동원’ 등 여러가지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근대의 경우에도 김경태 선생님이 연구하시는 임진왜란, 임진전쟁시기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혹은 이동한 피로인 문제가 상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 김경태 선생님께 코멘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기현 선생님께서 코멘트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 기현 안녕하세요, 남기현입니다.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오데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여러 가지 규범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오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와이 일본계 주민, 중국계 주민의 복잡한 관계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던 것이 무엇이나면, 전세션에서 류지에 선생님이 말씀 해주신 것과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주민, 이주자, 이런 사람들이 이동한 이후에 현지와의 관계, 역할, 대립, 모순, 이런 여러 양상들이 중첩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식민지가 된 전후에, 일본으로 이주한 상황은 한성민 선생님께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 반대의 양상도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식민지 조선으로 넘어오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조선총독부나 일본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업 농장을 건설한다든가, 총독부의 관리로 임용돼서 오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본인으로서 살면서 주목되는 점은 한국인들과 접합을 하면서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국적과 민족이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면서 일본의 정책과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서는 모

습을 보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이주자의 다음 세대에 의해서 더 차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거주하던 일본인 2세대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생각이 그 전세대와 확연하게 달라지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러한 국가와 민족이 거주하는 과정에서,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특히 그렇다면 이주했던 사람들, 이동했던 사람들의 자손들, 2세대들은 과연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민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그들에게 과연 국가, 민족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순일 네, 남기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코멘트는 예를 들면, 이른바 자이니치 문제라든지, 일본 내에 있는 일본계 브라질인 문제와도 링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중국의 국사에서는 이런 이동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청해 듣고 싶은데, 마침 근현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왕야오젠 선생님이나 쑨찌치앙 선생님이 혹시 재석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왕 선생님 혹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때까지 논의와 관련해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왕 야오젠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진외국어대 왕야오젠이라고 합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는 이민, 그리고 사람의 이동인데, 그동안의 제 연구와 연관이 있어서 세미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 박사논문 주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는 ‘근대 일본상업회의소의 대중 경제조사’에 관련한 것입니다. 오늘은 제 두 가지 과제와 근대 중일 간 인적교류, 이동 문제의 관련성에 대해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근대 일본상업회의소의 대중 경제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조사가 생겨났을까요? 아마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많은 인원이 중국에 들어와 통상과 무역에 종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이동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 일본상업회의소의 대중 경제조사 수요가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 현재 연구 주제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상업회의소가 중국에서 진행한 경제조사 활동을 ‘사람의 이동, 인적 교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근대 이래 일본의 대중국 이민에 대해서는 방금 어떤 학자분이 만주 개척민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청일전쟁 이후 일본 이민자가 이미 생겨났었지요.

여기 통계 데이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는 제 박사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입니다. 청일전쟁 이후, 1898년 텐진의 일본인, 혹은 일본 거주민(居留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52명이었습니다. 1926년에는 5664명, 그리고 1930년에는 66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텐진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상하이 지역은 어땠을까요? 1935년 시점에 상하이 일본거류민은 2만 7299명이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재중 일본 교민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이동, 즉 일본 교민이 대거 유입되고 있던 상황이 바로 일본상업회의소의 대중국 조사활동 수요를 탄생시킨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

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오늘 회의 주제가 저에게 준 하나의 힌트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느 학자분이 오전 기조연설 중에 일본제품 거부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일본제품은 근대 중일 간 인적교류에서 하나의 키워드, 매개체로 기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은 국경, 종족, 주권 등 요인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본 제품은 중일 민간관계의 징표, 혹은 민간항쟁, 즉 중국 민중의 대일항쟁에 있어서 하나의 대상물로서 속성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제품은 일본인의 신분적 라벨,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가적 기호의 연장선, 또는 일본인 이민 집단을 표상하는 하나의 기호화된 존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제품 불매 문제를 고민할 때, 일본제품과 일본인 이민자 집단 사이 관계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이 이번 회의 주제가 저에게 준 또 하나의 힌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 일본 교민이 중국에서 종사한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계에서 주로 논의하고 있는 점은 이들이 어떻게 중국에서 경제침략을 단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깊이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교민의 중국 진출이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교류를 촉진했고, 또한 그들의 경제활동이 중국의 민간참여와 경제교류 의식을 강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상인단체가 1926년 일본을 방문하는데, 이는 일본 교민과 일본제품이 대거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촉발된 결과였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민간참여와 대외경제교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은 바로 일본인들의 중국 활동이 미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의의였던 것이지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일 네, 왕 선생님 감사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국에서 전개된 일본 거류민들의 활동,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쑨 찰치앙 선생님 목소리 들리시는지요? 네, 부탁드립니다.

쑨 찰치앙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염병 유행 때문에 우리의 이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회의 주제가 ‘사람의 이동’ 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생님의 발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방금 여러 분 동북이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느 선생님께서 자발성과 강제성이라는 각도에서 봤을 때, 동북이민은 강제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북이민이 강제성을 띤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제성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자발성도 띠고 있었습니다. 1936년 일본이 동북이민회의를 열었을 때, 100만 명 만주 농업이민계획을 제정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추진은 국책이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국민의 참여를 강제했다기보다 일종의 동원 형식을 거쳤다고 봅니다. 가령 국가와 지방정부의 호소, 혹은 매체의 선전과 동원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매체의 동원은 매우 큰 기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 것은, 아무래도 이민자 본인의 주관적 결정, 그리고 나중의 이익 구조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주로의 이민은 강제성과 자발성을 모두 갖고 있었고, 또 만주 이민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 본인이 이러한 이민정책 혹은 동북에서 추진한 식민정책의 참여자임과 동시에 집행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주관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스로 이러한 이민 활동과정에 참여했고, 이는 일정한 이데올로기 이식과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주이민은 일본의 만주 식민정책과 한데 얽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성과 피동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만주이민을 정의하는 것이 좀 더 과학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의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 순일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이동의 자발성, 비자발성 문제에 대해서 만주 이민과 관련해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부탁드렸던 김경태 선생님 코멘트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 경태 한국 전남대학교 김경태입니다.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진왜란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들의 이동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잡혀간 사람들을 자국으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전쟁포로일 수도 있고, 잔류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도한 나라도 있고, 하지 않은 나라도 있었죠. 한편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강한 국가의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너는 애국자이냐 아니냐’ 를 검증하기도 하죠. 이 또한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발로인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현대뿐만 아니라 전근대에도 있었습니다. 아까 정순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당시에도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 끌려 갔고, 끌려간 조선인들이 도자기라든지, 유교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은 한국 교과서에서 아주 유명하게 다뤄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끌려간 사람들을 조선에 데리고 오는 작업들도 이뤄집니다. 조선은 예도 막부와 교섭해 많은 이들을 송환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대적 국가주의에 의거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국왕의 자식들과 같다’ 는 유교적인 이념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한국 역사에서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이 정작 이렇게 한반도로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대해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근대 사례를 통해서 전쟁 이후 자국민을 데려오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만약 다른 나라에서 시도가 있었다면 어떤 면에서 시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순일 네, 김경태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던져주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오늘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잠시 후에 송쯔용 선생님과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의 총괄 코멘트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두 분 선생님께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치카와 선생님께 제가 미리 채팅창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치카와 토모오 오키나와국제대 이치카와 토모오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 회의에서 전염병의 역사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람의 이동과 전염병의 문제는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점에 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히라야마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불교 배척의 얘기입니다. 저 자신은 일본 근대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 강의에서 고고(考古), 고대에서 현대까지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실은 고대 일본의 오래된 문헌에 나오는 질병 관련 기술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 자주 접하는 것이 불교의 일본 전래와 천연두 유행이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를 일본에 보급했더니 전염병이 유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대량 이동이나, 이에 수반하는 지식이나 기술의 이동이라는 것이 배경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서기』에는 ‘천연두의 일본 내 유행은 불교를 들여왔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절이나 불상을 전부 태워버렸다는 기술이 가장 먼저(역주: 552년) 나옵니다. 그 뒤 불교의 힘으로 천연두를 진정시키기 위해, 완전히 반대의 발상으로 전환되는 것이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히라야마 선생님, 정말로 흥미로운 얘기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제 전문에 가까운 얘기입니다만, 시오테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이동은 무엇을 일으키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현대에 이동이 전염병 확산을 일으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저와 같이 오키나와에 있으면 이곳은 ‘섬 사회’ 이기에 이동과 전염병은 하나의 세트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에서는 과거에 전쟁과 말라리아의 문제, 현재 관광산업과 코로나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염병 대책은 사람의 이동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와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발표했던 것이 해양검역(海港檢疫)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사람의 이동제한을 어떻게 국가가 행할지의 측면일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코로나 문제를 보면 상당히 역사성이랄지, 역사적으로 유사한 일이 있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아직 중국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한돼 있는 단계에서, 일본 정부는 우한에 있는 일본인을 비행기로 귀국시켰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다소의 놀라움과 함께 뉴스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어떤 전염병이 유행했다고 하여, 그 지역의 자국민만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는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염병 예방보다 자국민 보호를 우선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종의 재해 시 긴급원조에 가까운 형태로 비쳤습니다. 어찌면 몇 십년 전, 혹은 제가 조사하고 있는 메이지 시대와 현재 일본에서, 국가에 의한 사람의 이동 제한에 관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오늘 참가자분들 각각의 나라에 따라 사고방식이 다소 다르거나 혹은 일본과 유사한 것을 상정하고 실행한 나라도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 속에서 자신이 국가를 어떻게 다룰지와 이동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 순일 네, 이치카와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13분 정도 남겼습니다. 아까 사토 유키 선생님이 통행증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걸 1-2분 정도로 가능할까요? 우선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사토 유키 방금 에노모토 선생님 코멘트에서 세키쇼 통행면제증에 관해 중세 일본 국내에서 발급된 것이 소개되었는데, ‘국내’ 라 해도 면허증을 발급한 정권이 세키쇼를 관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권위’ 로서 통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세 천황은 편력하는 직인(職人) 등에게 통행면허장을 발급했으나 중세 천황이 국내를 통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 역주: 역사학자)가 소개한 것으로, 일본 중세 직인에는 ‘이조(異朝)의 증문(証文)’, 즉 외국 정권의 문서로 이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듯합니다.

또한 태국 산악민 중에는 남송 황제에게 산악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았다는 유서(아마도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 같지만)의 존재를 주장하는 문서(‘평황권첩(評皇券牒)’)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세 일본이나 태국 산악지역도 ‘국가’ 지배가 강고하지 않은 지역(최근에는 ‘조미아’로 주목되고 있습니다)이기 는 하지만, 오히려 국가관리가 강고한 지역·시대가 보편적이지 않다고 본다면, 전근대 이동의 형태를 생각할 때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종교나 권위를 이용한 이동 보장 체계의 한 형태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 순일 네, 사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까 논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젠더 문제에 대해 몇몇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젠더와 사람의 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팡 선생님께 갑작스럽지만 코멘트를 짧게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 2분 이내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친 팡 알겠습니다.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단 영상은 꺼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젠더가 근대의 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식민지화 과정에서, 가령 영국의 인도 식민지화 과정에서, 영국의 여성들이 오기 전까지 영국 남성과 현지 여성과의 관계가 사실 그러했습니다. 현지 여성들은 일종의 대체자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백인 여성들이 점차 식민지 혹은 점령지역에 유입되면서 현지의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도 아주 복잡한 관계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젠더의 관점을 반드시 근대적인 국가, 이민을 바라보는 시각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입각해서 젠더 분석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순일 네, 친팡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논의와 관련해서 선생님들 자유롭게 말씀하시는데 30초 내지 1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카와 선생님이 오래 기다려 주셔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시오데 선생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카와 마코토 종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오늘 불교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다 이카21개조 요구’ (對華21ヶ条, 역주: 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 1월 일본이 중국에 대해 만주와 몽골의 권익문제와 현지 일본인의 법익보호문제를 요구한 내용)를 생각해 보면 불교계가 이주한 일본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 진출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와 정치, 거주자의 안심감과의 관계론이랄지, 그곳에서의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생각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 순일 네, 오카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오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시오데 히로유키 질문을 드리자면 특히 한 선생님 말씀이었나요? 한국사, 조선사를 하시는 분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중국으로의 이주가, 근세에서 18세기 전반 정도까지 활발해지는데, 이에 대해 조선의 왕권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요? 그리고 하나 더, 국경관리에 대해 청나라와의 국경은 어떻게 관리됐고 중국 측은 이를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 조선의 이동의 자유, 부자유에 대해 여쭙보고자 합니다.

정 순일 한성민 선생님, 답변 섞으셔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한성민 제가 초점을 뒀던 건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주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대체적인 사람들이 약자라는 것이죠. 그게 식민통치를 받는 입장에서 이주를 하건, 식민통치를 하는 입장에서 이주를 하건, 그 이주를 대규모로 조성하는 상황은 국가이익의 최첨단에 있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약자들 간의 갈등이 극심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과 일본에서 ‘만주 이주 붐’이 일어납니다. 당시 만주는 꿈이 있고 낭만이 있는 지역으로 묘사되지만 막상 갔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그 사회에서 약자였던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들을 민족, 국가라는 것에서 떠나서 생각할 때 갈등이 풀어질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도의 문제는 저보다 김경태 선생님이 나을지 모르겠는데요, 당시에 간도는 청나라에서 ‘봉금지역’이었습니다. 청나라의 발상지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는 계속적으로 대기근인데, 압록강, 두만강 너머는 상대적으로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넘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 갑자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제국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 나라를 통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명분이 당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신라시

대에서 한국 통일을 다시 끌고 와서, ‘삼한일통의 대한제국’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제국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 간도 개척, 간도를 영토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근거 중에 하나는 한국사회에서 가끔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백두산에 있는 중국과 한국의 영토를 구분하는 ‘정계비’ 에서 얘기하는 ‘도문강’ 의 위치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 중국과도 논의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얽혀 있어서 간도 문제가 됐고 과거에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은 자기 지역 사회를 크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호패 검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보다 김경태 선생님이 더 자세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순일 네, 한성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시오데 선생님.

시오데 히로유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사 속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어떻게 다뤄졌는지에 대해, 중국에 대해서는 류지에 선생님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어떤지, 어떤 분이라도 괜찮으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순일 김경태 선생님이 역사교육과에 근무하고 계셔서, 한국 역사 교과서, 즉 자국사 교과서에서 사람들의 국제 이동, 사람들의 이동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즉 사람의 국제 이동이 국사에서 다뤄지지 않는 건지, 국사로서 다뤄지지 않는 것인지,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부탁드립니다.

김경태 제가 정확히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고대사는 정순일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동하는 사람에 주목했다고 하기보다는 근세, 중세 이후는 아무래도 국사의 입장이겠지요? 한국인들이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왔는지에 보다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일 네,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면 한국의 국사 교과서에서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온 이민에 대해, 한국이 사람들과 문화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부분이 강조되고, 또 한국인이 해외로 나간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해외에서도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한국 문화를 지키면서 잘 살아갔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도 지금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실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느덧 약속된 자유토론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쯔용 선생님, 미타니 선생님 순서대로 총괄 코멘트를 10분 정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총괄

■ **쏟** **쓰음**

오늘 제6회 한국·일본·중국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사람의 이동과 경계·권력·민족’을 주제로 한 회의는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과 비교하면, 이번 테마는 보다 선명하고,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회의의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 의의가 있으며, 또한 매우 복잡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동과 경계·권력·민족의 관계는, 여러 나라의 국내 인구 이동만이 아니라 국제 인구 이동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회의가 이런 형식을 취한 이유 또한 우리가 현재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동을 제한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고대부터 현대에 걸쳐 폭넓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론적인 문제도 있었고, 구체적인 사실 고증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세에서 근대에 걸쳐 국경을 초월한 인구 이동과 쇄국 및 개국이라는 국가정책과의 관계, 인구 이동과 인권의 문제, 호적 제도, 고대의 통행증, 근대 여권 등과 인구 이동의 관계, 자발적 이민과 식민지 이민을 대표로 하는 강제 이민의 관계, 사람과 국가, 국민, 제국, 근대화 등 요소와 인구 이동의 관계라는 문제 등이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역사학이나 정치학, 법학 등 분야를 초월하는 학제적인 탐구로서 매우 중요한 학술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보고와 토론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 이동은 동아시아 삼국에서 모두 발생합니다.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또 제각각 고유한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급한 것처럼 전쟁과 권력(정치), 경제는 인구 이동의 주요인이며, 또한 문화·종교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세 국가의 내부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에서도 구현되고 있습니다. 고대에도 일어났고 근대, 나아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 선생님들이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셋째, 인구 이동의 결과와 그 영향에 대해 언급한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민이 현지에 초래한 영향은 경제나 정치, 문화 등 많은 측면에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민은 그들의 고향, 조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예로 들면, 화교는 1980년 이래 중국의 개혁 개방이라는 국책 제정 및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면에서는 중국의 대외 개방에 영향을 주었고, 경제면에서는 국내 투자를 대량으로 유치했으며, 교육면에서는 대량의 유학생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촉진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교들이 중국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면 개혁개방 정책도 오늘날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민과 조국의 관계, 그들의 조국 의식, 이민과 출신지와와의 관계 및 그 출신지 의식도 중시해야 한다고 언급한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시오데 선생님도 하와

이에서 출신지 오키나와를 단위로 한 일본인의 이민 활동과 이러한 해외에서의 활동이 오키나와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쿠보 다케하루 선생님도 한중일 삼국의 남양에 대한 공통 인식을 언급했고, 남양이민관에 대한 비교도 매우 의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중국의 한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이민 상황에 대해서는 푸단대 장지아 선생님이 이미 여러모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이민 사례는, 중국 동남 지역 중국인의 남양(동남아)으로의 이민, 산둥에서 동북으로의 이민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산둥에서 동북으로의 인구 이동은 동북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산둥의 인구 과잉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산둥으로부터의 이민은 ‘황관동(關關東)’이라 불리며, 중국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를 보면 청나라 때부터 중화민국 시대에 걸쳐 약 2000만 명이 동북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전시 일본의 ‘국책이민’은 동북으로의 이민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해당 시기에만 국한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의 동북 이민이 미친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죠.

아까도 언급했듯이, 청나라 때부터 중화민국 시기까지만 해도 2000만 명 규모의 이민이 발생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에도 동북으로의 이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전후 정책 이민으로 한국전쟁 후 중국인민지원군 참전자 상당수가 동북에 남아 지역개발에 종사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대혁명 기간 중 ‘상산하향(上山下乡)’ 운동을 통해 많은 지식청년이 동북으로 건너가 개발 활동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 이민은 동북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요즘엔 새로운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지, 산둥 등의 지역에서 동북쪽으로 이민을 갔지만, 지금은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 내지의 경제가 급속한 발전을 이룬 데 반해, 동북 지방의 경제 발전은 그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북 인구가 내지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산둥에서 동북으로 이민을 갔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시 동북에서 산둥으로 이동합니다. 산둥의 경제상황과 생활수준이 동북쪽보다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일종의 ‘역류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이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사례이며, 앞으로의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저의 소견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순일 네, 송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타니 선생님께서 종괄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미타니 히로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매우 충실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져서, 사실 저는 상당히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환경이 상당히 엄혹합니다. 이는 코로나 탓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삼국이 상당히 관계가 안 좋은 것에도 기인합니다. 국내만을 봐도 이 삼국 사람들

은 서로 적이 아닌가 하고 전세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같은 굉장히 학술적이고, 그에 더해 삼국 전체를 아우르는 회의를 열고 훌륭하게 마무리 지은 것은 대단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온 몇 차례 성과가 여기에서도 발휘되지 않았나 싶고, 이것을 더욱 넓혀갔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나 중요한 주제가 거론되었지만, 맨 먼저 다뤄진 ‘이동의 원인’ 문제에 대해서는 감탄했습니다. 이동의 원인에는 강제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 원인, 경제적 원인, 그리고 중간적인 것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사를 하는 입장에서 강제적인 것이 과연 있었는가 하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에도시대 초기 다이묘가 이동하게 된 것은 회사가 이동한 것과 같은 일로, 주민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강제적 이동이라는 것은 가까운 시대의 일본사를 할 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이 지배한 시대 한반도에서 강제적으로 일본에 이동하게 된 사람도 있었지만, 이는 일본인 사이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쯤 고대 에미시, 북방 사람들이 간토 지방에 이주하게 된 것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다는 얘기를 듣고 “아아, 그랬구나” 라고 감탄하며 일본도 외국과 닮은 시대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수확입니다.

두 번째는 통행증 문제에 대해 상세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경 관리라는 점에서 보면, 오늘 주제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래 전부터 있었고,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몇 명 선생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학문적으로 큰 수확이었습니다. 다만 불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여권이 대체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부터 전세계 인류가 이에 지배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아마도 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컨대 반강제와 같은 형태로 전세계 사람들이 따르게 됐을 텐데,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아마 이 정도로 강제하고 있는 이상 뭔가 조약이 있을 텐데, 이 지점에 대해 통행증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금 살펴본 지식으로는 칼 마르크스가 1848년 혁명 소동으로 유럽에서 내몰렸던 때 영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당시 여권 제도가 없었기에 이런 위험한 인물을 영국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당당히 대영박물관에서 학문을 쌓고, 거대한 저작을 몇 편이나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목가적인 시대가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동아시아는 예전부터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도 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동아시아에 관해 여러분들이 모두 훌륭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전세계를 향해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동아시아만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아깝지 않나 싶습니다. 동일하게 아시아에서도 러시아, 예를 들면 한반도에서 러시아로의 이주자가 19세기 전반에는 나타납니다. 상당한 숫자의 사람이 갔습니다. 물론 오늘도 다소 얘기는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중국으로부터 동남아시아로의 이주자도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삼국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넓혀서 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연구하면 그 나름의 성과가 있을 테니, 가능한 한 공동논문집과 같은 것을 언젠가 출판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듣고 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오늘 몇 가지 그다지 다루지지 않은 문

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류지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부 겹치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 하이브리드 문제입니다. 이는 마이너스적인 측면만 보이기 십상이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명한 가파(GAFA, 역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4개사와 마이크로소프트 가운데 최고경영자 두 사람은 인도계 미국 이민자입니다. 이렇게 경영의 세계에서 하이브리드적인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문의 세계도 그러하고, 스포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즉 출신이 중요치 않고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세계에서는 이민의 역할이 대단히 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이브리드적이 되니 능숙하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지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바로 따돌림을 당했다든지 하는 어두운 얘기가 많고, 물론 이 역시 제대로 연구해야 하겠지만, 양 측면을 모두 제대로 보는 편이 나올 것입니다. 이는 향후 커다란 과제로서 여러분들이 연구해주실 것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주에 수반해 일어나는 마찰의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몇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동아시아 삼국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서로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것을 지적하고 그 이상은 논의하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연구로서 혹은 각각의 사회를 향해 말하는 경우,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니 향후 좀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간에는 이 문제를 다룬 책이 다수 간행되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다소 적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충실한 회의였습니다. 저와 같은 연배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다음 세대는 역시나 훌륭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세대가 도저히 생각지 못했던 주제를 다루고, 제대로 자료를 보면서 연구, 발표해 주셨습니다. 동아시아 역사학계의 장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모두 자신의 얘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회자나 오거나이저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사회자 선생님들께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처럼 오늘과 같이 좋은 회의를 열고 좋은 친구를 만났으니, 향후에도 부디 국경을 넘어 공동연구를 이어 가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공동 논문집을 낼 수 있다면 가장 좋고, 이러한 기회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연배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동시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쓰미재단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이 제 소감입니다.

정 순일 네, 미타니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 그대로 총괄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조광 선생님께서 폐회 인사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광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회인사

조 광 예, 조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쓰미재단은 ‘知的 공유공간’ 혹은 ‘知的 플랫폼’ 을 만들고, 이로부터 화해로 이어지는 지혜를 만들어 동아시아에 제공한다는 취지로 5년 전 2016년 9월부터 국사들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초 필리핀에서 열렸던 제4회 국사들의 대화는 코로나19가 성행하는 전염병의 시대에 전염병의 역사를 되돌아본 작업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전염병으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인해 이동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사람의 이동과 경계 · 권력 · 민족’ 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동’ 이 자유롭지 못한 오늘날의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매체를 통해 벽을 넘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온라인 회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6회 대회에는 한 사람의 발표에 대해서 두 명의 토론자를 배정해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이동’ 이었습니다. 터키 출신 영국인 모리스 파르히는 2006년에 발표된 그의 논문을 통해 “모든 역사는 이동/이주의 역사이다.” (All History is the History of Migration)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동을 본격적으로 역사적 주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엽 프랑스의 아날학과 연구자들에 의해서입니다.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 라고 하는 19세기 후반 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표현을 바꾸어 쓴 파르히의 이 표현은 일종의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파르히는 지금까지의 역사서술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어용’ 또는 ‘당파적’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 역사는 전쟁과 정복, 식민을 미화하고, 피점령자들의 문화를 주변화하며 저급하다고 강변되는 사람의 죽음에 쾌재를 부르짖었는데, 그는 이를 잘못된 역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참된 역사(true history)’ 로 야만적 탄압과 굴욕에 맞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써내려간 수많은 무명의 예수님의 역사들이라고 파르히는 얘기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이 무명의 예수님, 무명의 부처님, 무명의 예언자들은 가난과 핍박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옮겨간 ‘망명자요, 난민이요, 추방자이요, 이방인’ 과 같은 이주자들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이 참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오늘날 역사학계의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제6회 국사들의 대화가 표방한 공통의 주제는 매우 적절한 선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이동’ 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 시대에 걸쳐 존재했습니다. 오늘 전개된 각 세션의 대화에서 발표된 글들과 토론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양한 원인으로 야기된 이동은 문화와 인종의 만남을 통해 상호 변화를 이끌어냈다” 는 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이동은 서로의 다름 때문에 때로는 충돌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융합이 이루어지며 보다 넓고 깊은 그물망으로 짜인 공동체로 다시 직조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간의 이동에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이동도 수반됩니다. 하나 예를 들여보자면, 19세기 말엽부터 진행된 조선인들의 간도 이주를 통해 벼와 벼 농사의 북방 한계선이 올라갔습니다. 식물이 더 옮겨가고, 그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의 이동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공동체는 새로운 생태계의 그물망까지도 조성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순수하게 단일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이나 개인 그리고 문화가 없고, 개별자 안에 이미 세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세계 도처에서는 역사적 퇴보를 보여주는 듯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심화된 갈등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극복은 각 개별자 즉, 각각의 사람이나 나라, 문화 등 안에 녹아 들어 있는 다양한 ‘너’ 라고 하는 유전자가 공명을 일으켜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아(我, 나)와 비아(非我, 너)의 구분을 넘어 개별자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공동선(共同善)으로 하나가 되는 지구적 지성의 활동이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성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고 양심과 감성, 지성과 윤리의 촉각을 일깨워 지구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할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명과 변화의 가능성을 오늘 우리의 포럼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오늘의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술의 발달은 지리적 이동을 촉진시켜 주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의 빠른 확산과 이동에도 작용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동아시아 사회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전인류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운명공동체임을 깊이 인식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는 이 운명공동체가 단지 인간만의 공동체가 아닌 생태공동체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원인이 박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생태공동체임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인간과 문화, 자연과 우주의 그물망을 비춰준 발표자들과 토론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거듭 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독립된 개별자로서 서로 다른 물리적 좌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지구공동체의 공동선과 평화를 지향하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며 언제나 하나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열리게 될 제7회 국사들의 대화 포럼에서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를 넘어서 ‘위드아웃 코로나(without Corona)’ 의 상황에서, 아름다운 지구, 더욱 아름다운 대만에서, 서로가 이동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이 국사들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신 아쓰미재단의 이마니시 준코 상무이사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온라인 회의를 준비하는 데에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큰 감사들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시오데 히로유키 【塩出 浩之】 SHIODE Hiroyuki

교토대 대학원 문학연구과 교수. 전공은 일본근현대사, 일본정치사. 2004년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졸업, 박사(학술). 류큐대학 법문학부 준교수, 동대학 교수, 교토대 준교수를 거쳐 현직.

주요 저작: 『越境者の政治史: アジア太平洋における日本人の移民と植民』(名古屋大学出版会, 2015년) 등.

■ 조원 【趙 阮】 CHO Won

한양대 사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중국 중앙민족대학에서 16세기 몽골 연구로 석사학위(2006)를 받았으며, 북경대학교에서 ‘몽골제국 다루가치제도 연구’로 박사학위(2012)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박사후 연구과정(Postdoc)과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사학과 부교수(2019~)로 재직 중이다. 원제국의 법제, 통치제도, 문화교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근래 몽골 통치의 동아시아적 유산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원 후기 『經世大典』의 편찬과 六典體制」(『동양사학연구』 141, 2017), 「大元帝國 法制와 高麗의 수용 양상」(『이화사학연구』 54, 2017), 『조선에서 만난 원제국 법률 문서』(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등이 있다.

■ 장 지아 【張 佳】 ZHANG Jia

산둥성 카오미 출생. 베이징대 중문계 고전문학 학사(2004년), 칭화대 역사계 역사문화학 석사(2007년), 푸단대 역사계 전문사 박사(2011년). 현재는 푸단대 문사연구원 부연구원. 전문분야는 원명기 사회문화사.

주저작: 『新天下之化: 明初礼俗改革研究』(復旦大学出版社, 014). 논문은 「元濟寧路景教世家考論」, 「再叙彝伦: 洪武時期的婚喪礼俗改革」, 「別華夷與正名分: 明初的日常雜礼規範」, 「衣冠與認同: 麗末鮮初朝鮮半島襲用「大明衣冠」历程初探」, 「明初的漢族元遺民」 등 수십편.

■ 에노모토 와타루 【榎本 渉】 ENOMOTO Wataru

도쿄대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도쿄대 동양문화 연구소 조수를 거쳐, 현재,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준교수. 박사(문학). 전공은 일본중세사.

주저작: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 九～一四世紀』(吉川弘文館, 2007년), 『僧侶と海商たちの東シナ海』(講談社選書メチエ, 2010년 / 講談社學術文庫, 2020년), 『南宋・元代日中渡航僧伝記集成 附 江戸時代における僧伝集積過程の研究』(勉誠出版, 2013년).

■ 한성민 【韓成敏】 HAN Sungmin

1991년 東國大學校 史學科 입학. 1998년 東國大學校大學院 史學科 입학. 2016년 東國大學校大學院 史學科 博士課程 졸업, 文學博士 학위 취득. 現在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院 研究教授. 專門分野는 韓國近代史. 近代韓日關係史. 韓國近代外交史. 근대 이후 극명하게 다른 길을 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한일 간 역사문제의 기원으로서 근대 한일관계사에 천착하여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작 : 『日本の '韓國併合' 過程 研究』(京仁文化社, 2021), 「제2회 헤이그 萬國平和會議 特使에 대한 日本의 對應」(『韓日關係史研究』 51, 2015), 「亡命者 金玉均에 대한 日本政府의 處遇와 朝鮮政策(1884-1890)」(『歷史와 現實』 109, 2018), 「1907년 體制 成立過程에서 日本의 韓國 政策과 韓國社會의 對應」(『日本歷史研究』 49, 2019) 등

■ 친광 【秦方】 QIN Fang

수도사범대 역사학원 준교수. 미네소타대에서 박사학위 취득. 주된 연구 분야는 현대 중국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와 여성사 문제.

주 저작: 『女界之興起: 晚清天津女子教育与女性形象 建構』(中華書局, 2019년), Co-authored with Emily Bruce, “Our Girls Have Grown Up in the Family: Educating German and Chinese Girls in th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Modern Chinese History, vol. 1, 2016; Later the revised version was collected in A History of the Girl: Formation, Education, and Identity, edited by Mary O’ Dowd and June Purvis, Palgrave Macmillan, 2018, pp. 103-122. 등 다수의 영어 및 중국어 저작이 있음.

■ 오쿠보 다케하루 【大久保 健晴】 OKUBO Takeharu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 박사(정치학). 전문은 동양정치사상사, 비교정치사상. 특히 18-19세기 네덜란드와 일본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면서 초기 근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서양과 동아시아 외교, 경제, 학술, 법을 둘러싼 교류사를, 문화 횡단적 시점으로 규명하고 있음. 도쿄도립대 대학원 사회과학 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메이지대 정치경제학부 전임준교수, 네덜란드 라이덴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 객원연구원, 게이오대 법학부 준교수를 거쳐 2019년부터 현직.

주 저작: 『近代日本の政治構想とオランダ』(東京大学出版会, 2010년), The Quest for Civilization: Encounters with Dutch Jurisprudence, Political Economy and Statistics at the Dawn of Modern Japan(translated by David Noble, Brill, 2014) 등이 있음.

제 6 회 국사들의 대화 ‘사람의 이동과 경계 · 권력 · 민족’ 레포트

김 경 태 (전남대학교)

이번 6회 국사들의 대화는 지난 1월에 이어 7개월 만에 개최되었다. 가까워진 거리는 쉽게 멀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더 자주 볼수록 사람들 사이의 친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대회에서는 모두가 익숙한 얼굴을 마주 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이번에는 공통 주제 하나를 두고 한 명의 발표자가 문제제기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방식이 마련되었다. 주제는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 “사람의 이동” 이었다. 이는 학술적으로도, 대중적으로도 논의가 뜨겁게 전개될 만한 주제였다.

9월1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회의의 준비가 시작되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해주신 사무국과 통역가 여러분들께 이번에는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리고 싶다. 9시 정각, 리언민 선생의 개회인사로 ‘대화’ 가 시작되었다. 무라 가즈아키 선생은 6회째를 맞는 이 회의의 이력과 취지를 설명하였다. 토론 시간이 부족하여 때번 아쉬움이 남았던 경험을 통해 이번 대회는 토론에 중점을 두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다만 실험적인 시도가 잘 될 것인지 여러분에 달려 있다며 다소 걱정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실험은 성공이었다.

문제제기는 시오데 히로유키 선생이 담당했다. ‘사람의 이동에서 보는 근대 일본: 국경, 국적, 민족’ 이라는 타이틀이었다. 역사 연구는 오랫동안 국가와 민족의 영향을 받았다. 그 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많았으나 주류가 되기는 어려웠다. 여러 시각을 포용하는 방법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오데 선생이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준 사례들은 그간 생각지 못한 점을 떠올리게 했다. 이동의 자유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사람의 이동을 규정하는가에 대해, 일본 제국시기 조선인과 오키나와인의 이동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사람의 이동이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무엇을 만드는 가에 주안점을 두고 하와이에서의 중국, 일본 이민자간의 관계를 소개했다. 요컨대 국가가 사람의 이동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는 발표였고, 중국, 한국 연구자에게 국사 속에서 사람의 이동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문제제기이기도 했다. 생생한 사진을 통해 되살아난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에 대해 한중일 각국에서 2명씩 지정토론자가 나섰다. 조원 선생은 몽골 제국 시기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의한 이동을 소개했다.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중, 제국 안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들 간의 경쟁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들 이동이 이후 역사에 미친 영향을 지적했다.

장지아 선생 역시 중국사의 이동을 예시로 들었다. 전쟁이 초래한 이동과 더불어, 정부가 주도한 강제적 이동과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경제적 이동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규제에도 자발적으로 이동을 계속하여 삶을 계속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다.

에노모토 와타루 선생은 고대와 중세 일본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해주었는데, 고대 일본은 출입관리를 엄밀히 했던데 비해 중세는 국가 관리가 없었고, 이에 이동하려는 이가 직접 여권의 역할을 하는 문서를 준비했다는 것이었다.

국가가 사람의 이동에 개입하려는 시도의 시간적 공간적 다양성을 엿볼 수 있었던 토론이었다. 한편으로 지금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바라보자면, 이동의 정지라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에서 더 활발한 접촉을 이끌어낸 것 같은 느낌도 든다.

한성민 선생은 근대 한국인의 이동 양상을 세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 반자발적(생계)인 이동, 둘째, 국가 정책적 이민, 셋째, 식민지화 이후 강제동원이었다. 아울러 약자에 대한 애정을 담은 트랜스내셔널 관점의 도입을 제안했고, 이주한 곳에서 살아야 한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감안할 때, 이주자 집단 간의 경쟁은 특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친광 선생은 제임스 스콧의 ‘조미아’ 를 소개하면서, 중심과 변두리, 변두리와 경계 바깥의 균형,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간 이들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동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함께 그 이면의 모습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선생은 자신의 필드연구를 간략히 소개하면서 팬데믹 이후 변화한, 혹은 변화하지 않은 경계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오쿠보 다케하루 선생은 사람의 이동을 또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근대화를 추진하던 나라에 고용된 외국인, 남양군도에 갇던 일본인의 원주민 인식의 사례였다. 사람들의 이동인 만큼, 여러 사례, 반대의 예를 살펴보는 것 매우 중요할 것이다. 주권국가에서 떨어져 나가는 난민은 어떻게 볼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해주었다. 한편, 동아시아를 넘어 다른 지역에 대한 시각도 공유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상의 지정토론을 통해,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서 사람의 이동이 야기되는 정치, 경제적 이유를 살펴볼 수 있었다. 역사 속 국가의 관리 방식과 이유, 그럼에도 이를 넘어서려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며,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시야가 확장된 느낌이었다. 동일한 주제를 두고 자신의 전공 분야와 연관하여 짧고 간명하게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상당한 효용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진 세션은 지정토론자가 참여하는 자유토론 시간이었다. 남기정 선생이 사회를 맡아주었다. 여기에서는 이동의 자발과 비자발성의 구분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시오데 선생은 개인이 다양한 목적에서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번 문제제기의 목적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동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국가와 개인은 일방적이 아닌 긴장관계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동과 이주를 구분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며, 민족이란 네이션인가 에스닉 그룹인가, 에스닉 그룹 역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3, 4세션은 패널리스트가 참여한 자유토론이었다. 보다 논의의 폭이 넓어졌다. 토론에 앞서 류지에 선생이 논점정리를 해주었는데, 무엇이 이동을 규정하는가, 이동은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각국의 국사교육이 이동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오늘날 사람의 이동을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의 의미였다. 덕분에 자유토론에 앞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다양한 세부 전공 분야를 가진 연구자들의 심혈을 기울인 질문과 논점 제기는 본 대화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었다. 사람의 이동을 생각할 때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친 종교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잊힌 이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일반인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히라야마 노보루). 자발과 비자발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중동태(中動態)’ 라는 개념, 즉 자발적이지 않지만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오카와 마코토). 사람의 이동을 기축으로 해서 글로벌 히스토리를 그린다는 것은 중요한 시도이다. 이번 테마를 통해 고대~근대 국가 사회라는 것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아사노 도요미). 이동한 이주민이 현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이주 2세대들의 아이덴티티 문제(남기현). 이동과 노동력의 밀접한 관계(사토 유키). 사람의 이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감염병이 현대 사회에서 자국민 보호와 모순을 이루는 장면에서 느낀 의아함(이치카와 토모오) 등이 기억에 남았다. 또한 본 세션의 사회자였던 정순일, 평하오 선생은 전공 분야인 중국과 일본의 여권, 호적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주어 시대상의 이해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한국의 사례가 충분히 소개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웠으나 이는 한국사 전공자인 필자의 책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토론시간이 마무리되었다. 이어서 송쯔웅, 미타니 히로시 선생의 총괄, 조광 선생의 폐회인사가 이어졌다. 모두 공통적으로 토론이 더 전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가 충만하였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였다. 미타니 선생은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연구를 하고 발표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밝은 동아시아의 미래를 느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만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도 이 대화를 이끌어갈 주기를 당부하였다.

제6회 대화로 다양한 시대와 분류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모여서 공통된 주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의 대단함을 깨달았다. 문제제기는 논의의 폭을 넓혔고, 지적 자극은 새로운 의문을 이끌어냈다. 토론은 끝이 날 수가 없는 것이다. 9월 11일의 토론시간은 끝났으나, 결코 세 나라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국사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한편으로, 각 연구자들이 자신이 속한 곳에서 ‘대화의 동료’ 들을 불러들여 ‘대화의 장’ 을 넓힐 수도 있을 것이다.

(김경태 「제6회 국사들의 대화 레포트」 에서 전재함)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이어지는 국사대화 : 국경과 세대를 넘어서

미타니 히로시 (도쿄대 명예교수)

[원문은 일본어. 번역 : 홍용일 (도쿄대)]

어제 제6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연구모임이 온라인으로 열렸다. 아쓰미 국제교류재단의 지원 아래, 2016년부터 동아시아의 자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대화의 길을 찾기 위해 개최해 온 회의다. 국제 관계와 이웃 국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유학을 계기로 그 나라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대화해 온 반면, ‘국사’ 연구자는 그러한 경험이 없다. 20세기부터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역사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폐쇄적인 환경에서 살아온 국사학자들의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 일본 와세다대 류지에게의 제창으로, 그리고 아쓰미재단의 이해에 힘입어, 일·중·한 역사가들이 격년으로 대화를 위한 모임을 거듭해 왔다.

이번 테마는 ‘사람의 이동과 경계·권력·민족’ 으로, 시오데 히로유키씨의 기조 보고 후, 한중일 3개국에서 각각 두 명이 지정 토론에 나섰다. 그 후, 10명의 패널리스트가 약 3시간 반에 걸쳐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이전과는 달리 발표자는 단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상황의 흐름에 맡긴다는 모험적인 시도였지만, 실행위원회 무라 가즈야키, 리언민, 남기정, 평하오, 정순일 씨 등의 주도면밀한 준비와 팀워크 덕분에 알찬 토론이 실현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주력이 된 삼국의 중견 연구자와 젊은 역사가들은 착실한 사료연구를 바탕으로, 각자의 전문분야와 국가를 뛰어넘는 대화에 적극 참여하면서 학술 토론을 훌륭히 마칠 수 있었다. 연장자로서 기쁜 일이다.

이 국사대화는 원래 동아시아 삼국, 특히 일본과 이웃나라 간에 얽힌 역사마찰을 해소하고 국제관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금세기 초 역사 인식 문제가 이슈화됐을 때, 나와 동세대 역사가들은 수 차례 대화를 거듭해왔다. 적어도 역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이 다른 해석을 보일 때, 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수준까지는 이르렀다. 하지만 그 후, 동아시아 정부들은 영토 외의 첨예한 문제들을 굳이 쟁점화하였고, 그로 인해 역사 문제는 뒤편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지금도 20세기 전반의 흑독한 역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금세기 초 동아시아 역사가들의 성과를 차마 폐기할 수는 없다. 한 걸음 물러서 적어도 학술 영역에서만이라도 차세대 역사가들에게 일상적인 교류와 연계의 장을 마련해 두고 싶다. 학문적으로도 각국의 역사가들이 자국 학계에 안주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이번 국사 대화는 초창기와 다르게 진행되

었지만, 또한 세대교체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작년 1월 필리핀 집회에 참가한 학자들이 아쓰미재단의 전(前) 장학생들과 협력해, 새로운 문제설정 하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신종 코로나 팬데믹을 의식하며 ‘19세기 동아시아 감염증의 유행과 사회적 대응’ 을 다루었다. 내용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토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젊은 연구자 주도로 ‘사람의 이동과 경계, 권력, 민족’ 을 주제로 삼았다. 학교 교과서의 ‘국사’ 를 초월한 역사 내러티브를 탐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번에 취급한 주제들이 충분히 토의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경통과증명서’ 와 같이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는 논의가 이어진 세션도 있어, 머지않아 공동논문집을 엮을 가능성 또한 엿볼 수 있었다.

지금 동아시아 3국의 국제관계는 최악이다. 각국 여론에서 표출되는 상호 적대관계는 금세기 초에는 예상도 못했을 정도다. 하지만 이번 연구 집회에는 현재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조류가 존재했다. 젊은이들이 그 역군임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 세상은 정치에 의해 규정되는 것만이 아니다. 학문을 통한 유대가 굽고 강인하게 성장하여, 신종 코로나 팬데믹은 물론, 국가 간의 적대 관계를 뛰어 넘어 세상에 공익을 가져다주기를 바란다. 이번 회의는 그 기대를 크게 부풀려준 집회였다.

※제6회 ‘국사들의 대화’ 회의 참석 다음날 페이스북 계정에 투고한 글입니다.

제 6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사람의 이동과 경계·권력·민족 참석자 목록

	이름 (영어)	이름 (일본어)	이름 (한국어)	이름 (중국어)	소속 (한국어)
발표자					
1	Shiode Hiroyuki	塩出浩之	시오테 히로유키	盐出浩之	교토대
지정토론자					
2	Cho Won	趙 阮	조 원	赵 阮	부산대
3	Zhang Jia	張 佳	장 지아	张 佳	푸단대
4	Enomoto Wataru	榎本 渉	에노모토 와타루	榎本 渉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5	Han Sungmin	韓 成敏	한 성민	韩 成敏	세종대
6	Qin Fang	秦 方	친 팡	秦 方	수도사범대
7	Okubo Takeharu	大久保健晴	오쿠보 다케하루	大久保健晴	게이오대
패널리스트					
8	Asano Toyomi	浅野豊美	아사노 도요미	浅野丰美	와세다대
9	Hirayama Noboru	平山 昇	히라야마 노보루	平山 升	가나가와대
10	Ichikawa Tomoo	市川智生	이치카와 토모오	市川智生	오키나와국제대
11	Nam Kihyun	南 基玄	남 기현	南 基玄	독립기념관
12	Okawa Makoto	大川 真	오카와 마코토	大川 真	추오대
13	Sato Yuki	佐藤雄基	사토 유키	佐藤雄基	릿쿄대
14	Sim Chulki	沈 哲基	심 철기	沈 哲基	연세대
15	Sun Jiqiang	孫 繼強	순 지치양	孙 继强	쑤저우대
16	Wang Yaozhen	王 耀振	왕 야오젠	王 耀振	톈진외국어대
실행위원					
17	Chen Lu	陳 璐	첸 루	陈 璐	와세다대
18	Cho Kwang	趙 琬	조 광	赵 琬	고려대 명예교수
19	Chong Soonil	鄭 淳一	정 순일	郑 淳一	고려대
20	Kim Kyongtae	金 キョンテ	김 경태	金 鏞泰	전남대
21	Li Enmin	李 恩民	리 언민	李 恩民	오비린대
22	Liu Jie	劉 傑	류 지에	刘 杰	와세다대
23	Mitani Hiroshi	三谷 博	미타니 히로시	三谷 博	도쿄대 명예교수
24	Mura Kazuaki	村 和明	무라 가즈아키	村 和明	도쿄대
25	Nam Kijeong	南 基正	남 기정	南 基正	서울대
26	Peng Hao	彭 浩	펑 하오	彭 浩	오사카시립대
27	Song Zhiyong	宋 志勇	송 쯔용	宋 志勇	난카이대
동시통역					
28	Ding Li	丁 莉	정 리	丁 莉	베이징대
29	Song Gang	宋 剛	송 강	宋 剛	베이징외국어대
30	Lee Hyeri	李 ヘリ	이 헤리	李 惠利	한국외대
31	Ahn Younghee	安 ヨンヒ	안 영희	安 暎姫	한국외대
32	Jin Danshi	金 丹実	김 단실	金 丹实	통번역자
33	Piao Xian	朴 賢	박 현	朴 贤	교토대
번역					
34	Hong Yongil	洪 龍日	홍 용일	洪 龙日	도쿄대
35	Yu Ning	于 寧	유 닝	于 宁	국제기독교대
36	Yun Jae-un	尹 在彦	윤 재언	尹 在彦	히토츠바시대
사무국					
37	Imanishi Junko	今西淳子	이마니시 준코	今西淳子	아쓰미재단
38	Tsunoda Eiichi	角田英一	쓰노다 에이이치	角田英一	아쓰미재단
39	Nagai Ayumi	長井亜弓	나가이 아유미	长井亚弓	아쓰미재단
40	Miyake Aya	三宅 綾	미야케 아야	三宅 綾	아쓰미재단

SGRA レポート バックナンバーのご案内

- SGRA レポート01 設立記念講演録 「21世紀の日本とアジア」 船橋洋一 2001. 1. 30発行
- SGRA レポート02 CISV国際シンポジウ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への挑戦：多様性の中に調和を求めて」
今西淳子、高 偉俊、F. マキト、金 雄熙、李 來賛 2001. 1. 15発行
- SGRA レポート0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技術の創造」 畑村洋太郎 2001. 3. 15発行
- SGRA レポート04 第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の皆さんへ」 関 啓子、L. ビッヒラー、高 熙卓 2001. 5. 10発行
- SGRA レポート05 第2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なかの新しい東アジア：経済協力をどう考えるべきか」
平川 均、F. マキト、李 鋼哲 2001. 5. 10発行
- SGRA レポート06 投稿 「今日の留学」「はじめの一步」 工藤正司 今西淳子 2001. 8. 30発行
- SGRA レポート07 第3回フォーラム講演録 「共生時代のエネルギーを考える：ライフスタイルからの工夫」
木村建一、D. バート、高 偉俊 2001. 10. 10発行
- SGRA レポート08 第4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教育革命：ITは教育をどう変えるか」
白井建彦、西野篤夫、V. コストブ、F. マキト、J. スリスマンティオ、蔣 恵玲、楊 接期、
李 來賛、斎藤信男 2002. 1. 20発行
- SGRA レポート09 第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と民族主義：対話と共生をキーワードに」
ペマ・ギャルポ、林 泉忠 2002. 2. 28発行
- SGRA レポート10 第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とイスラーム：文明間の対話のために」
S. ギュレチ、板垣雄三 2002. 6. 15発行
- SGRA レポート11 投稿 「中国はなぜWTOに加盟したのか」 金香海 2002. 7. 8発行
- SGRA レポート12 第7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環境診断：地球の砂漠化を考える」
建石隆太郎、B. プレンサイン 2002. 10. 25発行
- SGRA レポート13 投稿 「経済特区：フィリピンの視点から」 F. マキト 2002. 12. 12発行
- SGRA レポート14 第8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中の新しい東アジア」 + 宮澤喜一元総理大臣をお迎えして
フリーディスカッション
平川 均、李 鎮奎、ガト・アルヤ・ブートウラ、孟 健軍、B. ヴィリエガス 日本語版2003. 1. 31発行、
韓国語版2003. 3. 31発行、中国語版2003. 5. 30発行、英語版2003. 3. 6発行
- SGRA レポート15 投稿 「中国における行政訴訟—請求と処理状況に対する考察—」 呉東鎬 2003. 1. 31発行
- SGRA レポート16 第9回フォーラム講演録 「情報化と教育」 苑 復傑、遊間和子 2003. 5. 30発行
- SGRA レポート17 第10回フォーラム講演録 「21世紀の世界安全保障と東アジア」
白石 隆、南 基正、李 恩民、村田晃嗣 日本語版2003. 3. 30発行、英語版2003. 6. 6発行
- SGRA レポート18 第1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研究：国境を越える取り組み」 高橋 甫、貫戸朋子 2003. 8. 30発行
- SGRA レポート19 投稿 「海軍の誕生と近代日本—幕末期海軍建設の再検討と『海軍革命』の仮説」 朴 榮濬
2003. 12. 4発行
- SGRA レポート20 第12回フォーラム講演録 「環境問題と国際協力：COP3の目標は実現可能か」
外岡豊、李海峰、鄭成春、高偉俊 2004. 3. 10発行
- SGRA レポート21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アジア共同体構築に向けての日本及び韓国の役割について」2004. 6. 30発行
- SGRA レポート22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民族紛争—どうして起こるのか どう解決するか」 明石康 2004. 4. 20発行
- SGRA レポート23 第1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宮島喬、イコ・プラムティオノ 2004. 2. 25発行
- SGRA レポート24 投稿 「1945年のモンゴル人民共和国の中国に対する援助：その評価の歴史」 フスレ 2004. 10. 25発行

- SGRA レポート25 第14回フォーラム講演録 「国境を越えるE-Learning」
斎藤信男、福田収一、渡辺吉裕、F. マキト、金 雄熙 2005. 3. 31 発行
- SGRA レポート26 第1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この夏、東京の電気は大丈夫？」 中上英俊、高 偉俊 2005. 1. 24 発行
- SGRA レポート27 第1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軍事同盟の過去・現在・未来」
竹田いさみ、R. エルドリッチ、朴 榮濬、渡辺 剛、伊藤裕子 2005. 7. 30 発行
- SGRA レポート28 第17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地球市民の義務教育-」
宮島 喬、ヤマグチ・アナ・エリーザ、朴 校熙、小林宏美 2005. 7. 30 発行
- SGRA レポート29 第18回フォーラム・第4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韓流・日流：東アジア地域協力におけるソフトパワー」 李 鎮奎、林 夏生、金 智龍、道上尚史、木宮正史、李 元徳、金 雄熙 2005. 5.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0 第19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文化再考-自由と市民社会をキーワードに-」
宮崎法子、東島 誠 2005. 12.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1 第20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雁はまだ飛んでいるか」
平川 均、渡辺利夫、トラン・ヴァン・トウ、範 建亭、白 寅秀、エンクバヤル・シャグダル、F. マキト
2006. 2.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2 第21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留学生-」
横田雅弘、白石勝己、鄭仁豪、カンピラパーブ・スネート、王雪萍、黒田一雄、大塚晶、徐向東、
角田英一 2006. 4.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3 第22回フォーラム講演録 「戦後和解プロセスの研究」 小菅信子、李 恩民 2006. 7.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4 第2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と宗教：宗教って何なの？」
島蘭 進、ノルマン・ヘイヴンズ、ランジャナ・ムコパディヤヤー、ミラ・ゾンターク、
セリム・ユジェル・ギュレチ 2006.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5 第24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ごみ処理と国境を越える資源循環～私が分別したごみはどこへ行くの？～」
鈴木進一、間宮 尚、李 海峰、中西 徹、外岡 豊 2007. 3.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6 第25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は教育を強化できるか」
高橋富士信、藤谷哲、楊接期、江蘇蘇 2007.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7 第1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若者の未来と日本語』」
池崎美代子、武田春仁、張 潤北、徐 向東、孫 建軍、朴 貞姫 2007. 6.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8 第6回日韓フォーラム in 葉山講演録 「親日・反日・克日：多様化する韓国の対日観」
金 範洙、趙 寛子、玄 大松、小針 進、南 基正 2007. 8. 31 発行
- SGRA レポート39 第2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思想史～私たちの出会いと将来～」
黒住 真、韓 東育、趙 寛子、林 少陽、孫 軍悦 2007. 1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40 第27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アジアにおける外来種問題～ひとの生活との関わりを考える～」
多紀保彦、加納光樹、ブラチャー・ムシカシントン、今西淳子 2008. 5. 30 発行
- SGRA レポート41 第28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いのちの尊厳と宗教の役割」
島蘭進、秋葉悦子、井上ウイマラ、大谷いづみ、ランジャナ・ムコパディヤヤー 2008. 3. 15 発行
- SGRA レポート42 第2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新疆講演録 「黄土高原緑化協力の15年—無理解と失敗から
相互理解と信頼へ—」 高見邦雄 日本語版、中国語版 2008. 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4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主義」 平川均 2008. 3. 1 発行
- SGRA レポート44 第29回フォーラム講演録「広告と社会の複雑な関係」 関沢 英彦、徐 向東、オリガ・ホメンコ
2008. 6.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45 第30回フォーラム講演録 「教育における『負け組』をどう考えるか～日本、中国、シンガポール～」佐藤香、山口真美、シム・チュン・キャット 2008. 9.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46 第31回フォーラム講演録 「水田から油田へ：日本のエネルギー供給、食糧安全と地域の活性化」東城清秀、田村啓二、外岡 豊 2009. 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47 第32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オリンピックと東アジアの平和繁栄」清水 諭、池田慎太郎、朴 榮濬、劉傑、南 基正 2008. 8. 8 発行
- SGRA レポート 48 第3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延辺&北京講演録 「一燈やがて万燈となる如くーアジアの留学生と生活を共にした協会の50年」工藤正司 日本語版、中国語版 2009. 4.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49 第3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が格差を縮めるか」東 茂樹、平川 均、ド・マン・ホーン、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09. 6.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0 第8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日韓の東アジア地域構想と中国観」平川 均、孫 洌、川島 真、金 湘培、李 鋼哲 日本語版、韓国語 Web 版 2009. 9.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51 第3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テレビゲームが子どもの成長に与える影響を考える」大和多直樹、佐々木 敏、渋谷明子、ユ・ティ・ルイン、江 蘇蘇 2009. 11.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2 第3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市民社会と21世紀の課題」宮島 喬、都築 勉、高 熙卓、中西 徹、林 泉忠、ブ・ティ・ミン・チイ、劉 傑、孫 軍悦 2010. 3.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53 第4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上海講演録 「世界的課題に向けていま若者ができること～TABLE FOR TWO～」近藤正晃ジェームス 2010. 4.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4 第37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エリート教育は国に『希望』をもたらすか：東アジアのエリート高校教育の現状と課題」玄田有史 シム・チュンキャット 金 範洙 張 健 2010.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55 第38回フォーラム講演録 「Better City, Better Life ～東アジアにおける都市・建築のエネルギー事情とライフスタイル～」木村建一、高 偉俊、Mochamad Donny Koerniawan、Max Maquito、Pham Van Quan、葉 文昌、Supreedee Rittironk、郭 榮珠、王 劍宏、福田展淳 2010. 12.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6 第5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 「中国の環境問題と日中民間協力」第一部（北京）：「北京の水問題を中心に」高見邦雄、汪 敏、張 昌玉 第二部（フフホト）：「地下資源開発を中心に」高見邦雄、オンドロナ、ブレンサイン 201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57 第39回フォーラム講演録 「ポスト社会主義時代における宗教の復興」井上まどか、ティムール・ダダバエフ、ゾンターク・ミラ、エリック・シッケタンツ、島 蘭 進、陳 継東 2011. 12.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8 投稿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論への一試論」平川 均 2011. 2.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9 第10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1300年前の東アジア地域交流」朴 亨國、金 尚泰、胡 潔、李 成制、陸 載和、清水重敦、林 慶澤 2012. 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60 第40回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の少子高齢化問題と福祉」田多英範、李 蓮花、羅 仁淑、平川 均、シム・チュンキャット、F・マキト 2011. 1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61 第41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共同体の現状と展望」恒川恵市、黒柳米司、朴 榮濬、劉 傑、林 泉忠、ブレンサイン、李 成日、南 基正、平川 均 2012.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 62 第6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 「Sound Economy ～私がミナマタから学んだこと～」 柳田耕一 「内モンゴル草原の生態系：鉱山採掘がもたらしている生態系破壊と環境汚染問題」郭 偉 2012. 6. 15 発行

- SGRA レポート64 第43回SGRAフォーラム in 蓼科 講演録「東アジア軍事同盟の課題と展望」
朴 榮濬、渡辺 剛、伊藤裕子、南 基正、林 泉忠、竹田いさみ 2012.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65 第44回SGRAフォーラム in 蓼科 講演録「21世紀型学力を育むフューチャースクールの戦略と課題」
赤堀侃司、影戸誠、曹圭福、シム・チュンキャット、石澤紀雄 2013. 2. 1 発行
- SGRA レポート66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日英戦後和解（1994–1998年）」（日本語・英語・中国語）沼田貞昭
2013.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67 第12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太平洋時代における東アジア新秩序の模索」
平川 均、加茂具樹、金 雄熙、木宮正史、李 元徳、金 敬黙 2014. 2. 25 発行
- SGRA レポート68 第7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ボランティア・志願者論」
（日本語・中国語・英語）宮崎幸雄 2014. 5. 15 発行
- SGRA レポート69 第45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紛争の海から平和の海へ—東アジア海洋秩序の現状と展望—」
村瀬信也、南 基正、李 成日、林 泉忠、福原裕二、朴 榮濬 2014.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70 第46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インクルーシブ教育：子どもの多様なニーズにどう応えるか」
荒川 智、上原芳枝、ヴィラーク ヴィクトル、中村ノーマン、崔 佳英 2015.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71 第47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科学技術とリスク社会—福島第一原発事故から考える科学技術
と倫理—」崔 勝媛、島藺 進、平川秀幸 2015. 5. 25 発行
- SGRA レポート72 第8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近代日本美術史と近代中国」
佐藤道信、木田拓也 2015.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73 第14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第48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経済のダイナミズム—
物流を中心に」李 鎮奎、金 雄熙、榎原英資、安 秉民、ドマンホーン、李 鋼哲 2015.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74 第49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円卓会議「日本研究の新しいパラダイムを求めて」
劉 傑、平野健一郎、南 基正 他15名 2016. 6. 20 発行
- SGRA レポート75 第50回SGRAフォーラム in 北九州講演録「青空、水、くらし—環境と女性と未来に向けて」
神崎智子、斉藤淳子、李 允淑、小林直子、田村慶子 2016. 6. 27 発行
- SGRA レポート76 第9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フフホト&北京講演録「日中200年—文化史からの再検討」
劉 建輝 2020.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77 第15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これからの日韓の国際開発協力—共進化アーキテクチャ
の模索」孫赫相、深川由紀子、平川均、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16.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78 第51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今、再び平和について—平和のための東アジア知識人連帯を考
える—」南基正、木宮正史、朴榮濬、宋均營、林泉忠、都築勉 2017. 3. 27 発行
- SGRA レポート79 第52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
劉傑、趙珖、葛兆光、三谷博、八百啓介、橋本雄、松田麻美子、徐静波、鄭淳一、金キョンテ
2017. 6. 9 発行
- SGRA レポート80 第16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日中韓の国際開発協力—新たなアジア型モデルの模索—」
金雄熙、李恩民、孫赫相、李鋼哲 2017. 5. 16 発行
- SGRA レポート81 第56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人を幸せにするロボット—人とロボットの共生社会をめざして第
2回—」稲葉雅幸、李周浩、文景楠、瀬戸文美 2017.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82 第57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第2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蒙
古襲来と13世紀モンゴル帝国のグローバル化」葛兆光、四日市康博、チョグト、橋本雄、エルデニ
バートル、向正樹、孫衛国、金甫枕、李命美、ツェレンドルジ、趙阮、張佳 2018.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83 第58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を結ぶ？『一帯一路』の地政学」朱建榮、李彦銘、朴榮
濬、古賀慶、朴准儀 2018. 11. 16 発行

- SGRA レポート84 第11回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からみた中国美術史学」塚本磨充、呉孟晋
2019. 5. 17 発行
- SGRA レポート85 第17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北朝鮮開発協力：各アクターから現状と今後を聞く」
孫赫相、朱建榮、文昊鍊 2019. 11. 22 発行
- SGRA レポート86 第59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3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7
世紀東アジアの国際関係—戦乱から安定へ—」三谷博、劉傑、趙琬、崔永昌、鄭潔西、荒木和憲、
許泰玖、鈴木開、祁美琴、牧原成征、崔姪姫、趙軼峰 2019. 9. 20 発行
- SGRA レポート87 第61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の高等教育のグローバル化!？」
沈雨香、吉田文、シン・ジョン Chol、関沢和泉、ムラット・チャクル、金範洙 2019. 3. 26 発行
- SGRA レポート88 第12回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日中映画交流の可能性」
刈間文俊、王衆一 2020. 9. 25 発行
- SGRA レポート89 第62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再生可能エネルギーが世界を変える時…? —不都合な真実を超えて」
ルウェリン・ヒューズ、ハンス＝ヨゼフ・フェル、朴准儀、高偉俊、葉文昌、佐藤健太、近藤恵
2019. 11. 1 発行
- SGRA レポート90 第63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4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東
アジア』の誕生—19世紀における国際秩序の転換—」三谷博、大久保健晴、韓承勳、孫青、大川
真、南基玄、郭衛東、塩出浩之、韓成敏、秦方 2020.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91 第13回SGRA-V カフェ講演録「ポスト・コロナ時代の東アジア」林 泉忠 2020.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92 第13回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国際日本学としてのアニメ研究」大塚英志、秦 剛、
古市雅子、陳 夔 2021.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93 第14回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東西思想の接触圏としての日本近代美術史再考」稲賀
繁美、劉 曉峰、塚本磨充、王 中忱、林 少陽 2021.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94 第65回SGRA-V フォーラム講演録「第5回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9
世紀東アジアにおける感染症の流行と社会的対応」朴 漢珉、市川智生、余 新忠 2021. 10. 05 発行
- SGRA レポート95 第19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岐路に立つ日韓関係：これからどうすればいいか」
小此木 政夫、李 元徳、沈 揆先、伊集院 敦、金 志英、小針 進、朴 榮濬、西野 純也
2021. 11. 17 発行
- SGRA レポート96 第66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6回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 人の移動
と境界・権力・民族」塩出浩之、趙 阮、張 佳、榎本 渉、韓 成敏、秦 方、大久保健晴 2022. 6. 9 発行
- SGRA レポート97 第67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誰一人取り残さない』如何にパンデミックを乗り越えSDGs実現
に向かうか—世界各地からの現状報告—」佐渡友 哲、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杜 世鑫、ダ
ルウィッシュ ホサム、李 鋼哲、モハメド・オマル・アブディン 2022. 2.10 発行
- SGRA レポート98 第15回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はいかに作られ、モダンはいかなる変化を生ん
だのか?—空間アジアの形成と生活世界の近代・現代—」山室信一 2022. 6. 9 発行

■ レポートご希望の方は、SGRA 事務局 (Tel : 03-3943-7612 Email : sgra@aisf.or.jp) へご連絡ください。

SGRA 레포트 No.0096

제 66회 SGRA 포럼

제 6 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사람의 이동과 경계 · 권력 · 민족

편집 · 발행 (공익재단)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SGRA)
 〒 112-0014 東京都文京区関口3-5-8
 Tel: 03-3943-7612 Fax: 03-3943-1512
 SGRA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
 전자 메일: sgra@aisf.or.jp

발행일 2022년 8월 10일
발행 책임자 이마니시 준코 (今西 淳子)
한국어판 감수 윤 재언 (尹 在彦)
인쇄 (株) 平河工業社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본지 기사에 대한 문의나 인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락주세요.

©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 Copying is Prohibited. For inquiries or quotes, please contact us.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사람의 이동과 경제 · 권력 · 민족



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
ATSUMI INTERNATIONAL FOUNDATION